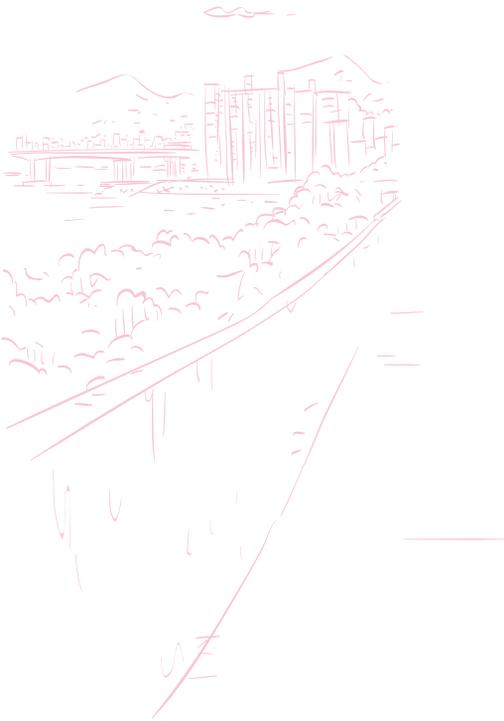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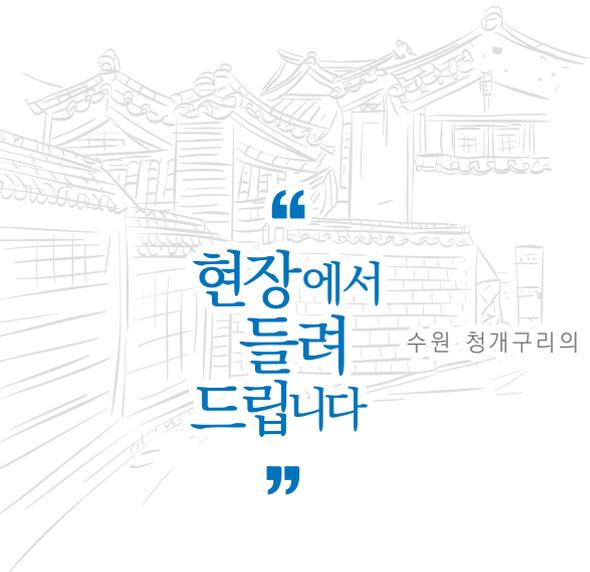
“  
현장에서  
들려  
드립니다  
”

수원 청개구리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행정





“  
현장에서  
들려  
드립니다  
”

수원 청개구리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행정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                         |    |
|-------------------------|----|
| 어디든지 달려가는 수원시 만능 해결사    | 07 |
|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          | 11 |
| 수원이 낳은 급식 우량아           | 18 |
|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 29 |
| 씨 뿌리고, 물 주고, 열매 기다리는 중  | 40 |
| 새 출발의 갈림길에서 기다리는 튼튼한 수원 | 49 |

맛있는 인문학



|                       |     |
|-----------------------|-----|
| 예술의 힘, 마을을 살리다        | 61  |
| 200년 전의 애민정신 온새미로     | 67  |
| 역사의 도시에 예술로 문화를 채우다   | 73  |
| 삶에 인문을 채우는 지식창고       | 82  |
| 새로운 문화공간, 폐(廢)를 재(再)로 | 91  |
| 인문의 따뜻함이 수원에 내려앉을 때   | 101 |

화색 벽 말고 풀빛 녹지로 부탁드립니다



|                               |     |
|-------------------------------|-----|
| 수원에 드리운 초록빛                   | 110 |
| 어디에서도 알아챌 수 없고, 어디에서나 경험하고 있는 | 118 |
| 저탄소 친환경 도시로의 나침반              | 129 |
| 0.9와 1.1을 조율해 1.0을 만들다        | 137 |
| 철도를 타고 수원을 누비다                | 147 |
| 아가위 나무에서 불어온 씨앗이 탑골에 닿기까지     | 155 |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두 배 됩니다



|                              |     |
|------------------------------|-----|
| 공유의 모든 것                     | 169 |
| 소유에서 공유로, 환경과 수원시민이 함께하는 나누기 | 177 |
| 나눌수록 넓어지는 마법 같은 주차장          | 183 |
| 장난감 빌려 가세요, 모두가 함께 쓰는 장난감    | 188 |
| 공유로 완성되는 시민청사                | 194 |
| 우리, 타조 한 번 타죠?               | 202 |
| 방방곡곡 찾아가는 수원 청개구리            | 208 |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                    |     |
|--------------------|-----|
| 천천히 가깝니다           | 217 |
| 노+사+민'정            | 231 |
| Job多한 수원, 상생의 나비효과 | 241 |
| 답이 먼지냐? 달같이 먼지냐?   | 253 |
| 공동체 회복의 르네상스       | 265 |

“현장에서 들려 드립니다.”

오늘도  
‘안녕’  
하신가요?



# 어디든지 달려가는 수원시 만능 해결사



Yes 생활민원처리반 수리기술자들이 차에서 각종 공구를 내리는 모습  
(2012.11.20. 수원시 포토뱅크)

곰팡이 핀 벽, 바람이 새는 창문, 동파된 보일러 ...

수원시에는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는 ‘맥가이버’가 있다

‘가사서비스 Yes 생활민원처리반’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리 기술자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집안 내 불편사항을 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이다. 2012년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같은 해 4월 발대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섰다. 2021년까지 3만 7,289가구(연 평균 4,000가구)가 이용했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서비스이다.

Yes 생활민원처리반의 출동은 취약계층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다. 수원시 휴먼콜센터를 통해 가정 내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다. Yes 생활민원처리

반을 모르거나, 직접 의뢰가 어려운 시민들은 동사무소에서 시청 콜센터로 연결해 주기도 한다. 이후 시청에서 민원 정보를 Yes 생활민원처리반으로 보내고, Yes 생활민원처리반 사무실에서 서비스 대상자 여부와 민원을 확인한다. 이후 민원인과 전화를 통해 방문 약속을 잡고, 해당 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챙겨 2인 1조의 수리기사들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 ‘아들’보다 나은 Yes 생활민원처리반

수리기사들은 차에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수리도구들과 자재를 챙겨 다니고 있다. 다양한 도구들을 현장에 나가 민원으로 들어온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집 안의 다른 불편사항 역시 확인, 점검한 후 함께 수리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요구사항을 고치고 있으면 남은 한 사람이 집안 곳곳을 돌아보며 집안 시설물 점검을 하고, 발견되는 고장이나 이상이 있으면 요구사항과 함께 수리를 진행하는 식이다. 2018년부터는 민원인 집을 방문할 때, 가스누수탐지기를 이용해 가스 점검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민원으로 접수되는 불편사항들은 화장실 전구가 나가거나, 하수구가 막히는 등 소위 ‘대공사’가 아닌 사소한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고장들이 생활속에선 큰 불편을 초래한다. Yes 생활민원처리반의 민원인들, 즉 취약계층의 경우 대부분이 노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 내 불편사항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Yes 생활민원처리반은 이들의 든든한 ‘아들’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부모님 집 이곳저곳의 잔 고장을 해결해 주는 아들처럼, 그들 생활속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잔고장이지만 민원인들에겐 생활속 큰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Yes 생활민원처리반이 효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Yes 생활민원처리반 기사들이 수리하는 모습(2012.11.20. 수원시 포토뱅크)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들처럼 민원인에게 마음으로 다가간다. 민원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기술적인 수리뿐만이 아니라 사람 간의 교류와 사랑이다. Yes 생활민원처리반은 기술자, 상담사, 말동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_\_\_\_\_그러니까, 슬리퍼, 그냥 추운 날에 슬리퍼를 신고 그냥 양말도 안 신고 그래가지고 기술자들이 다 고쳐 주고 난 다음에 주변에 신발 집 가가지고 털 달린 신발을 사다 이렇게 딱 주시더라구요. 그런 걸 보고 아, 그러니까 저분들이 진짜로 필요한 거는 형광등 고쳐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기술자가 아니고 상담사다. 거의. 반은 상담사고, 반은 말동무 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죠. <도시관리과(前 시민봉사과) 구자울 주무관>

### 생활밀착형 복지의 선두주자 수원시

Yes 생활민원처리반은 탁상행정과 전시행정이 아닌, 만족과 성과를 동반하는 복지행정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곳까지 들어가서 복지서비스를 실행하는 밀착 복지의 현실화라고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발 빠르게 실현한 지자체 중 하나이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사업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에 3,5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했으며, 만족도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등 시작하자마자 성공적인 성과를 보였다. Yes 생활민원처리반이 생활밀착형 복지의 성공 사례로 떠오르자, 타 지자체들도 속속 도입하기 시작했다. 타 지자체들의 복지사업 구상 시, 수원시 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등 수원시는 생활밀착형 복지에서 타 지자체들의 모범이 됐다. 이처럼 성공적인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자 민원인들의 아들, 때로는 손과 발이 되어 주는 Yes 생활민원처리반은 오늘도 열심히 출동 중이다.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개소식(2011.11.10. 수원시 포토뱅크)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

2010년대, 우리 모두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됐다. 이는 자연스럽게 ‘복지’라는 키워드를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 다양한 복지사업이 확대되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수원에는 이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기 위한 휴먼서비스센터가 있다. 센터 이름이 ‘휴먼’ 서비스센터인 것처럼, 휴먼서비스센터는 사람 중심의 복지보건서비스를 연계하는 복지 생태계 전문 사례기관이다.

### 휴먼시티 수원, 휴먼서비스센터를 세우다

1990년대 말만 해도 각 시청에 사회복지 관련 과는 1개씩밖에 없었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수원시청 내 사회복지 관련 부서는 7개 과, 40개 팀으로 늘어났다. 관련 부서가 늘어남과 동시에 관에 대한 선택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발달됐고 공공복지 영역이 확대됐다. 이에 자연스럽게 관에서의 민과 관의 서비스 연계, 자원 발굴 등의 어려움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후원의 경우, 대다수가 관으로 쏠리기 때문에 민의 자원유지에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과 관의 협력, 조정자와 중개자 역할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민의 사례관리 노하우와 관의 다량의 데이터가 만난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민과 관이 협력할 수 있는 센터, 휴먼서비스센터가 만들어졌다.



휴먼서비스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장면(2021.12.10. 수원시청 보도자료)

\_\_\_\_\_이런 거를 좀 균형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가 필요하겠다. 또 관이 다 해결 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법률과 조례와 규칙, 이런 규정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자원 발굴이나 서비스 연결을 못 하는 거를 민간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약간 조정자 역할, 중개 역할을 할 만한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도로(생겼어요)<복지협력과 최명희 팀장>

민선 5기, 2010년엔 사례관리라는 용어와 개념은 매우 생소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사례관리, 앞서 나가는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사례관리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2011년도에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11월에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가 개소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사례관리

사례관리란 소득, 재산 등의 분류를 하지 않고, 사람이 특정 위기상황에서 자활하려 할 때, 성장을 돕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위기상황이 두 개 이상 해당되거나 해결 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고난도 사례에서는 사례관리가 길게, 그렇지 않은 저난도 사례에는 사례관리가 짧게, 서비스 연결 정도로 간단하게 끝나기도 한다.

사례관리는 사람에게 닥치는 위기상황의 복합적 특성 때문에 한 사람만이 맡아서 해결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사례관리의 통상적인 과정은 주 사례관리자가 지정되고 개괄적인 통합 플랜을 마련하며 시작된다. 이후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검토한 뒤 본격적인 사례관리가 시작된다. 사례관리 케이스마다 사람들의 욕구,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다른데, 이러한 사항들을 휴먼서비스센터가 기획, 조정, 충고를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관리 대상자가 많거나, 노령 인구가 많은 동은 타 동에 비해 담당 직원의 인원이 더 많이 배치된다. 또한 사례관리 대상자와 노령 인구가 많은 동에는 복

지관 등 관련 지원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복지관 등 관련시설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수원시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사례관리사의 인원도 많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한다.

\_\_\_\_\_수원시는 인프라가 좀 잘 돼 있어요. 장단점은 있겠지만 의료나 정신 쪽으로도 대학병원 이상 큰 병원들이 많고, 꼭 수원이 아니더라도 안양이나 화성이나 용인에 병원들이 많고, (...)네 개 구 보건소가 주 타겟으로 해서, 팔달구 보건소는 성인, 장안구 보건소는 노인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소의 정신보건 사업이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정신보건 관련한 인프라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행복센터라는 데서 주 거점이 돼서 센터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장안구 보건소가 아마 메인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 쪽은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 시설이나 이런 복지관도 저희가 이제 요양원도 많지만 양로원도 많고,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 <복지협력과 최명희 팀장>



버드내 노인복지관(2018.8.21. 수원시 포토뱅크)

이렇듯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노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개수가 많은 편이고, 보건소의 경우 각 구별로 연령대를 구별해 정신보건 사업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 하나의 사례, 하나의 사람

사례관리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우 지침과 매뉴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_\_\_\_\_그러니까 사례관리사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거나, 들어다보는 게 애한테는 큰 도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그냥 이렇게, 지침과 매뉴얼로 하기엔 좀 어려운?(복지협력과 최명희 팀장)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고난도 사례 해당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울, 정신적 장애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례들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난도 사례가 증가하면 한 사례관리사가 맡을 수 있는 사례의 수도 줄어들고, 사례관리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사례관리사 역시 담당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피로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휴먼서비스센터 담당자는 내부 교육과 동료 코칭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_\_\_\_\_교육을 좀 많이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교육도, 줌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마침 단계가 완화됐을 때, 공개솔루션을 했는데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막 서서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힘든 걸 공유하고, 내 얘기를 들어 줄 다른 동료 코칭들이 필요했던 거죠. (...)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너도 힘들구나.’ 이렇게 서로 하니가 좋더라구요.<복지협력과 최명희 팀장>

이렇듯 휴먼서비스센터는 사례관리 대상자뿐만 아니라 통합사례관리사들도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들을 준비하고 있다. 휴먼서비스센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휴먼서비스센터 공개사례회의 (2013.12.13. 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015.9.9. 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문제 지적’이라는 개선 없는 고질적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 컨설팅’을 통한 어린이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무턱대고 최고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보다 ‘더 나은’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꾸준한 성장을 갈구하며 수원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 성장형 지원센터의 시작

‘더 나은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4가지 키워드를 토대로 운영하는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2015년 7월에 개소해 2022년 현재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표 센터가 됐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성장단계에 맞게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고 식자재의 위생 관리를 통해 양질의 급식 문화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급식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어린이 건강증진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sup>1)</sup> 수원시는 영양사 고용의 무가 없는 100인 이하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어린이 급식의 위생과 안전, 그리고 영양을 위해 운영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인구수에 비례하는 규모를 가지게 되는데 수원시 센터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해야 할 어린이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수원이 낳은 급식 우량아

1) 양일선 외 11인, 20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4쪽.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목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부 자료)

수원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들 중 센터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곳은 2020년 기준 946곳이고 수혜 어린이 수는 3만 3,771명에 달한다. 많은 수의 어린이들 및 관계하는 사람들까지의 교육과 관리를 맡는 센터 직원은 그 자격기준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행정팀원을 제외한 모든 근무자들은 영양사 면허증, 위생사 면허증,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직급이 높아질수록 석사, 박사학위와 일정 기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 요구된다.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현황(2020년 기준)

| 구분     | 등록 급식소 수(개소) | 수혜 어린이 수(명) |
|--------|--------------|-------------|
| 어린이집   | 900          | 28,117      |
| 유치원    | 44           | 5,577       |
| 복지시설   | 1            | 58          |
| 지역아동센터 | 1            | 19          |
| 총계     | 946          | 33,771      |

자료 :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2020, 『소식지』

꼼꼼한 절차 아래 전문인력 선발을 통한 센터 역량 강화와 수원시의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규모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양과 질 모든 측면을 잡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식재료의 근본을 찾아가는 원예체험을 제공하고 실무 조리원들에게는 유통기한 관리 및 정리법을 교육한다. 힐링쿡 아카데미에서는 원장과 학부모 집합교육을 실시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생과 음식관리의 중요성을 알린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작은 곳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서 영양과 건강, 위생의 토대를 단단하게 닦고자 하는 것이다.

###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한 아이를 키우는 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과 같이 어린이와 관계하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 영양 교육의 대상은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그리고 부모까지로, 어린이 주변의 모든 어른들을 범주에 포괄한다.

여기에서 수원시만의 특별한 점은 급식소 활동에 부모를 포함시킴으로써 학부모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관계자들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모는 교육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필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필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당연스럽게 교육 횟수를 지킬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SOS 안심급식’이라는 특화사업 등에 부모를 포함시켰다. 교육시설은 보다 꼼꼼하게 급식을 관리하게 하고 이를 지켜보는 부모는 교육시설에 믿음을 보내게 되는 선순환의 관계를 만들었다.

어린이 급식소 대상별 필수 교육 방법 및 주기

| 등급 | 대상별 필수 교육 횟수 |             |             |                  |                  |
|----|--------------|-------------|-------------|------------------|------------------|
|    | 소계           | 조리원<br>(방문) | 어린이<br>(방문) | 원장<br>(방문 또는 집합) | 교사<br>(방문 또는 집합) |
| 열매 | 8            | 4           | 2           | 1                | 1                |
| 새싹 | 10           | 6           | 2           | 1                | 1                |

자료 :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2020, 『소식지』

\_\_\_\_\_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저희가 센터에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믿고 보내셔도 된다는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한테 좀 안심시켜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센터, 저희 등록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부모님한테 보여 드리면 자기네들의 신뢰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황명옥 부센터장)

### 수원형 급식관리지원센터 만들기

가이드라인에 따른 필수사업들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나, 그 이외 특화사업의 자율도가 높은 것은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또 다른 특징이다. 대표적인 특화사업으로는 앞서 설명한 SOS안심급식이나 쓸로우 건강놀이터<sup>2)</sup>, 조리사직무교육, 안심급식조리사인증제 등이 있다. 정조와 수원화성 그리고 수원 역사를 체험관에 접목시켜 특색 있는 체험관을 기획 운영하는 점은 타 지자체 체험관과 구별된다.

2) SSlow(slow, salt, sugar, low)의 약자로, 천천히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자는 의미 아래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 운영한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도와주는 '슬로우 건강 놀이터'(2019.9.24. 수원시청 보도자료)

관계자들은 수원시 위생정책과의 좋은 합이 특화사업에서 큰 시너지를 발휘한다고 말한다. 수원시 위생정책과의 관계는 갑작스러운 상황 대처에 빛을 보기도 했다. 2020년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타격을 입었지만 발 빠른 대처로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문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기자, 프로그램 키트를 제작해 교육시설에 배달해 방문하지 않고도 편하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썼다.

\_\_\_\_\_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중도가 좀 떨어지니까, 저희가 영화관 키트를 제공해서 그 시설을 영화관처럼 꾸밀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뭐 매표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영화관에 가는 것처럼 느껴서 좀 그 교육을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벤트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끊임없이 계속. 연 계획은 연초에 하지만, 이런 특이사항이 발생을 하면 이걸 유동성 있게 계획을 수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황명옥 부센터장>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기세가 보이지 않자, 2020년부터는 프로그램들을 대면사업과 비대면 사업으로 나누어 최소한의 접촉에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의 과감한 연간 계획 수정과 즉각적인 대응은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수원시청의 오랜 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편으로는 센터와 시청의 지향점이 같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중앙기관에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_\_\_\_\_ 센터가 이렇게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을 때 평가 때문에 어린이집을 무리하게 등록시켜야 되는 상황이 평가가 달려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푸시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긴 하셨지만 그래도 그때 담당 팀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아무래도 센터를 만든 목적이 실제 어린이집의 질적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래 취지를 그렇게 훼손하지 말고 센터 페이스대로 잘 관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또 중앙부처나 이런데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해주셨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모는 크고 예산은 적는데 이게 무조건 많이 등록한다고 무슨 문제가 잘 해결되겠냐. 이런 평가 지표부터 개선이 되어야 한다. 많이 푸시를 해 주셔서 지금은 그런 게 완화될 수 있게끔 지표도 바꾸고.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황명옥 부센터장>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비대면으로 진행된 ‘플로우 건강 놀이터’(2020.12.4. 수원시청 보도자료)

시청의 든든한 지원은 센터로 하여금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향을 그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시작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독심 있게 정도를 밀고 나간 덕에 현재 많은 지자체들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지로 찾는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될 수 있었다.

##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_\_\_\_\_ 저희 등록시설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 다른 데는 지도점검 오면 “이거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하고 그냥 가는 게 끝이지만 저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컨설팅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힘드시면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시면 더 좋습니다. 말 그대로 잘못된 점이나 문제가 있는 곳에 솔루션을 주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황명옥 부센터장>

일방적인 급식지도는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향점이 아니다. 문제점을 알아내는 것은 그저 전 단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점이다. 문제를 파악한 이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개선한 내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이 센터가 지원하는 방향이다. 때문에 센터는 교육기관의 급식소와 눈을 마주하고 정말로 더 나아질 미래에 대해 고민한다.

\_\_\_\_\_ 각 구의 보육아동과는 조그만 가정 어린이집들도 다 지도점검을 나가셨을 때 저희 센터에 등록 돼서 관리받은 시설들이랑 아닌 시설들의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원장님들도 “단순히 지도점검하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센터다.”라고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음.<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황명옥 부센터장>

그리고 진심을 담은 7년 동안의 고민과 활동은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알아주는 시설들이 많이 늘어났고 센터에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2015년 공개입찰을 통해 수원시와 함께하게 된 동남대학교의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1년 수원시에 세 번째 재위탁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집을 짓고 널리 홍보했다면 다음의 목표는 넓어진 집에 튼튼하고 개성 있는 가구를 들이는 것이다. 재위탁을 통해 2025년까지 수원시 어린이들의 위생과 건강을 책임지게 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담당자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비대면 위생·영양교육(2020.5.12. 수원시청 보도자료)



\_\_\_\_\_ 앞으로는 가야할 길이 멀죠. 이제 진짜 기초를 다졌다고 하면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중 그룹이었으면 중그룹은 상그룹이 되실 수 있게, 그리고 좀 못하시는 하그룹이면 중그룹이 되실 수 있게끔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할 것 같고요.<수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황명옥 부센터장>

앞으로의 계획은 잘 닦아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내실화를 하는 것이다. 수원 관 내 100인 이하 어린이 급식소 전체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수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는 확신 아래 담당자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팔달구센터 원예치료 프로그램(2019.6.26. 수원시 포토뱅크)

### 참고문헌

- 양일선 외 11인, 20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4쪽.
- 이승용, 2020,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56쪽.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 노령인구 10명 중 1명이 가지고 있는 치매에 대한 선도적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원시는 2016년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다. 2018년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전부터 꾸준한 관심으로 수원시의 약자들을 돌봐온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적 관심의 확대에 따라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많은 가족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있다.

### 우리가 모르는 우리 삶 속 치매

현대 의학의 놀라운 발전과 함께 인류의 기대수명이 연장되며 더 많은 노인들이 더 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과거 왕조 시대에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으나, 국민국가의 성장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에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통치수단이 활용됐다. 대표적인 인지장애, ‘치매’ 또한 국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의 대상이 됐다.

치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많은 치매환자들이 취약한 노인 인구에 분포되어 있고 그동안 이들이 소수자로 방치되고 무시되는 경향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상병자의 비율은 11.2%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sup>3)</sup> 이들을 음지에서 꺼내 국가가 정책적으로 돌봄하기 시작한 것은 20년도 되지 않았다.

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이 공식화됐고 이에 따라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

3)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전국치매상병자수 현황 2010-2019』.

하게 됐다. 전국 각지에 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했고 2019년 기준 치매상병자수 대비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54.5%로 과반을 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sup>4)</sup> 치매안심센터의 설치로 애매한 등급 때문에 가정 내 보살핌을 받던 인지지원등급부터 경증치매의 사람들이 주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을 위한 치매환자쉼터에서는 운동, 음악, 도예, 원예, 공예, 미술, 인지훈련치료, 인지작업치료, 회상치료, 현실인식훈련 등 효과가 검증된 비약물치료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전문인력 배치 하에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질병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수원시는 2016년 5월 영통구에 수원시치매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17년에는 2만 6,406건의 치매상담과 등록을 완료 했을 정도로 치매와 관련해 선도적인 관리를 진행했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발표로 2018년 1월 1일 영통 센터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고 ‘치매안심 선도도시 조성’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내세웠다. 이후 2018년 10월에는 장안구에, 2019년 6월과 7월에는 각각 팔달구와 권선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치매환자가 ‘나’로 살아가는 방법

치매환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사회 구성에서 점점 밖으로 밀려나는 노령인구에게 치매는 더욱 무서운 질병이다. 진단 이후 가족과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치매환자

4) 이지수 외 7인, 2021,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 중앙치매센터.



장안구치매안심센터  
개소식  
(2018.10.12.  
수원시 포토뱅크)



팔달구치매안심센터  
개소식  
(2019.6.26.  
수원시 포토뱅크)



권선구치매안심센터  
개소식  
(2019.7.16.  
수원시 포토뱅크)

들이 사실 그 이후에도 본인의 삶을 지속하고 있음은 쉽게 간과된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인간중심 케어 모델(Person-ventered care model)이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치매’라는 질병이 한 개인이 인생에서 마주하게 된 사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인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엄성과 개인의 서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매환자들이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을 사는 본인과 가족, 관계된 이웃, 그리고 사회까지 총체적인 배경과 서사가 중요하다. 수원시는 진단부터 질병 판정 이후 개인과 그 주변의 인간관계, 사회의 영역까지 손길을 확장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

치매는 조기검진을 통해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전체 상병자의 95.54%가 60대 이상의 인구에서 발병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치매는 노인성 질환에 가깝다.<sup>5)</sup> 이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보다 나은 수원시 노인 인구의 미래 보장을 위해 만 60세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1단계 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고 2단계와 3단계 검사는 일부의 비용을 지원받았다.

치매환자들은 자신의 인지 저하를 실감하면서 심한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지곤 한다. 특히 이러한 증상은 인지저하단계와 경증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수원시에서는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개선과 증상 지원을 실감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5) 이지수 외 7인, 2021,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 중앙치매센터.

치매환자지원사업 추진현황 (2022년 1월 21일 기준)

| 구분       | 1단계(선별검사)                      | 2단계(진단검사)                   | 3단계(감별검사)                                     |
|----------|--------------------------------|-----------------------------|---|
| 대상       | 만 60세 이상의 수원시민<br>(주민등록기준 관할구) | 1단계 선별검사에서<br>'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 2단계 진단검사 결과<br>'치매' 진단받은 자                    |
| 소득<br>기준 | 없음                             | 기준 중위소득<br>120% 이하          | 기준 중위소득<br>120% 이하                            |
| 비용       | 무료                             | 상한 15만 원                    | 의원·병원·종합백원급<br>상한 8만 원/<br>상급종합병원<br>상한 11만 원 |
| 장소       | 치매안심센터(보건소)                    | 의원·병원·종합백원급,<br>상급종합병원      | 의원·병원·종합백원급,<br>상급종합병원                        |

자료 : 수원시 사전정보공표 자료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기준

- 독거 치매환자
- 부부 치매환자
- 만 75세 이상 노부부(둘 중 한 명 이상이 치매환자인 경우)
- 치매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된 자
-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
- 기초생활 수급자
- 그 외 치매사례관리 위원회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자료 : 수원시 영통구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https://yeongtong.nid.or.kr/introduce/case\\_manage.aspx](https://yeongtong.nid.or.kr/introduce/case_manage.aspx))

수원시 내 치매환자쉼터에서는 주간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도단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증상 악화 방지를 비롯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 것이다. 공예,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체험을 기반으로 한 치료를 비롯한 인지훈련치료와 현실인식훈련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가가 지도하며 운영했다.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는 점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다. 환자를 돌봄하고 있는 가족들이 낮 시간에 개인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다.

독거가구나 노부부가구 등 취약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제공한다. 사례 접수 이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서비스를 해당 집단이나 개인에게 제공하고 사후 관리 프로그램까지 꼼꼼하게 운영하고 있다.

필달구센터 치매프로그램(2019.6.26. 수원시 포도뱅크)



이 외에도 수원시에서는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인식표를 무료로 보급해 가정 복귀를 돕는 서비스나 위생소모품 제공 및 조호기구 대여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일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약달력이나 약보관함, 인지재활을 돕기 위한 용품, 미끄럼방지패드나 양말 등의 배려와 함께 치매환자의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치매환자지원사업 추진 현황 (2022년 1월 21일 기준)

| 치매환자 지원사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신규 진단자 및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 대상 치매쉼터 운영</li> <li>-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맞춤형 1:1 사례관리</li> <li>-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li> <li>- 배회가능어르신 치매인식표, 지문등록 및 배회감지기 제공 연계</li> </ul> |

자료 : 수원시 사전정보공표 자료

### 가족의 고통을 보듬다

전적으로 가족의 소관에 놓여 있던 치매가 사회의 돌봄에 편입됐지만, 아직까지 많은 치매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인지기능저하, 경증치매, 중증치매 등 일정 단계로 치매의 등급을 나눌 수 있지만, 사실 치매를 가진 사람은 배경변수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제 행동을 나타내게 되므로 개인별 상이한 과정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더욱이 치매는 길게는 10년까지 이어지며 환자의 인지를 지속적으로 저하시키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헤어림 가족교실’은 수원시치매지원센터(現 영통구치매안심센터)에서부터 출

발한 오랜 사업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가 무엇인지, 치매환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함께 소통해 나가야 하는지를 8회에 걸쳐 교육했다. 센터 개소수가 늘어남에 따라 권선구 등에서도 헤어림 가족교실을 진행했다. 가족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동반 치매환자를 센터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마음을 놓고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었다. 100명의 가족이 100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점에 주목해 1:1 개별상담도 진행했다. 전문가들과의 상담뿐만 아니라 같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들과 자조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하기도 했다. 심리적·사회적 부담과 고통을 경험하는 가족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용한 정보를 나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가족카페에서는 삶의 스트레스를 휴식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교류의 장소를 제공했다.

팔달구에서는 2019년 이래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치매노인을 간병하는 만 65세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분화한 새로운 ‘헤어림’을 운영하고 있다. 급격한 핵가족화로 인한 대가족 해체로 부부가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팔달노인복지관에서는 이 점에 주목해 치매를 가진 배우자 돌봄에 지친 시민들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치매환자지원사업 추진 현황 (2022년 1월 21일 기준)

| 치매가족 지원사업  | 치매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가족교실 ‘헤어림’ 운영</li> <li>- 치매가족자조모임 ‘민들레’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 예방교육 실시(1회, 8~12회)</li> <li>- 치매 파트너 모집(치매 서포터즈)</li> <li>-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li> </ul> |

자료 : 수원시 사전정보공표 자료

## 모두가 함께 살아가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그들과 함께하는 주변인들이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2019년 한 해 총 5개의 치매 안심마을을 선정했다. 4월 25일 팔달구 지동을 시작으로 6월 20일에 권선구 평동, 같은 달 30일에 영통1동, 7월 30일 장안구 연무동, 마지막으로 12월 28일 팔달구 행궁동이 차례로 선정됐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환자들을 사회로 불러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치매상병자와 그 가족들, 관계 기관에만 치매 인식개선 및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지역 주민까지를 대상으로 포함해 모두의 상생을 지향한다.

지역 주민과 치매 관계 기관이 치매예방·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전개해 치매환자와 그들의 가족,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첫 타자 팔달구 지동이 안심마을로 선정되면서 팔달구와 주민, 관계 기관이 협력해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했고 주민들 대상의 교육도 진행했다.

권선구 평동에서는 2019년 12월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보호쉼터’를 개소했다. 고색파출소 직원 휴게공간에 다시 꾸린 쉼터를 통해 길 잃은 치매상병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했다. 눈에 띄는 노란색 외관으로 탈바꿈한 쉼터는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인지의 저하를 지역사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치매환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또 고색1동과 고색2동 경로당을 중심으로 환자가 원하는 바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특화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 선정된 팔달구 행궁동에서는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매 예방을 주도했다. 팔달노인복지관과 팔달노인지회 등 치매에 취약한 노령 계층과 팔달구 보건소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수원시는 관내 4개 구에 최소 1개의 치매안심마을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격리되어 수원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치매상병자들이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 나와 안심할 수 있는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그려 나가고 있다.

치매환자 개인을 향하던 케어는 이들과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에 대한 케어까지로 확대됐고, 가정 내 돌봄이 당연시되던 기조는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슬로건과 함께 한 마을을 움직이게 했다. 치매를 향한 불합리한 시선의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촉구되는 가운데 수원시 관계자들은 소외된 노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2018년에는 수원서부경찰서와 ‘치매 노인 실종제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 어르신 지문 사전등록 등 실종예방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치매환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이지수 외 7인, 2021,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 중앙치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전국치매상병자수 현황 2010-2019』.



남창초교 텃밭(2015.5.13. 수원시 포토뱅크)

씨 뿌리고,  
물 주고,  
열매 기다리는 중

최근 학부모 사이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라는 문구는 부정하기 힘든 현실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평등 교육 실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안전한 생활을 독려하며 학교를 소외 없는 평등한 공간으로 꾸려 나간다.

### 초등 저학년 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생 교사제

2018년 취약한 교육환경에 놓인 초등 저학년 학생 대상의 방과 후 학습 멘토링이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교사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오랜 역사를 가진 명문의 대학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수원의 강점이자 자원을 적극 활용한 좋은 사례로 손꼽힌다. 경희대학교와 아주대학교, 경기대학교의 자원봉사단이 초등학생들과 매칭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대학생들에게는 사회 경험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

경기대학교 학생들과 매칭되는 무지개 멘토링은 기존에 8개 다문화특성화 지정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2018년 4월 공모로 선발한 대학생 멘토 50명과 초등학생 멘티 50명을 1대1로 결연하도록 했다. 거점 다문화특성학교인 지동초교, 세류초교, 남수원초교를 비롯해 일반 다문화특성학교인 매산초교, 화홍초교, 효성초교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학생 멘토들은 1주일에 한 시간 지정된 시간에 특성화학교에 방문해 멘티와 함께 체험활동, 특기적성수업을 진행한다. 1대1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학습효과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나 학업 상담까지 기대할 수 있다. 2020년에 들어서는 다문화 학교에서 더

나아가 일반학교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경희대학교와 아주대학교에서는 저소득층 학생과 매칭해 ‘희망을 키우는 영통, 무료 학습 멘토링’을 실시했다. 학습 멘토들은 무지개 멘토링과 마찬가지로 학생들과 1대1 결연을 맺어 학습지도와 진로상담을 진행했다. 영통구 학습 멘토링은 무지개 멘토링과 달리 초, 중,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했다. 두 학교에서 참여하는 만큼 무지개 멘토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

학교에 방문하는 대학생 멘토들의 역량을 위해 파견 이전에 필수적으로 사전교육이 실시됐다. 프로그램 진행에 필수적인 활동 지침 또는 멘티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들이 진행된다. 도움을 주는 관계이되, 우위에 있는 관계가 아니며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기본적

이고 필수적인 교육으로 보다 원활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다. 더욱 기대되는 것은 코로나-19의 여파에 발 빠르게 전환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교육소외를 방지했다는 점이다.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디지털 관련 정보에 취약한 소외계층 학생들의 격차를 해소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 안전 대비 초등학생 생존수영

2018년 8월 9일, 수원시청 시민참여 코너의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수원시 초등학교 3학년이면 누구나 받고 있는 생존수영수업을 수강

대학생과 함께하는 무지개 꿈의 교실 멘토링 발대식(2018.4.11. 수원시 포토뱅크)



생존수영강습(2014.11.4. 수원시 포토뱅크)



한 자녀가 휴가철 계곡물에 빠진 아이를 구조했다는 내용이었다. 허우적대는 아이의 머리를 잡고 빠져나오는 글쓴이의 자녀를 나무란 물에 빠진 학생의 학부모는 팔이나 손을 잡으면 함께 빠질 수 있어 머리카락이나 어깨를 잡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글쓴이 자녀의 대답에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했고, 이 상황을 지켜본 글쓴이는 부끄러움과 함께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수원시 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물에 빠질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한 대비 훈련을 배울 수 있고 이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다.

수원시에서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 컸다.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외부로부터의 구조 외에도 스스로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필요성

이 대두됐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발 빠르게 생존수영 관계자 특강을 시작함과 동시에 교육과정 구성 및 관련 업체와 가계약을 진행했고 2달 뒤에는 사업비 신청 및 교부를 완료해 2015년 3월 수영강습을 전면 시행했다. 수원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민·관·학에서 힘을 합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수원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지원, 홍보, 워크북 작성 등 개괄적인 아웃라인을 담당했고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예산 확보<sup>6)</sup>를 위해 애쓰는 한편 세부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수원연맹과 수영시설에서는 보조교육강사와 수영용품, 수영장, 강습 등 현장의 업무를 담당했다.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사고 대비 보험 담당과 차량 운영 요원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마지막으로 교통파트에서는 초등학교와 협의해 학교별로 차량을 배치해, 운전요원을 관리했다.

수영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초등 체육교과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 주제 통합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강습교재를 제작·배부해 관내 초등학생들이 통일되고 평등한 교육 배경 아래 현장학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적게는 1만 2,000여 명에서 많게는 1만 6,000여 명의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학습했다. 학생들은 수영강습을 통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신운동의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 수영을 통해 보다 면역력 강화와 건강한 생활을 얻을 수 있다.

6) 사업 초반에는 전 예산을 시비로 부담했으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현재는 국비와 시비가 약 50 대 50으로 지원해 운영한다.



초등학생 생존수영 설명회(2014.11.27. 수원시 포토뱅크)



남창초등학교 아토피특성화학교 오픈 기념식(2014.4.16. 수원시 포토뱅크)

### 친환경 아토피 특성화학교 운영

수원시는 환경수도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학생들의 친환경 건강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2012년 수원시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팔달구 행궁동의 남창초등학교를 아토피 특성화학교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먼저, 주변 비품들을 친환경 제품으로 마련해 아이들의 환경 관련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 교실이나 복도, 계단은 살균효과가 있는 편백나무를 재료로 교체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위해서는 텃밭과 힐링가든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남창초등학교에는 아토피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원거리 통학을 하기도 한다. 이곳은 특성화학교이기 때문에 학구가 아니라도 선택해서 입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이 아토피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 진단이 있다면 먼 거리에서도 입학이 가능하다.

아토피는 피부 발진과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염증성 농과 피를 보이기도 한다. 심한 아토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의 경우 청결하지 못하다고 여겨지거나 전염성이 있다고 오해받기 쉽다. 남창초등학교에서는 아토피 질환 관련 교육을 전교생이 동일하게 학습한다. 때문에 쉽게 차별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토피 치료 환자의 외적인 모습에 대한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환자로 하여금 계란, 우유, 밀가루 등 식재료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아토피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급식에 신경 쓰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먹기 어려운 음식의 경우 섭취를 유도하기보다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성장기에 꼭 필요한 단백질의 경우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식물성 단백질을 대체 사용했다. 친환경 식재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급식은 질과 영양 측면 모두에서 학생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



남창초 편백나무를 활용한 학교 내부(교실, 바닥)(2014.4.16. 수원시 포토뱅크)



남창초 아토피 힐링체험관  
(2015.5.13. 수원시 포토뱅크)



남창초 편백나무를 활용한 학교 내부(계단, 벽)  
(2014.4.16. 수원시 포토뱅크)



특성학교 신입생 진로 캠프 총평보고회(2018.7.10. 수원시 포토뱅크)

새 출발의 갈림길에서  
기다리는  
튼튼한 수원

## 아이디어를 현실로, 창업공간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는 2018년 10월 준비를 시작해 2019년 3월 18일 비로소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 새로운 공간에서는 산업, 학교, 공공(관)의 협업을 통한 공유경제형 공간을 운영한다. 첫해인 2019년 정기수업과 특강을 합쳐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교육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횡수 및 인원을 대폭 축소해 운영했으나,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크게 도제교육과 메이커교육으로 나뉘는 메이커스페이스의 프로그램에서 일찍이 졸업해 사회에 뛰어드는 수원 관내 6개 특성화 고등학교<sup>7)</sup> 학생에게 도제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19년 3월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과 수원시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형 도제학교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기업전문가, 지자체가 협력해 이론-실무-채용 과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고 기업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학기 중에 진행되는 정규과정에서는 3D프린터나 드론, 코딩 등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과목을 교육했다. 방학 중에는 드론 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국가자격증 특별과정을 운영했다.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의 전반적인 관리는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라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용자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고, 일반인과 학생으로 그

7) 수원시에는 매항여자정보고, 삼일공고, 수원공고,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원정보과학고, 한봉고, 수원하이텍고 총 8개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다.

룹을 묶어 각자 연령대의 관심사를 정기적으로 교육했다. 성인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원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메이커스페이스 추진 현황

(2020년 12월 31일 기준)

| 구분      |     | 2019년 | 2020년 |
|---------|-----|-------|-------|
| 메이커 교육  | 정기  | 횡수    | 4회    |
|         |     | 인원수   | 412명  |
|         | 특강  | 횡수    | 4회    |
|         |     | 인원수   | 582명  |
| 도제 교육   | 인원수 | 128명  |       |
| 합계(인원수) |     | 1122명 | 550명  |

자료 : 수원시 자체 수집 자료



수원형 도제학교 운영 모습(2019.8.20. 수원시청 보도자료)

메이커스페이스의 또 다른 특징은 공간 사용을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에게 까지 확장했다는 점이다. 소규모 스타트업, 1인 기업부터 지역의 주민들까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구체화해 실현시킬 수 있었다.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은 현실의 사정이 녹록치 못한 시민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3D프린터나 3D스캐너, 진공성형기, 레이저커팅기 등의 기구들을 소정의 재료비만으로(기계 사용비는 무료)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라는 과거의 확신은 무너지고 있다. 투잡과 쓰리잡, 본캐와 부캐와 같은 최근 한국 유행어의 시류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살려 여러 가지 방면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관심 분야 개발과 적극적 활용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더욱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 꿈꾸는 제2의 인생 서막,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수원시는 2019년 10월 23일 팔달구 우만동에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시대 중년들을 위한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관했다. 2018년 4월 2일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고 준비 끝에 2019년 10월 23일 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이 특별한 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내 일로에서 운영하면서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의 적은 규모로 시작했다. 개괄적인 주요 사업은 상담프로그램과 사회공헌활동 지원, 인생 재설계 교육 진행이었다.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개관식(2019.10.23. 수원시 포토뱅크)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내부(2021.6.3. 수원시 포토뱅크)

처음 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모작 상담을 통해 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다. 회원 가입이나 이용과 같은 간단한 궁금증 해결부터 재능기부나 봉사 등의 통합상담까지 담당한다. 이 외의 생애설계 7대영역<sup>8)</sup>에 관한 상담은 전문 상담에서 진행된다. 마음건강, 여가, 사회공헌, 일자리, 재무까지 이모작 상담보다 개인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다룬다.

교육사업에서는 인생설계, 경력개발, 취업특화, 취미여가,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분기별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로 나뉘며 짧게는 하루나 이틀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의 강의가 개설된다. 강의는 수원시 거주 신중년(만 50~64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여가부터 취업공부까지 일상생활 전 범위를 아우르는 내용을 다룬다. 2021년 한 해에만 34개의 강의를 개설했고 수강료는 무료에서 최대 4만 원까지로 책정되어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퇴진전문인력이 사회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만 5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의 미취업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연령 폭이 넓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서 사업 참여자들은 전문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이들의 활동은 비영리영역에 제공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연륜이 깃든 수준 높은 복지를 경험할 수 있다. 전문인력들은 경영 전략, IT정보화, 마케팅 등의 13개 활동분야에 걸쳐서 선정한다.

8) 일, 재무, 건강, 사회적관계, 가족, 여가, 사회공헌을 포함하는 7개 기준으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대한 삶의 가치 확립을 위한 전생애에 걸친 목표이자 실천계획이다.

신중년 인생이모작센터는 고된 과정을 겪고 있는 중년 세대에게 단순 일자리 지원 및 교육지원 이상의 힐링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기대수명과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은퇴연령, 확보하기 어려운 노후 생계 준비로 불안한 중년에게 센터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출발선이 된다. 중년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상담하고 재무나 경력 등의 미래 설계에 도움을 준다는 것까지 더한다면 신중년인생이모작센터가 수원시 중년들의 몸과 마음 모두를 케어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은 명확하다.

### 수원시 특성화고 진로 캠프, 리마인드 캠프

수원시는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특성화고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수원시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는 총 8개소로 각 학년당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2020년의 경우 3월부터 11월까지 총 4,541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진로 캠프는 신입생과 2학년 학생에게 각기 다른 명칭으로 진행됐다. 신입생은 진로 캠프에 참여하고 1년 뒤 2학년에 리마인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리마인드 캠프의 경우 하루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으나 보다 체계적인 취업교육을 위해 2일로 개편하면서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게 됐다. 신입생만 체험하는 단발적 지원보다 리마인드 캠프를 진행하면서 두 번째 캠프 완료 후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대대적인 진로 캠프 운영을 위해 수원시에서는 운영협의회 10인과 실무협의회 10인으로 구성된 고교 취업지원 협의회를 운영했다. 이 협의회에서는 고등학교 취업지원 사업을 논의하고 지원사업 유관기관별 협업방안을 논의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취업처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보다 나은 진로 캠프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하는 담당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캠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

고교 취업지원 협의회 구성

| 운영협의회(10인)     | 실무협의회(10인)       |
|----------------|------------------|
| - 일자리정책과장      | - 일자리정책과 실무담당    |
| -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 - 수원상공회의소 실무담당   |
| - 직업계 8개 고교 교장 | - 직업계 8개 고교 취업담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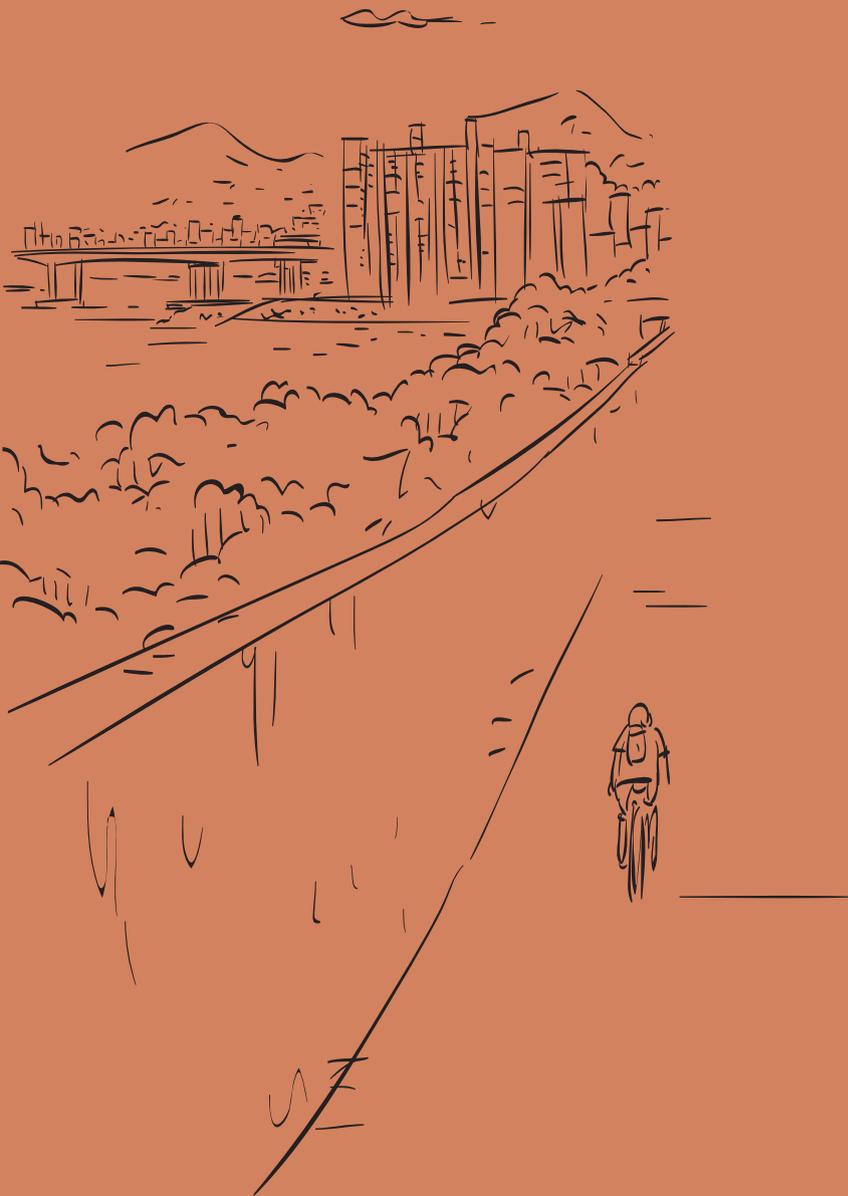
특히 고교 선배의 특강은 실제 사회에 뛰어들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해결방법 등을 공유하면서 학생들은 보다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현직 노무사의 노무 특강을 통해 취업 이후 사회 초년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알아갈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스스로의 꿈을 생각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대인관계와 협동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이 지향하는 길에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특성화고 진로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2019.3.4. 수원시청 보도자료)

“현장에서 들려 드립니다.”

# 맛있는 인문학





맛있는 인문학

# 예술의 힘, 마을을 살리다

‘행리단길’이라는 이름은 수원시 행궁동 일대를 뜻하는 말이다. 2010년대 후반부터 행궁동은 수원시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됐다. 식당, 카페, 아기자기한 소품숍, 미술관까지, 타 지역에서 행궁동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점점 많아졌고 주말이면 사람이 가득해 어디를 가든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장소가 됐다. 하지만 행궁동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낙후된 지역이었다. 낙후된 행궁동의 변화, 그 시작엔 행궁동 레지던시가 있었다. 행궁동 레지던시는 수원시의 철거 예정 건물들을 활용해 창작공간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공간이다. 입주하는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전시 및 스튜디오에 필요한 공간과 전시를 지원하고 있다.

나혜석 자화상 타일벽화 제막식  
(2011.6.17. 수원시 포토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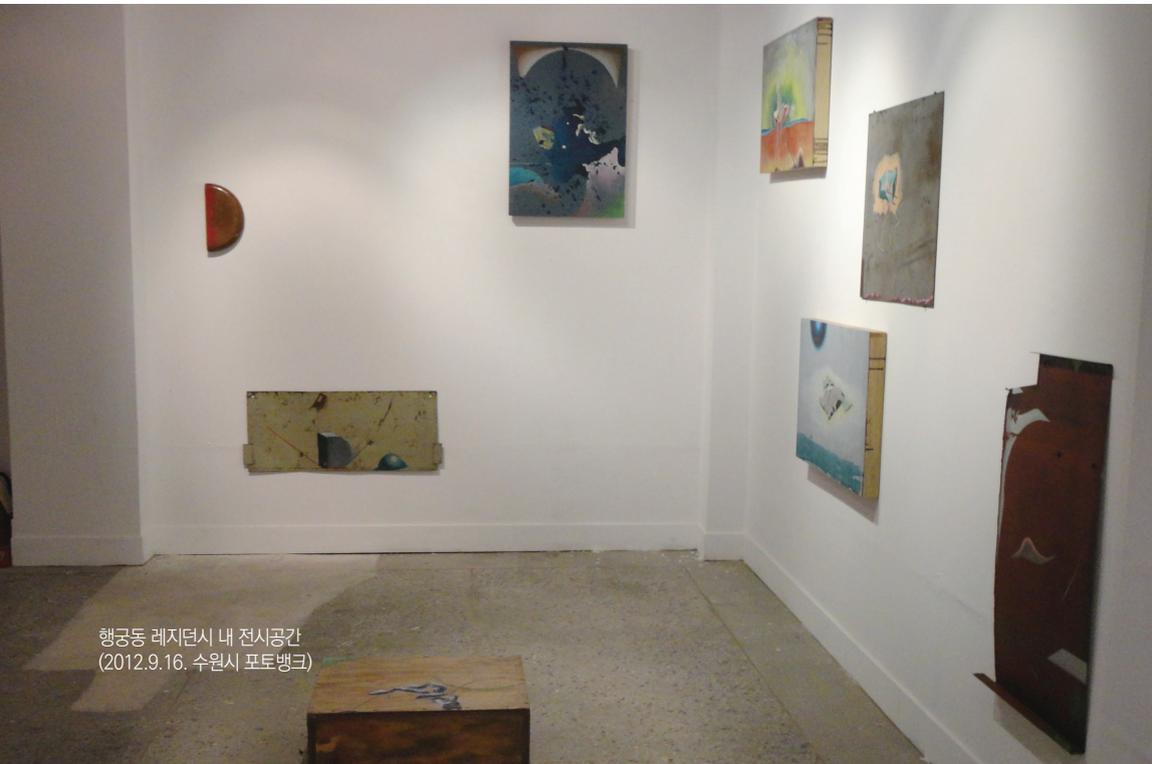
### 폐건물, 예술이 피어나다

행궁동 레지던시의 첫 시작은 200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수원의 중심지였던 행궁동은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시행된 문화재 보호정책 규제 등으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을 살리기 위해 지역예술가들과 함께 2007년 ‘행궁길발전위원회’를 결성한다. 당시 행궁동은 화성 성역화 작업으로 인해 매입된 건물들이 방치되어 흉물로 변하고 있었기에 2009년 행궁길발전위원회는 신흥지구의 철거 예정 건물들을 6개월간 사용하고 이후에 철거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아이디어를 화성사업소에 제안했다. 행궁동 레지던시의 시작이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모집된 38팀의 예술가들은 방치된 건물 내부의 쓰레기를 치우고, 각자 작업 공간을 꾸려 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개인 예술작업뿐만 아니라 마을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활동을 함께했다. 이 때문이었을까, 이들은 6개월 동안만이 아니라 최종 철거 시작 전까지 행궁동 레지던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 레지던시 건물에 나혜석 자화상 타일 벽화를 설치했고, 전시실과 지하 소극장 등 새로운 공간들을 조성했다. 2012년부터는 행궁동 레지던시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행궁마을커뮤니티아트센터’로 명칭을 바꿨다. 주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행궁동 마을만들기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변화·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진행했다. 2015년 사업 실시로 철거가 추진되자 ‘철거프로젝트: 간다!!家’을 마지막으로 6기까지의 행궁동 레지던시 활동이 마무리됐다.

7기를 시작으로 행궁동 레지던시는 남지 복원 예정 터가 있는 남창동으로 옮겨와 새 동지를 틀었다. 이곳에서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입주작가전을 진행하며 새로운 출발을 모두에게 알렸다.



행궁동 레지던시 내 전시공간  
(2012.9.16. 수원시 포토뱅크)



남창동 행궁동 레지던시  
(2016.2.17. 수원시 포토뱅크)

하지만 이곳 역시 남지 복원이 추진되며 10.5기를 마지막으로 공간이 정리됐다. 마지막으로 행궁동 레지던시가 자리 잡은 곳은 바로 경기상상캠퍼스 시민농장이었다. 서울농대 실험목장 실험축사를 리모델링해 새롭게 공간을 구성했고, 2020년 행궁동 레지던시가 아닌 ‘푸른지대창작센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민들 곁에 돌아왔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행궁동 레지던시와 마찬가지로 작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전시를 진행한다. 또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동들도 함께 진행하며 계속해서 지역친화적 수원 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 예술로 마을 만들기

행궁동 레지던시, 푸른지대창작센터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있다. 행궁동 레지던시의 입주 조건은 ‘수원화성 역사문화마을만들기’라는 목표에 따라 주민과의 소통, 마을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참여이다.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펼치며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예술가들의 입주는 빈 건물에 자리만 채운 것이 아니라 마을에 ‘예술’을 채우는 일이었다.

행궁동 레지던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빈집 미술관’ 당시, 10명의 작가들은 ‘살아나는 거리 간판에 날개를 달자.’라는 제목으로 1년간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사업에 참여했다. 행궁동 내 130여 개의 점포를 선정하 뒤, 정조 능행차 장면을 담은 반차도의 일부를 상점에 특성에 맞추어 재구성한 뒤 간판으로 제작했다. 행궁동 레지던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후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작가와 주민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도모했

다. 그뿐만 아니라 행궁동 일대에서 진행됐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나혜석생가터 문화예술제’에 참여했고, ‘2013 생태교통 수원’에는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작가들이 함께 만든 작품도 전시됐다. 이렇듯 작가들은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축제에도 참여해 행궁동 내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이에 조용하던 마을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전시회와 행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행궁동 골목골목에 많은 예술가들이 자리 잡았다. 썰렁했던 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 가게들도 하나 둘씩 문을 열었다. 행궁동 레지던시가 가져온 나비효과였다.

2019년 제11회 나혜석생가터 문화예술제(2019.4.27. 수원시 포토뱅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푸른지대창작센터도 시민공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또는 예술인 아트마켓 참가를 통해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입주조건이다. 행궁동 레지던스와 마찬가지로 예술을 매개로 하는 시민들과의 소통,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시민들과의 만남을 자주 가질 수 없었고, 작가들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로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작가들과 시민들은 예술을 통해 소통했다.

이렇듯 행궁동 레지던시는 작업실이 필요한 작가들에게는 공간을 내어 주고, 폐건물을 활용하여 수원시 예술 활동을 활성화시켰으며, 쇠퇴한 마을을 일으킬 공동체를 구축했다. 낙후된 마을에서 가보고 싶은 마을로의 변화, 그 중심에는 예술이 있었다. 예술은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변화를 불러왔고, 마을을 긴 잠에서 다시 깨워냈다. 행궁동 레지던시는 이제 없지만, 그 흔적은 행궁동 이곳저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마을을 움직일 것이다. 푸른지대창작센터와 행궁동, 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낼 변화를 기대해 보자.



푸른지대창작센터 내부(2020.5.2. 수원시 포토뱅크)



축만제 전경(2016.10.24. 수원시 포토뱅크)

200년 전의  
애민정신  
온새미로

수원(水原)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원에는 많은 호수와 저수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만석거와 축만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인 애민정신에서 만들어진 저수지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 만석거와 축만제, 정조대왕의 꿈

만석거와 축만제는 화성 성역이 진행되던 시기, 정조대왕에 의해 축조된 저수지이다. 성역이 한창이던 1794년,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된다. 이에 정조는 성역을 중단하고 화성을 지속해서 관리·유지할 수 있는 재원인 국영농장인 ‘대유둔’을 설치한다. 둔전의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저수지가 필요했고 그 결과로 1795년 만석거가 축조됐다. 만석거라는 명칭은 ‘만석의 쌀을 생산하라.’는 의미를 담아 지어진 이름이다. 만석거는 실제로 축조 이후 몇 차

만석거 전경(2020.10.9. 수원시 포토뱅크)



레 찾아온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을 주었고, 이는 정조가 새로운 둔전과 수리시설을 축조, 설치하는 계기가 됐다.

축만제는 1798년부터 1799년에 걸쳐 만석거보다 세 배나 크게 축조됐다. 이와 함께 그 근방에는 ‘서둔’이 설치된다. 축만제 역시 ‘천 년 만 년 만석의 생산을 축원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화성의 둔전 설치는 구휼 대책이자 화성 수성의 자원 마련 대책이었다. 둔전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수지들은 당시 매우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두 저수지는 둔전과 함께 조선시대 수원의 농업을 발전시켰고, 이는 수원이 농업 중심지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

저수지와 둔전 조성으로 농업이 발전했던 수원에는 일제의 식민농업정책을 관장하는 권업모범장이 설치됐다. 권업모범장은 농업기술의 시험, 조사 및 지도를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해방 이후엔 미군정 아래 중앙농사시험장과 농사개발원으로 운영됐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농사기술원, 한국전쟁 이후에는 농사원으로 변경됐다. 이후 이 기관은 농촌진흥청이라는 명칭 아래 1962년부터 2014년까지 수원에서 운영됐다. 이렇듯 정조가 만석거와 축만제를 축조한 이후 수원은 농업개혁의 중심지가 됐다.

### 만석거와 축만제, 세계관개시설물유산이 되다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축조된 만석거와 축만제는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원 농업의 상징적 장소였다. 그뿐만 아니라 정조시대 농경사회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어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뛰어나다. 축만제와 만석거는 이런 점들을 인정받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국제관개배수위원회가 지정하는 세계관개

시설물유산으로 등재됐다.

세계관개시설물유산은 국제관개배수위원회가 2014년에 제정한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관개시설을 보존하고 유지, 홍보할 목적에서 조직됐다. UN식량농업기구(FAO), UN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UNESCO)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사단법인 한국관개배수학회가 한국지부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은 총 7개의 관개시설물 유산을 보유하게 됐고 그 중 두 개가 만석거와 축만제이다.

세계관개시설물유산이 되려면 100년 이상 경과된 관개시설로 관개 농업 발전에 공헌하였고, 탁월한 기술로 건설됐으며, 역사적·기술적·사회적으로 가치가 커야 한다. 또, 아래와 같은 조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시설만이 세계관개시설물유산으로 등재될 있는 자격을 얻는다.

세계관개시설물유산 등재 자격

|   |  |
|---|--|
| 1 | 관개농업 발전을 이루는데 시금석이 됐거나 어떤 전기를 만들 수 있었는지, 관개농업 발전과 식량 생산에 크게 기여한 입증 자료가 있는지 |
| 2 | 관개사업의 신규추진, 설계 및 시공기술, 시설의 규모, 수혜구역 면적, 취수량 등에서 동시대를 선도하는지                 |
| 3 | 식량생산, 생계보전 기회제공, 농촌번영, 빈곤해소 등에 뛰어난 기여를 하였는지                                |
| 4 | 시설물의 시공 시점에서 볼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는지  |
| 5 | 효율적이고 새로운 이론과 적용에 있어 발전적으로 기여했는지   |
| 6 | 설계와 시공에서 환경 친화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
| 7 | 시공 기법에 있어서 그 당시로 획기적인 방식이 도입됐는지  |
| 8 |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지   |
| 9 | 전통문화 또는 과거 문명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지  |



농촌진흥청 시험답과 축만제(2020.10.10. 수원시 포토뱅크)

한국관개배수학회는 2016년 5월부터 축만제를 세계관개시설물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우선 축만제의 가치를 발굴, 정리하기 위해 힘썼다. 『화성성역의궤』 등 고서 기록과 일제강점기, 한국 근현대 자료까지 조사·확보했다. 7월, ICID에 축만제의 세계관개시설물유산 등재를 정식으로 상정했다.

축만제는 정조시대 가뭄에 대비한 구호 대책과 수원화성을 지키는 군사들의 식량과 재원을 제공하는 등 식량 생산과 생계에 일조했다는 점, 수원화성이라는 신도시를 건설하며 함께 조성한 아이디어가 혁신적이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고, 농업용 저수시설이라는 주 목적 외에도 1831년 향미정 건립으로 조선 후기 선비들이 풍류와 전통을 즐기는 장소였다는 역사문화적 특징도 높게 평가됐다. 축만제는 9개 등재 기준 중 3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6년 11월 국제관개배수위원회 세계관개시설물유산으로 등재됐다. 축만제는 그렇게 국내 최초의 세계관개시설물유산이 됐다.

만석거는 2017년 10월, 국제관개배수위원회 세계관개시설물유산으로 등재됐다. 만석거는 9개 등재 기준 중 4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갑이라는 조선시대 최고의 수리기술이 반영된 당대 선도적 구조물이며, 백성들의 식량 생산과 농촌 번영에 일조했으며, 건설 당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가을 풍경이 수원 추팔경의 하나로 불릴 정도로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2020년 만석거와 축만제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다. 1961년 국무원 고시 제16호에 의해 만석거, 축만제의 명칭이 ‘일왕저수지’와 ‘서호’로 제정되며 공식적인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며 본래의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되찾자는 취지로 정식명칭 정정을 추진했고, 2020년에야 만석거와 축만제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이처럼 만석거와 축만제는 200년 전부터 백성들의 일터이자 식량창고가 되어 주었고, 그 정신은 계속 이어져 수원 농업기술의 발달과 부흥을 이끌었다. 지금도 만석거와 축만제는 수원시민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조의 애민정신 역시 계속해서 수원에 남아 있을 것이다.



수원아이파크미술관 전경(2015.10.5. 수원시 포토뱅크)

역사의 도시에  
예술로  
문화를 채우다

인문도시 수원. 수원의 시립미술관은 조금 특별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 바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그리고 화성행궁의 옆인 행궁광장에 위치해 있다. 문화유산 옆에 들어온 현대의 건축물, 문화유산과는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질적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화성행궁과 함께 하나의 랜드마크로 통한다. 수원시립미술관은 생긴 지 올해로 7년이 됐다. 이 미술관이 수원에 인문을 어떻게 채워 나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 화성 옆, 첫 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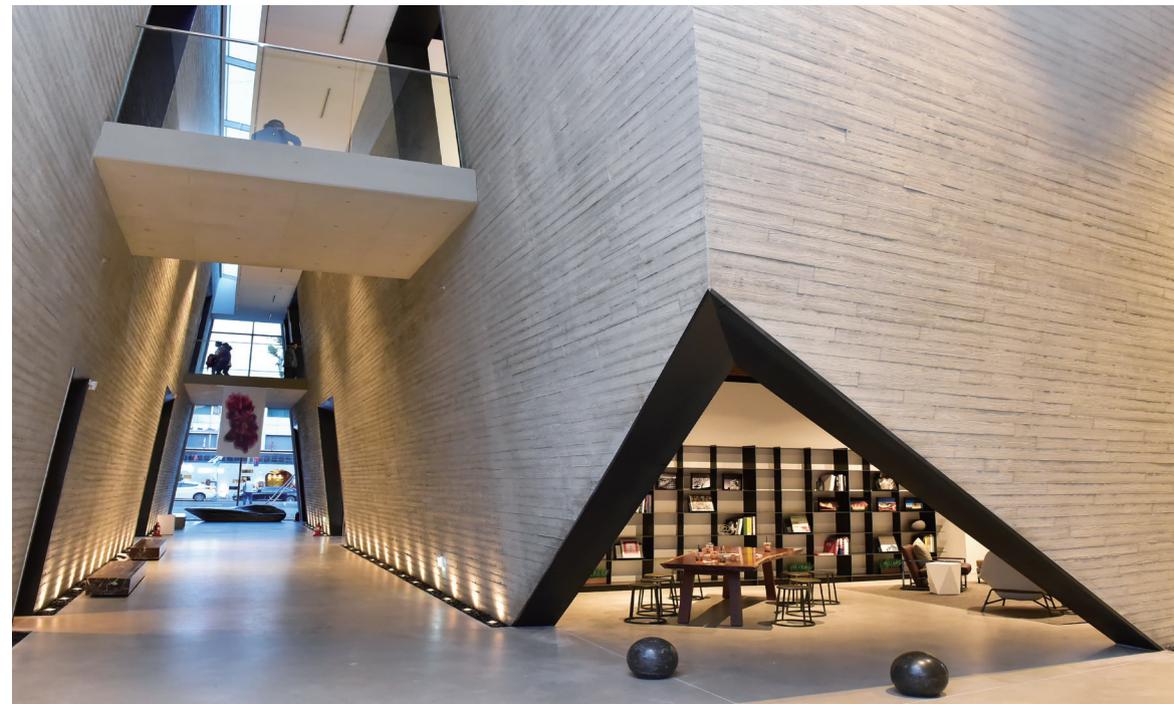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하 수원시립미술관)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이파크 시티 수익금을 시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건립된 미술관이다. 약 300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6,400㎡,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9,652㎡ 규모로 2015년 10월 8일 개관했다. 수원에 이미 몇몇 미술관이 있었지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수원의 첫 시립미술관이다.

수원시립미술관은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인 화성행궁 바로 옆, 행궁광장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미술관이 조성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바로 ‘조화’이다. 새롭게 올라가는 건물이 자칫하면 문화재 주변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전통과 현재가 소통하는 곳’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화성의 입지와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미술관이 주변경관과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화를 이루지만 너무 획일적이지 않게, 미술관으로서의 차별성도 분명히 가질 수 있게끔 설계했다. 따라서 수원시립미술관의 외관을 보면, 회색빛의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를 적용하고, 상층부는 한옥의 처마처럼 비스듬한 곡면의 스카이라

인을 통해 행궁과 조화를 이루게 했다. 결과적으로 화성, 그리고 화성행궁과 조화를 이루지만 미술관으로써의 정체성도 드러낼 수 있는 건물이 완성됐다.

미술관 외벽과 내부 길 역시 행궁광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설계됐다. 행궁광장과 맞닿은 미술관 벽의 경우, 미술관에 벽을 두지 않고 바깥과 연결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유리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밖에서 미술관 내부를 볼 수 있고, 부담 없이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다. 또, 내부의 관람객들 역시 전시를 관람하며 동시에 화성행궁과 광장을 볼 수 있다.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화성, 화성행궁과의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또한 미술관 내부에 나 있는 길은 화성행궁 광장으로 이어지는 옛 길을 그대로 살려 설계한 것으로, 시민들이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화성행궁 광장 쪽으로 향할 수 있게 했다. 이렇듯 조화와 특색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설계에 녹아들어, 수원시립미술관은 ‘2015 아주경제 건설대상’에서 지역상생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다.

아이파크미술관 내부(2015.10.8. 수원시 포토뱅크)



## 보다 더 다양하게 문화를 즐기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서는 매년 다양한 기획 전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화된 분야는 바로 수원 지역 작가들과 나혜석이다. 수원에는 유명한 작가도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도 많아 작가 발굴과 함께 관련 활동 아카이브 등 전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 열렸던 ‘그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있었던 수원의 실험 미술 사조에 대한 연구 과정을 풀어 낸 전시였다.

수원 태생 작가 나혜석 역시 수원시립미술관에서 꾸준히 전시와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나혜석의 미술 작품은 국내에 남아 있는 수가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 절반 정도를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고, 이를 가지고 나혜석 관련 연구와 전시를 특화한 미술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나혜석 상설 홀도 운영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 미술 분야도 함께 특화하기 위해 나혜석을 필두로 여성 미술가들에 대한 연구와 작품 수집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전시 ‘금하는 것을 금하라’가 바로 여성 미술에 대한 전시로, 주기적으로 특화 분야에 대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도 함께 진행해 오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재즈 공연을 열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 가족 대상 음악 공연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운영 측 추산 2천 명 정도가 참석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공연 개최 수는 현저히 줄었지만, 2021 한국-네덜란드 수교 60주년 기념전 ‘어윈 올라프: 완전한 순간-불완전한 세계’ 전시 연계 문화행사의 경우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진행해 관람객들이 여러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대의 선각자, 나혜석을 만나다’ 전시 포스터 (2016.4.22. 수원시청 보도자료)

어윈 올라프: 완전한 순간 — 불완전한 세계  
Erwin Olaf: Perfect Moment—Incomplete World  
2021.12.14...2022.3.20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Suwon Ipark Museum of Art



‘어윈 올라프: 완전한 순간- 불완전한 세계’ 전시 포스터 (2021.12.14. 수원시 행사축제포털 홈페이지)

수원시립미술관은 기업체들과도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과 함께 호텔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작해 숙박 고객들에게 미술관 초대권과 같이 기념품을 증정해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는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점 식사 이용권을 제공하기도 했다. 문구 기업인 스테들러 코리아, 화홍병원과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스테들러 코리아에서 색연필, 트레이 세트를 협찬 받아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소에 배치하고, 소외 계층 대상의 이벤트 교육 프로그램에서 색연필 세트를 함께 제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시립미술관 소장품으로 만든 컬러링북과 협찬받은 색연필을 화홍병원에 치매환자와 소아 환자의 정서 안정을 위해 제공했다.

### 그림에도 문화예술은 계속되어야 한다

수원시립미술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관람이 어려워진 시점부터 비대면으로 미술관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 먼저, 큐레이터가 직접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작품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전시 소개 영상을 제작했다. 2020년, 문태국 첼리스트와 함께 제작한 비대면 프로그램 ‘첼리스트 문태국이 만난 백영수’는 문태국 첼리스트가 비대면 관람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전시 관람, 첼로 공연을 하는 형식으로 기획됐다. 이 기획전은 네이버 TV와 함께 생중계를 진행했는데, 당시 약 4,500명의 실시간 관람객이 시청했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들(2016.1.16. 수원시 포토뱅크)

\_\_\_\_\_ 문태국 첼리스트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전시 관람하는 것도 같이 보여주는 영상에 공연까지 해서 네이버 tv랑 같이 생중계를 진행을 했었는데, (...) 기획도 잘 됐고 홍보도 잘 됐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그런 걸 진행한 데가 없어서, 다른 데는 이제 미술관에서 공연을 하면은 정말 로비에서 공연하는 것만 보여 줬었는데, 연주자가 직접 현장에서 함께 이제 전시를 관람하는 장면부터 이제 q&a도 하고 공연도 전시장 내에서 진행하고 이랬어서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수원시립미술관 박현주 주무관)

이렇듯 수원시립미술관은 전시, 공연, 협업, 비대면 프로그램 개설 등의 활동을 통해 미술관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 수원시립미술관, 인문도시의 문이 열렸다

수원시립미술관의 개관 이후, 각각 위탁 운영되던 2개의 미술관(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 수원시립만석전시관)들과 새롭게 개관한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까지 3개의 미술관 모두 수원시립미술관에서 관리 운영 중이다. 수원시립미술관 측에서는 운영 체계가 통일되자 유기적이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미술관 전시 투어 패스를 운영했던 일이다.

또, 수원시 내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행궁동, 행리단길과의 연계 방안도 고안하고 있다. 미술관 측은 행궁동 내 새로 생긴 음식점 등의 업소를 조사해 리플릿을 제작했다. 행궁동 방문객들이 미술관에 가볼지도에 나와 있는 업장을 방문한 뒤 영수증을 제시하면 미술관에 방문하면 입장료를 할인해 주고, 미술관 방문객들에겐 이후 가볼 만한 곳들을 추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에 미술관이 거의 전무하던 상황에서 종합 미술관이 생기게 된 것은 인문도시의 문이 열리게 된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수원시의 랜드마크로, 시립미술관으로, 문화공간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열심히 빛날 것이다.

아이파크미술관 공공연한 디자인 전시(2017.2.14.수원시 포토뱅크)



아이파크미술관 외부 관람객(2017.9.22. 수원시 포토뱅크)





망포글빛도서관 내부(2019.4.29. 수원시 포토뱅크)

# 삶에 인문을 채우는 지식창고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도서관을 갈 수 있는 도시. 수원시 도서관에 대한 철학이자 비전이다. 실제로 수원시에는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 많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도서관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수원시의 도서관들이 어떻게 시민의 삶 속에 인문을 채우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 수원시 곳곳에 도서관을 세우다

수원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도서관의 수가 많은 편이다. 17개의 공공도서관, 3개의 어린이도서관, 166여 개의 작은 도서관 등 많은 도서관이 수원시 이곳저곳에 자리하고 있다. 처음부터 수원시에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 2010년 8개에 불과했던 공공도서관은 민선 5~7기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11년 태장마루도서관을 시작으로 2014년에 6개의 도서관(대추골, 한림, 창룡, 버드내, 호매실, 광고홍재)이 건립됐고, 2015년 일월도서관, 2016년 화서다산도서관, 2018년 광고푸른숲도서관, 매여울도서관, 2019년 망포글빛도서관이 건립됐다.

수원시 도서관 설립

| 연도   | 개관일     | 도서관     |
|------|---------|---------|
| 2011 | 8월 25일  | 태장마루도서관 |
| 2014 | 3월 25일  | 대추골도서관  |
|      | 6월 24일  | 한림도서관   |
|      | 10월 2일  | 창룡도서관   |
|      | 11월 28일 | 버드내도서관  |
|      | 12월 16일 | 호매실도서관  |

| 연도   | 개관일     | 도서관      |
|------|---------|----------|
| 2014 | 12월 23일 | 광교홍재도서관  |
| 2015 | 6월 2일   | 일월도서관    |
| 2016 | 6월 30일  | 화서다산도서관  |
| 2018 | 4월 12일  | 광교푸른숲도서관 |
|      | 5월 11일  | 매여울도서관   |
| 2019 | 4월 29일  | 망포글빛도서관  |

이렇게 단기간에 도서관 인프라가 확충된 것은 엠태영 시장의 뜻이기도 했다. 엠태영 시장은 ‘인문도시 수원’을 만드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게 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목표 덕분에 민선 5~7기 동안 많은 도서관들이 건립됐고, 현재 수원시 도서관들의 모습이 완성됐다.

### 수원시 도서관의 특별함

앞서 말한 것처럼 수원시 도서관의 개수 역시 큰 장점이지만, 수원시 도서관에는 더 특별한 매력이다. 바로 각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이다. 17개의 공공 도서관은 각 도서관별로 특성화 주제를 가지고 있다. 도서관들은 특성화 주제의 전문자료 수집, 특화자료코너 또는 특화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각 주제에 대해 전문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 싶을 때에는 해당 주제에 맞는 도서관에 방문하면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성화 주제에 따라 운영하는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수원시 도서관 특성화 주제

| 분야 | 특성화 주제 | 도서관      |
|----|--------|----------|
| 복지 | 노인     | 중앙도서관    |
|    | 인권     | 창룡도서관    |
|    | 육아     | 호매실도서관   |
|    | 건강     | 버드내도서관   |
|    | 청소년    | 대추골도서관   |
|    | 힐링     | 광교푸른숲도서관 |
| 문화 | 여행     | 한림도서관    |
|    | 세계문화   | 영통도서관    |
| 예술 | 미술     | 북수원도서관   |
|    | 디자인    | 광교홍재도서관  |
|    | 그림책    | 매여울도서관   |
| 학문 | 수원학    | 선경도서관    |
|    | 과학     | 화서다산도서관  |
|    | 문학     | 서수원도서관   |
|    | 철학     | 태장마루도서관  |
| 사회 | 생태환경   | 일월도서관    |
|    | 경제     | 망포글빛도서관  |

수원시에서는 도서관이 아닌 장소에서도 다양한 책들을 만나볼 수 있다. 바로 ‘책나루도서관’ 덕분이다. 책나루도서관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철 역사 내에 설치된 무인도서관으로, 수원역, 수원시청역, 영통역 등 수원시내 역사들에 총 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책나루도서관에서는 수원시 20개관 도서관 도서들을 예약, 대출, 반납할 수 있고 현장에 구비되어 있는 도서를 바로 대출, 반납할 수도 있다.

책나루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은 7개의 책나루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게 해 시민들의 편리성을 증대시켰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연인원 3만 7,158명이 책나루도서관에서 도서 4만 5,767권을 대출했고, 4만 5,000명이 8만 727



경기도서관 수원학자료실(2019.2.12.수원시 포토뱅크)

권을 반납했다. 이처럼 책나루도서관은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거나 도서관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의 삶 속에 독서를 더욱 가깝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왔다.

\_\_\_\_\_ 출퇴근하면서 언제나 책을 빌려볼 수 있고, 또 예약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찾아갈 수 있고, 거기서 반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도서관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자기가 언제나 책이 필요하면 볼 수 있게 꿈.<도서관 직원>

###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인문도서관이 되기까지

수원시 도서관 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동안, 수원시 도서관의 장서 수도 함께 증가했다. 2010년 말 141만 1,392권이었던 장서는 11년 후인 2021년 12월 기준 287만 1,877권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1인당 장서 수는 2011년 0.15권에서 2021년 2.51권으로 약 17배 증가해 전국 평균 1.91권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줬다. 도서관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 수가 많아진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는 수원시민들이 수원시 도서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임은 분명하다. 2018년, 수원시의 도서관 이용자 수는 770만 명을 넘었고, 2011년과 비교해 봤을 때 271만 명이 증가한 수치였다. 이처럼 도서관의 이용률이 증가하자,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었다. 단순히 열람과 개인 공부를 하는 공간이 아닌, 하나의 문화시설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원시청역에 위치한 책나루도서관(2017.9.15.수원시 포토뱅크)



광교푸른숲도서관 내부(2018.4.12. 수원시 포토뱅크)

\_\_\_\_\_ 시민들은 집근처 찾아갈 수 있는 문화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영통 쪽에 도서관이 있어서 가는 거 하고, 선경이 바로 앞에 있어서 가는 거 하고는, 거기 한번 갈 걸 여기는 10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사적으로 화장실을 간다든가, 그럴 때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들 수 있는 게, 어찌 됐든 책뿐이 아니라 여가라든가 어떤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면이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찾아갈 수 있는 도서관, 요새 코로나 때문에 QR 코드 찍는 것 때문에 그렇지, 도서관은 이렇게 제한이 없잖아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거고<도서관 직원>

또한 수원시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도서관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지역서점과 연계한 희망도서 바로대출, 상호대차 및 통합반납, 온라인 전자잡지, 지역 도서관 통합검색, 책나루도서관 등을 통해 시민들이 도서관을 다양하게,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변모를 꾀했다. 이런 정책들을 인정받아 수원시 도서관은 도서관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18년 ‘한국도서관상’ 단체 부문 감사패를 받고, 2019년에는 선경도서관이 ‘한국도서관상’ 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21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6주년 기념 협력세미나에서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 단체로 선정돼 국립중앙도서관장 표창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광고홍재도서관과 푸른숲도서관 등 민선 5~7기에 지어진 도서관들은 개관 이후, 여러 시군에서 견학을 왔었다. 이렇듯 수원시 도서관의 인프라와 운영 방식, 인테리어 등은 다른 도서관에 모범이 되고 있을 정도로 훌륭하다.

\_\_\_\_\_ 전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견학을 왔었어요. 그만큼 많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푸른숲도서관이라고 광고호수공원 내에 있는 도서관이 개관하고 나서는, 푸른숲도서관도 견학을 많이 오고<도서관 직원>

수원시는 10여 년 동안 도서관의 수를 두 배 이상 늘렸을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과 운영방식으로 내실을 다졌다. 수원시 도서관들은 대외적으로 우수함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인문도시 수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원시 도서관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수원시민들의 삶 속에 인문을 밝힐 것이다.



광고홍재도서관 열람실(2014.12.23. 수원시 포토뱅크)



광고홍재도서관 내부(2014.12.23. 수원시 포토뱅크)



고색뉴지엄 지하전시실(2017.11.29. 수원시 포토뱅크)

새로운 문화공간  
폐(廢)를  
재(再)로

수원델타플렉스 귀퉁이에서 소리 없이 묻히던 폐수처리장은 10년 동안 유지도 폐쇄도 어려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이 황구지천을 마주한 자연의 풍광이 어우러진 이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이후 새로운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 폐수처리장은 ‘고색뉴지엄’이라는 이름으로 신진 작가들과 시민, 아이들에게 소통과 경험의 보금자리가 됐다.

### New, 새롭게 재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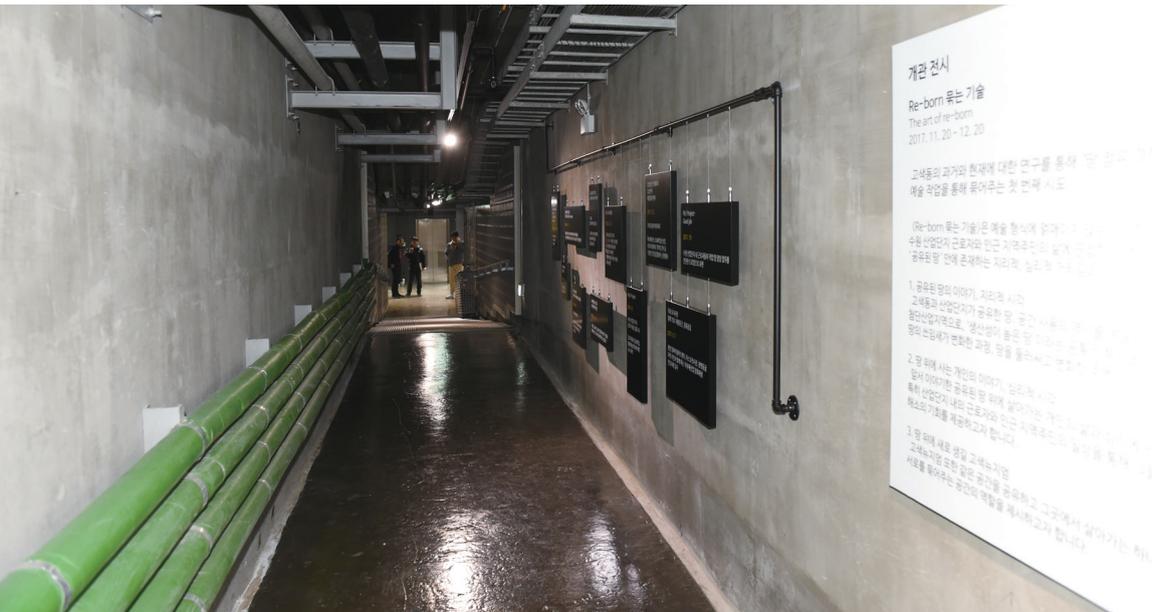
고색뉴지엄(Gosaek Newseum)은 고색동의 폐수처리장을 새롭게 가꾸어진 장소로, 전시와 교육, 아카이브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용한다는 특징을 살려 새롭게 탄생하는 뜻의 뉴(New)와 박물관을 뜻하는 뮤지엄(Museum)을 합쳐 뉴지엄(Newseum)이라는 합성어를 만들었다.

산업단지 주변에 반드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2005년 수원산업단지(現 수원델타플렉스) 폐수처리장으로 설계된

고색뉴지엄은,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원산업단지의 특징으로 인해 10여 년간 방치됐다. 결정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계기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신청의 공모 선정이었다. 시의 흥물이 되어가면서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수원시 주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층으로 건설된 내부 구성 중 가장 흥미로운 곳은 지하 1층의 전시공간이다. 지하층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건물이 폐수처리장으로 운영될 당시 사용했던 2개의 원통 약품 탱크이다. 탱크 사이의 긴 통로를 지날 때는 벽면의 배관 및 배수펌프들을 볼 수 있다. 통로 끝의 메인 전시공간은 넓게 트여 있기보다 들성들성 눈에 띄게 설치된 기둥들이 기다리고 있다. 흰 벽과 빈공간이 일반적인 다른 전시관들과 달리 고색뉴지엄은 회색 콘크리트 벽과 투박한 기둥에서 묵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어두운 공간에 환한 조명을 받는 작품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편할 것 같은 기둥들은 작품의 구획을 나누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지하 1층 공간

고색뉴지엄 지하 전시실 통로(2017.11.29. 수원시 포토뱅크)



고색뉴지엄 지하전시실(2018.9.19. 수원시 포토뱅크)



을 기획전시실과 존치시설 전시실, 그리고 복도 전시공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언뜻 비슷한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으나 긴 복도 공간이나 존치시설과 함께 전시해야한다는 특징 등 색다른 느낌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 시작과 기회의 특별한 전시공간

고색뉴지엄의 전시공간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전시공간 확보가 어려운 신진 예술인들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017년 개관 이후 2021년 말까지 150회가 넘는 전시와 공연, 행사들이 열렸다. 대중에게 작품을 소개하고자 하는 예술인의 한계가 없다는 점도 특색 있다. 19세 이상의 예술단체나 예술인이라면 학생과 장애인, 노년층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작가들을 위해서 공간과 장비는 무료로 지원된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업계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수원시 청년 예술인들과 함께 5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청년터전’ 전시회를 진행했다. 수원시 및 수원시청년지원센터와 함께 주최한 이 온라인 전시회는 1회차 ‘思索(사색) 그리고 興談(여담)’을 시작으로, 5회차 ‘진솔(眞率) 그리고 정담(情談)’까지 각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바람지대 유튜브에는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들을 의도와 기획, 의미와 감상팁을 설명하는 영상을 게재해 관람자로 하여금 보다 깊은 감상을 할 수 있게 도왔다. 전시관에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들어야 하는 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작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도슨트보다 더 구체적이고 여운 있는 관람을 가질 수 있었다.



고색뉴지엄 지하전시실(2018.9.19.수원시 포토뱅크)



고색뉴지엄 지하전시실(2017.11.29.수원시 포토뱅크)

청년터전 회차별 주제 및 일정(고색뉴지업 공식사이트)

| 회차  | 주제                                  | 날짜(영상게재일)          |
|-----|-------------------------------------|--------------------|
| 1회차 | 思索(사색) 그리고 與談(여담)                   | 2020. 6.25.~ 7.17. |
| 2회차 | 和答(화답) 그리고 和答(화답)                   | 2020. 8. 1.~ 8.14. |
| 3회차 | 動心(동심) 그리고 談話(담화)                   | 2020. 8.29.~ 9.18. |
| 4회차 | 터전 위에 런웨이:<br>출사표(出師表) 그리고 우리       | 2021. 4.28.~       |
| 5회차 | 터전, 그 무대의 뒤에서:<br>진솔(眞率) 그리고 정담(精談) | 2021. 6.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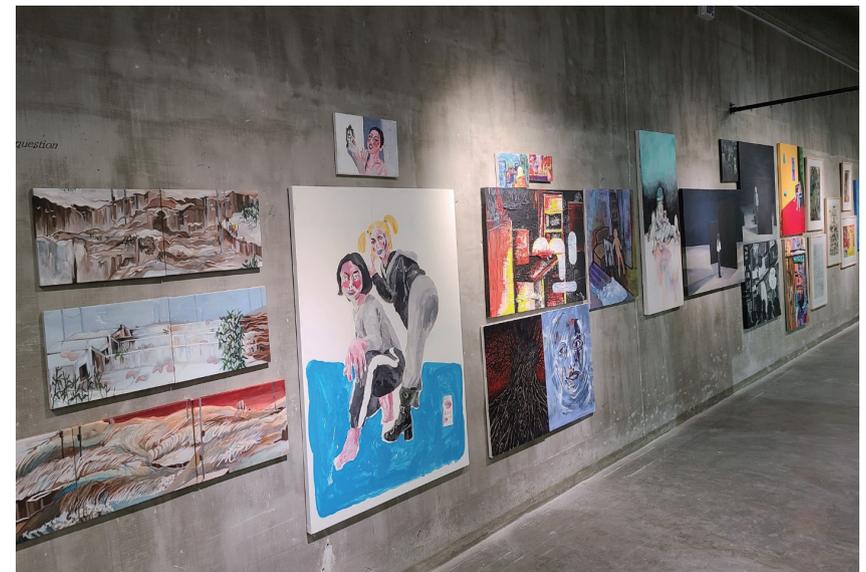
청년터전 두 번째 온라인 전시회 포스터  
(2020.8.6. 수원시청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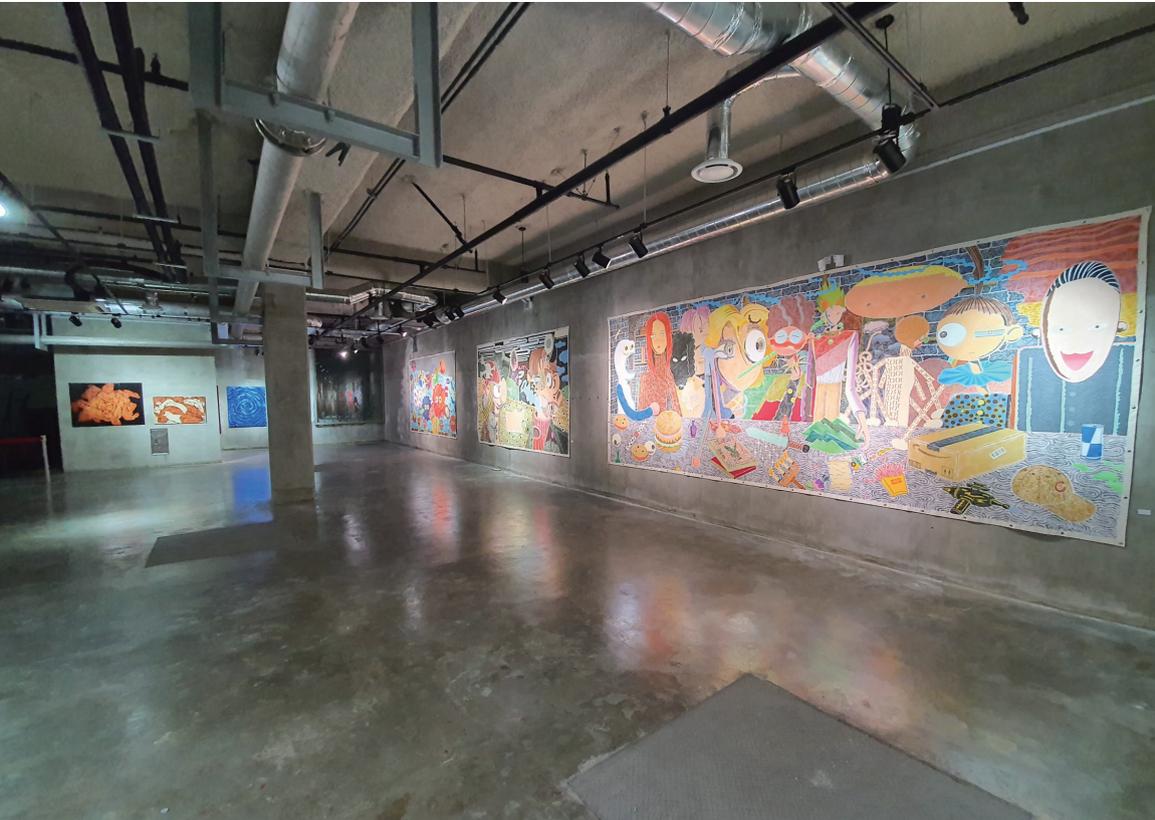
청년터전 세 번째 온라인 전시회 포스터  
(2020.9.4. 수원시청 보도자료)



두 번째 온라인 전시(2020.8.6. 수원시청 보도자료)



청년터전 첫 번째 온라인 전시(2020.7.20. 수원시청 보도자료)



청년터전 세 번째 온라인 전시(2020.9.4. 수원시청 보도자료)

### 복합문화시설로의 전진

2층의 교육실에서는 문화강좌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회의, 세미나, 교육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최대 26명까지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다. 2층의 또 다른 공간은 아카이브 공간이다. 문화와 관련된 서적들을 열람하면서 한쪽 벽면의 통창으로 내리쬐는 햇볕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다.

고색뉴지엄이 산업단지 내 유희공간인 만큼 수원시 유일의 산업단지인 텔타플렉스 노동자를 지원하는 여러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층에는 시립 고색뉴지엄 어린이집을 운영해 산업단지 직원들의 어린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2019년 4월과 9월에는 노동자들을 위해 각각 탕고공연과 클래식·아카펠라·팝 공연을 펼쳐 휴식시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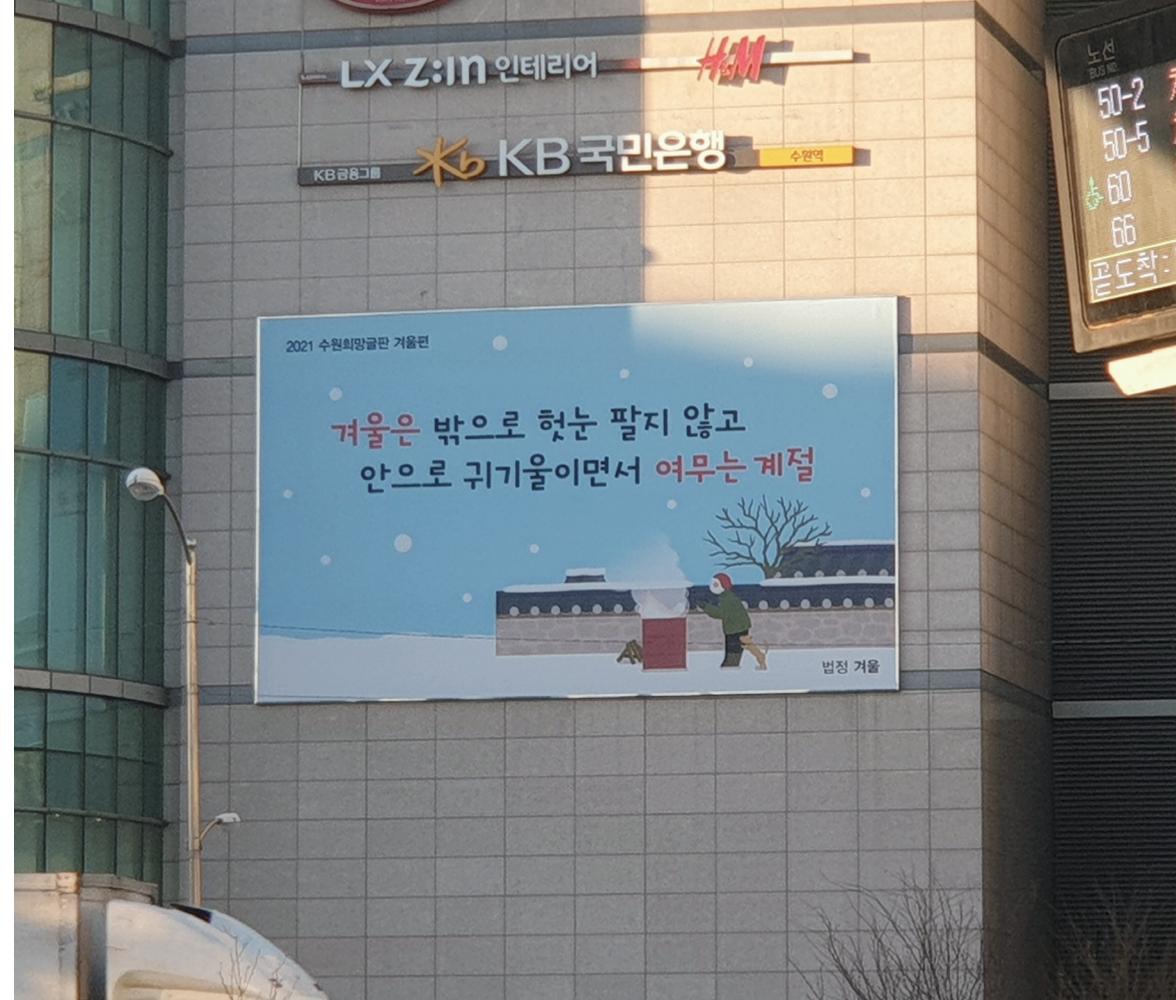
2018년 10월 18일에는 고색뉴지엄 앞 오목천공원 야외무대에서 ‘재즈로 만나는 old&new콘서트’를 진행했다. 고색뉴지엄 근방에는 황구지천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원이 정비되어 있어 산책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주변에 녹지 휴식공간이 있다는 장점은 고색뉴지엄으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9월, 개관을 두 달 앞두고 홍보 겸 힐링 행사, ‘감성충전 스테이지’를 열기도 했다. 시민들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먹거리와 체험부스를 즐길 수 있었다.

환경도시 수원에서 빠지면 섭섭한 생태환경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특히 2019년 하반기에는 주말마다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생태환경+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복합문화공간답게 예술과 함께 생태환경을 배울 수 있도록 유도했는데, 가을철 노랑고 빨강계 물든 나뭇잎을 이용하기도 하고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진행하며 아이들이 자연과 흙, 숲내음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쓸모가 사라진 공간은 유지하는 것에도 폐쇄하는 것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까지 부담하게 된다. 고색뉴지엄은 폐허에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환경과 비용 측면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고 더 나아가 시민에게 더 나은 문화복지를 제공했다. 힘겨운 상황에 놓인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됐고 그들의 작품을 관람하는 시민

들은 사회와 현상을 담은 예술적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교육실은 일상속 스트레스를 환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됐고 아이들에게는 배움의 공간이 됐다. 이 모든 것들을 한 공간 안에 효율적으로 담아내 운영하고 있는 고색뉴지엄이 앞으로 펼쳐 갈 새로운 문화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2018 신나는 재즈여행-재즈로 만나는 Old&New 콘서트 포스터(2018.10.17. 수원시청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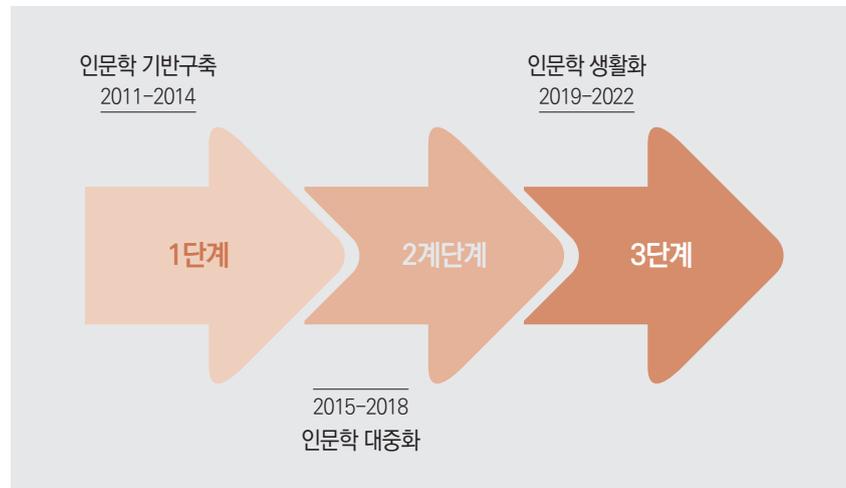
수원역 희망글판 겨울편(2022.1.14. 자체촬영)

人文의 따뜻함이  
수원에 내려앉을 때

민선 5기, 인문학 도시를 표방하며 시작된 글판 사업이 어느덧 10년 차에 이르렀다. 수원시 곳곳에서 얼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주는 글귀들은 바쁜 일과 속의 수원시민에게 잠깐의 휴식이 된다.

### 인문(人文)을 통해 퍼지는 인문(仁聞)

민선 5기 출범 후 수원에서 최초로 시행한 여러 사업들 중 눈에 띄는 사업이 있다면 ‘인문학팀’ 신설을 꼽을 수 있다. 2013년 7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인문학 전담부서팀은 4년 단위로 계획된 인문도시 조성 사업의 3단계를 거쳐 가는 중이다. 초기 4년 동안은 인문학 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고 2015년부터 4년 동안은 닦은 토대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인문학이 시민들의 생활 곳곳에 잘 녹여내 질적 향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3단계 생활인문도시 구현 계획(수원시 인문학팀 자료)

그 중에서도 시민 참여형 인문학 사업인 ‘수원 희망글판’과 ‘버스정류장 인문학 글판’은 수원 곳곳에 편재되어 시민들에게 따뜻한 인문학적 정취를 직접 실감케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2년 정책기획과에서 시작한 수원희망글판(이하 희망글판)은 인문학팀이 신설되면서 사업을 이관받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인문학 기반을 구축하는 1단계 과정에서 탄생한 글판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_\_\_\_\_ 계절에 따라서 희망글판 접수결과가 다른데, 보통 봄·여름엔 참여율이 높은 편이에요. 봄과 여름에 어울리는 작품이 많아서 그런지 400~500편 정도, 가을·겨울 편 경우에는 100~200편 정도 접수가 되거든요.(도서관정책과(前 인문학팀) 황미숙 부팀장)

희망글판과 버스정류장 인문학글판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게시 장소부터 다르다. 버스정류장 인문학글판은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수원 내 버스정류장에 게시된다. 반면 희망글판은 수원 내 주요 건물 및 청사 등에 게시된다. 시에서 관할하는 버스정류장과 달리 희망글판은 청사 이외 건물에 게시할 경우 기업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수원 내 여러 기업들에서 글판 사업에 동참하여 현재까지 좋은 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

\_\_\_\_\_ 시청사 외벽 등 공공서에 게시하는 희망글판은 시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수원역 AK플라자와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은 10년 가까이 자부담으로 동참해 주시고 계세요. 글판 특성상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하는데 교체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늘 협조해 주셨어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 생각해요.(도서관정책과(前 인문학팀) 황미숙 부팀장)

두 번째로는 공모 대상과 기간, 출품 분야 등의 기준에 대한 차이가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희망글판과 달리 버스정류장 인문학글판의 참여자격은 수원 시민으로 한정된다. 12행 이내의 생활에서 느끼는 감동을 담은 창작시들은 문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발표된다.

희망 · 인문학글판 공모 기준(담당자 인터뷰 내용 바탕으로 작성)

| 구분          | 참여 대상 | 출품 분야    | 기간(횟수)     |
|-------------|-------|----------|------------|
| 수원희망글판      | 제한 없음 | 문학 작품 발췌 | 연간 4회(분기별) |
| 버스정류장 인문학글판 | 수원시민  | 창작시      | 연간 2회      |

반면 희망글판은 참여 대상에 제한이 없다. 더 많은 이들에게 참여 자격을 확대하면서 더 다채로운 문학들을 수원시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문학 도시로서 수원의 면모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_\_\_\_\_ 문안공모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데 전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단순히 문학 작품 발췌 문안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작품 전문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 문학 작품들을 찾아보거나 작품 한편을 온전히 읽고 음미해보는 활동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도서관 정책과(前 인문학팀) 황미숙 부팀장>

궁극적으로 글판사업에서 수원시가 이루고 싶은 것은 차가운 도시 속 따뜻한 인문학적 소양과 감수성을 기르고 모진 세상에서 어진(仁) 소문(聞)을 퍼트리고자 하는 것이다. 희망글판을 통해 문학을 직접 읽고 감미하며, 버스정류장 인문학글판을 통해 직접 자신의 인문학적 소양과 감수성을 표현할 수 있다.

## 인문학이 향하는 시선 끝에 희망이 있다

‘온기를 담은 희망 메시지’는 희망글판의 중요한 선정기준 중 하나이다. 계절별 공고라는 특징에 따라 많은 이들이 각 계절의 키워드가 들어간 시를 골라오는데, 사실 계절은 희망글판 선정에서 주요 고려 요소는 아니다.

\_\_\_\_\_ 꼭 계절에 한정되어 봄이라고 봄에 대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계절에 어울리면서도 희망과 용기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문안이 중요한 선정 기준이죠. 희망글판이 시민들의 마음 속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정감어린 문안 선정을 하고자 심사위원분들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세요.<도서관 정책과(前 인문학팀) 황미숙 부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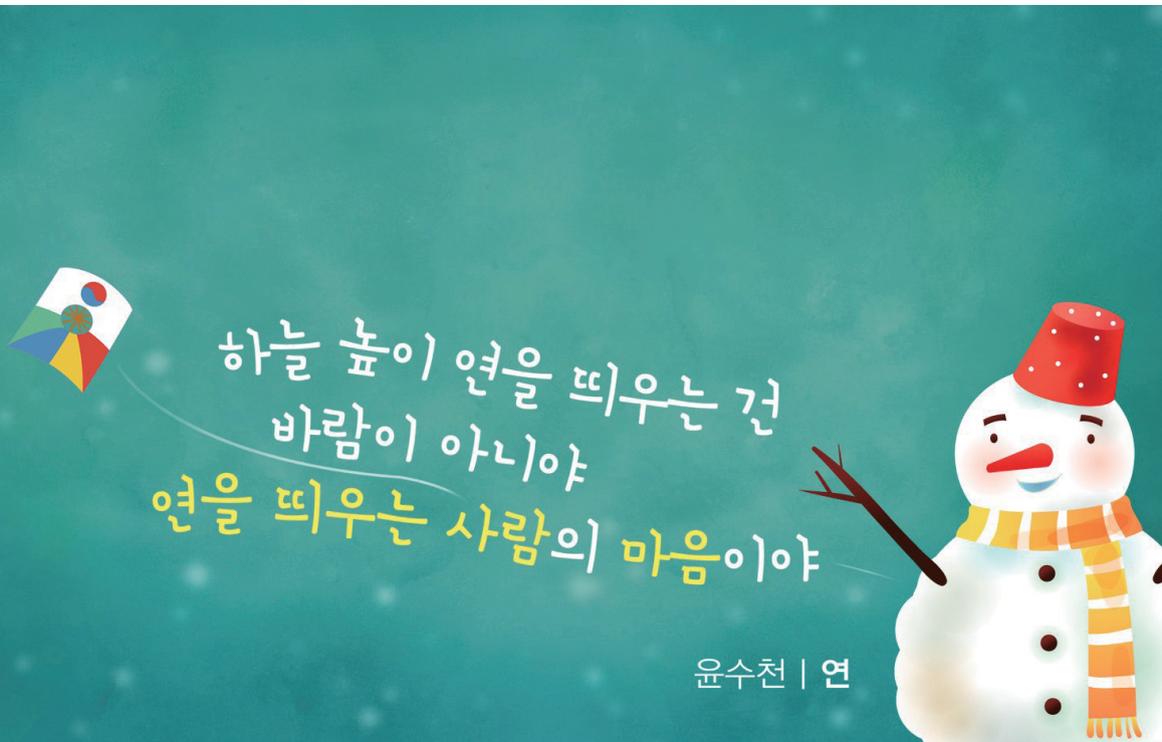


2021년 하반기 버스정류장 인문학글판(2021.9.16. 수원시청 보도자료)

글판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글들을 읽고 인문학적 감수성을 함양함과 동시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는 것이다. 글귀를 추천할 때 사유를 함께 적어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스스로 위로받은 문구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는 따뜻함이 희망글판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희망은 단순히 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희망글판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좋은 글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며 큰 희망을 선사하기도 한다.

\_\_\_\_\_ 문안이 선정되면 원작자 사용 동의를 위해 작가(시인)분과 저작권 협의를 거쳐야 해요. 수원시민이기도 한 윤수천 아동문학가의 작품이 선정되었을 때 되려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저작권료를 받지 않으셨어요.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덜한 분들의 작품이 발굴되어 수원의 곳곳에 알려진다는 일에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 때 담당자인 저까지 행복했어요.<도서관정책과(前 인문학팀) 황미숙 부팀장>

2014년 희망글판 겨울편 윤수천 작가의 '연'(수원시청 홈페이지)



희망글판과 마찬가지로 버스정류장 인문학글판은 시민들의 일상에 활기를 더한다. 자신이 창작한 시가 버스정류장에 게시되면 이것을 보며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는 시민작가들이 적지 않다. 인생의 사연과 희로애락을 담은 수원시민작가들의 창작시는 그들 마음에 그저 품어져 있지 않고 다른 이들과 공유되면서 위로의 존재가 된다.

### 다음 계절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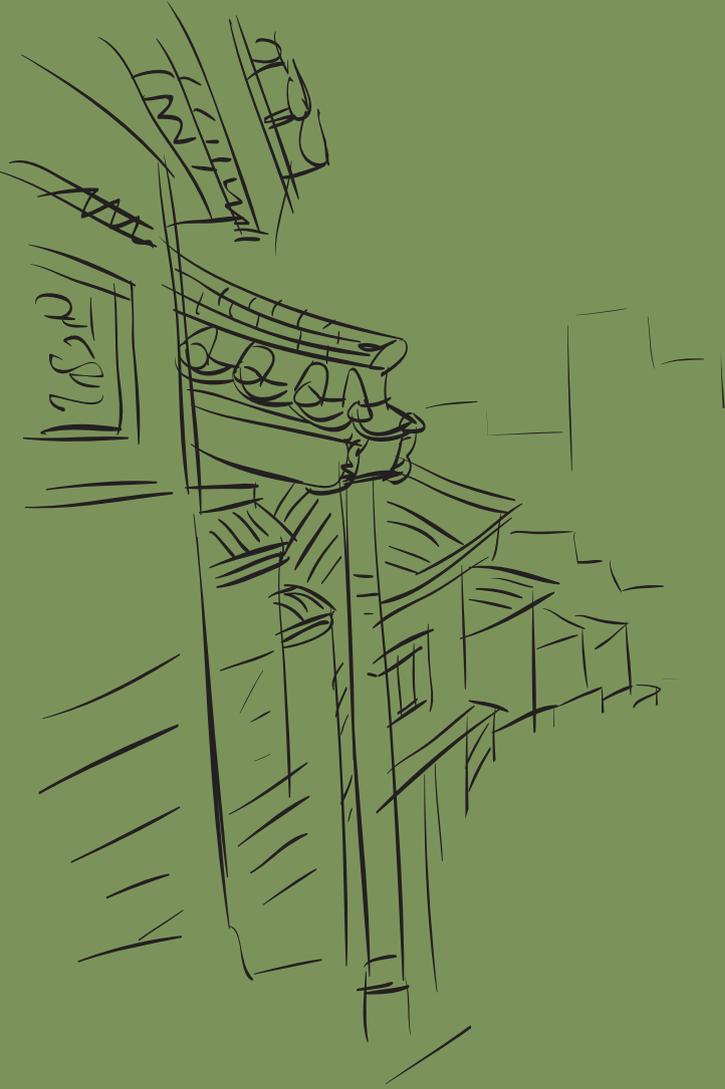
시민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업 중에서도 인문학팀의 글판 사업은 시민이 없으면 시작도 못할 사업이다. 시민의 인문학적 관심과 사랑이 더 나은 글판을 만들어 내고 관심 없던 다른 시민에게까지 따뜻한 영향력을 나눈다. 분기별 게시를 위해 한 계절 앞서 글귀를 고민할 때에도 당연히 시민들이 함께한다. 다음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_\_\_\_\_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것들이 단절·제한되고 코로나 블루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글판 사업은 용기와 희망을 전해 주시려는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기에 지속될 수 있었어요.<도서관정책과(前 인문학팀) 황미숙 부팀장>

다가올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것은 침체된 공동체에 활기가 될 수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아래 미래를 점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 행복한 앞날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위로의 의미로 다가오기도 한다. 오랜 기간 수원시민과 함께한 글판 사업은 위로와 희망 메시지로 수원시민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아 왔다. 희망 소통의 창구의 역할을 하는 글판 사업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수원의 미래에 행복을 더할 것이다.

“현장에서 들려 드립니다.”

회색 벽 말고  
풀빛 녹지로  
부탁 드립니다





# 수원에 드리운 초록빛

도심 내 녹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대우평공원과 그린 커튼은 수원시 녹지공간 확보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

## 도심의 역사가 녹아 있는 공원, 대유평공원

대유평공원은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공원으로, 그 첫 시작은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원래 대유평은 조선시대 정조가 수원화성을 축성하며 개발한 국영농장이었다. 이후 1960년대 후반 담배인삼공사가 담배 생산 기관인 연초제조창을 설립했고, 연초제조창은 2003년까지 운영됐다. 공장 가동이 중단된 이후 부지와 폐쇄된 공장은 20여 년 가까이 방치됐다. 주위에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들이 뻗뻗이 들어섰고,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요구가 이어졌다. 2017년, 수원시는 대유평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결과적으로 약 50%의 부지에 대유평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오게 됐다.

사업구간은 2단계로 나뉘어 총 11만 3,757㎡ 면적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1단계 구간은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9만 6,000여㎡이다. 대유평공원은 조성 시 '6대 전략 사업(공원녹지 위치의 적정성 확보, 공원녹지 컨설팅 지원단 운영, 공원조성 총괄기획가(M,P) 운영, 시민 인수 점검단 운영, 공원녹지 조성 매뉴얼 작성, 공직자 공원녹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도입해 녹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2단계 공사까지 완공된다면, 서호천과 남쪽에 위치한 숙지공원을 연결해 수원시 내 도심의 녹지축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대유평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접근성이다. 화서역 옆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부지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 주변 공동주택단지에는 물론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등 어디에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에 주안점을 뒀다. 이

대유평공원 전경(2021.10.30. 수원시 포토뱅크)



111CM 전경(2021.10.30. 수원시 포토뱅크)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아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누릴 수 있다.

대유평공원에는 예전 연초제조창 건물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인 111CM가 있다. 111CM이라는 이름은 공간의 주소인 정자동 111번지에서 따 왔고, 정자동 111번지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뜻을 담아 커뮤니티 (CoMunity)에서 C와 M을 가져와 ‘111CM’이 됐다.

내부 공간은 총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A동은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으로 베이커리 카페가 입점해 있고, B동은 시민들이 다양한 취미생활과 모임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두 동 사이 야외 공간에는 대유평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수원의 모습과 연초제조창의 역사를 보여 주는 아카이브 영상 전시기기가 배치돼 있다.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연초제조창과 그 부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든 것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린 새로운 도시 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대유평공원은 시민들에게 녹지공간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도 해내고 있고, 대유평공원은 가까운 미래에 더욱 중요성이 대두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 문화공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11CM 내 베이커리(2021.11.1. 수원시 포토뱅크)



111CM 내 문화공간(2021.11.1. 수원시 포토뱅크)

## 녹색 옷을 입은 수원시, 그린커튼과 그린터널

수원시에 오면 초록빛 덩굴 식물이 건물 외벽을 덮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그린커튼과 그린터널이다. 그린커튼이란 시 청사 및 공공기관, 학교 민간 분야 다중이용시설 등에 덩굴식물이 그물망, 로프를 타고 자라 외벽을 덮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린터널은 터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린커튼을 뜻한다. 그린커튼, 그린터널 사업은 2018년 시작해 2018년도 30개소, 2019년 26개소, 2020년 26개소를 조성했다.

그린커튼, 그린터널 사업

| 성과지표    | 2018 | 2019 | 2020 | 2021 |
|---------|------|------|------|------|
| 그린커튼 조성 | 23   | 16   | 16   | 10   |
| 그린터널 조성 | 7    | 10   | 10   | 5    |



영통구청 그린커튼(2018.7.25.수원시 포토뱅크)



그린커튼 조성 현장(2018.4.26. 수원시 포토뱅크)

그린커튼과 그린터널은 태양광을 차단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실제로 그린커튼을 설치한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여름철 실내 온도가 5도가량 낮고, 자외선으로 인한 건물 노후화와 부식을 줄여 주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덩굴식물의 넓은 잎이 먼지를 흡착해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 주고, 소음도 줄여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린커튼은 수원 내 녹색공간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이다. 그린커튼은 조성 시 토지가 아닌 화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녹화 사업의 경우 1㎡당 330만 원(토지매입비+녹화비·수원시 기준)이 들어가지만, 그린커튼의 경우에는 같은 면적에 57만 원이면 설치할 수 있다. 그린커튼 조성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수원 도심 공간 내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약 10억 원의 예산만으로 1만 4,080㎡의 녹색공간이 조성된다. 이에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는 그린커튼을 시 전체로 확산하고자 ‘그린커튼 조성매뉴얼’을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매뉴얼에는 그린커튼의 효과,

적합 식물, 설치 및 철거 방법, 병충해 관리 방법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그린커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원녹지사업소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녹색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끔 실용 조경 지식·정보를 알려주는 ‘찾아가는 조경관리 교육’도 진행했다. 2020년, 2021년에는 그린커튼 덩굴식물 씨앗들을 무료로 보급하기도 했다.

그린커튼, 그린터널 사업은 시작한 지 1년 만인 2019년부터 “투자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 지자체가 수원시를 벤치마킹했다. 제주·안성·구리·군산·시흥·군포·강릉시, 서울 송파구, 대구 달서구 등 10여 개 지자체가 수원시에 그린커튼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직접 찾아와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그뿐만 아니라 그 1년 뒤인 2020년 8월, ‘경기도형 정책마켓’에서 1위로 선정되며 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처럼 그린커튼, 그린터널 사업은 수원시의 주요 녹색공간 확보 정책으로 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린커튼 조성매뉴얼  
(수원시청 홈페이지)





2020년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 발족식(2020.7.7. 수원시 포토뱅크)

어디에서도  
알아챌 수 없고

### 기후변화정책팀의 역할

2011년 9월, 염태영 시장의 환경수도 선언에 따라 수원시청에는 특별한 전담 부서가 설치됐다.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대기과를 도입한 것이다. 2012년 당시, 환경문제는 국정 과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고 법정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모지에서 새로 일궈낸 부서였다.

어디에서나  
경험하고 있는

기후대기과 기후변화정책팀의 관계자들은 기후변화가 멀리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환경의 변화는 사실 실재하기 때문이다.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혹독해진다거나 천식을 앓는 어린이들이 많아지는 등 우리는 기후변화를 알게 모르게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정책팀의 업무는 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 단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수처리나 쓰레기와 관련된

부서뿐만 아니라 건설이나 교통 등 많은 부서와 협업을 통해 온실가스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여러 부서와 사업에 흠어져 있는 수원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들을 중심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기후변화 정책팀의 업무라고 볼 수 있다.

\_\_\_\_\_ 온실가스 총괄 관리. 정책 추진 종합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저희 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뭐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될 수 있는지 효과분석 조사하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환경자동차를 도입한다든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다든가 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온실가스감축 사업들이 전부 다잖아요. 그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전부 다 같이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기후대기과 이민진 주무관>

### 관이 먼저 합니다

2011년 시작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공공기관에서 기준연도(2009년) 대비 30% 감축 등의 목표를 설정해 달성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지난 10년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해 2021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원시 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_\_\_\_\_ 사소한 거로는 뭐 조명부터 일단은 그 백열등 안 쓰고 LED조명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그 관용차량부터 전기차나 그런 수소차 뭐 이런 걸로 바꾸든가 아니면 단열창호로 교체한다든가,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단 에너지사용량을 줄여야죠.<기후대기과 송이슬 주무관>

배출권 거래제는 본래 산업 쓰레기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행해 왔으나 지역의 쓰레기를 관리하는 지자체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2015년 대상에 포함됐다. 배출권 거래제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 등락하는 것과 같이 거래를 원하는 집단이 많을수록 값이 올라가고 원하는 집단이 적을수록 값이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원시는 작은 땅에 더욱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매년 배출권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배출이 적기 때문에 매년 수원시에 배출권을 판매하고 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배출이 증가하는 수원은 매년 배출권을 구매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실 수원시 시민들 한 명 한 명을 따져 봤을 때 전체적인 배출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탄소중립과 환경쓰레기가 줄어드는 속도는 인구가 유입되는 속도만큼 빠를 수 없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함께 실행해야 하는 분야는 오랜 시간과 공이 들어간다.

공공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감축 실적우수기관 시상식(2018.10.31. 수원시 포토뱅크)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예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괜찮은 시기, 괜찮은 가격에 배출권을 구매해야 했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의 상황을 지켜보며 담당자는 연간 예산에서 고의로 배출권 전체를 확보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닐 것이며 확산에 따라 산업분야에서 쓰레기 배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_\_\_\_\_ 산업 부문에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 이거 암만 봐도 내년 되면 떨어질 것 같아 최소한만 샀어요. 그다음 해 거를 미리 당겨쓸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차입을 활용을 했어요. 처음에는 올해 다 사겠다. 이렇게 해서 초반에 했다가 이제 코로나 계속 지속되고 이래서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그 이후 어떤 중반 이후에는 계획을 수정을 했죠. 최소한만 사고 내년에 사겠다. 이거 다 이월시키겠다 해서 이월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샀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해에 또 우리도 또 이것저것 다른 거 다른 요소로 인해서 많이 좀 줄였어요.(장안구청 환경위생과(前 기후대기과) 박은정 팀장)

일상 쓰레기 배출은 늘어나겠지만 배출권 거래제의 토대가 기업 대상이라는 것을 상기한 감각 있는 선구안으로 수원시는 차입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적은 배출권을 구매했다. 그리고 기대대로 기업의 배출량이 폭락하며 기존 예산의 6분의 1이 안 되는 가격에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었다. 지속적인 배출량 감소 노력과 시류를 읽은 재치가 수원시의 예산 확보를 도왔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원시는 2020년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 발족식에도 앞장섰다. 수원시에서는 실천연대 발족에 맞춰 탄소중립기본전략을 세웠다. 탄소중립 기본전략은 수원시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밑 작업, 시

나리오 작업이라 생각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방향성과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제안했다. 이후 2021년 5월 12개국 정상급 인사와 국제통화기금(IMF)수장 등이 참여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는 녹색 회복의 노력을 다짐하는 ‘서울선언문’에 함께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 핵심은 시민들의 참여

탄소중립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시민이다. 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수원시를 구성하는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만이 비로소 탄소중립을 일궈내는 핵심이 된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대책보고회(2015.2.2. 수원시 포토뱅크)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환경 관련 이슈 및 지식 전달을 위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는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고 각 나이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탄소중립이 특히 강조되면서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과 관련된 소재를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_\_\_\_\_ 아무래도 좀 눈높이 교육에 맞아야 하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챗터거든요. 뭐 지구가 아파요. 뭐 이런 정도부터 성인은 탄소중립이랑 가깝게.(기후대기과 박서윤 주무관)

특히 2014년 개관한 수원시기후변화 체험관은 규모가 크고 방문객 수가 많아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코로나 확산 이전, 2019년까지는 연간 1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인기가 좋았다. 수원 YMCA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교육들은 전적으로 체험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기획하고 만들어 운영된다.

탄소포인트제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가정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을 줄여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대상의 제도이다. 환경부에서 제도를 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지원한다면 수원시에서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도맡는다. 환경도시 수원답게 수원의 실적은 매년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_\_\_\_\_ 탄소포인트가 예전에 비해서 가입자수도 많이 늘긴 늘었는데 감축량이 그만큼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거든요.(기후대기과 박서윤 주무관)

민간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시민과 시민이 만나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공모를 내면 관심 있는 주제에 맞는 개인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인원을 선발한다. 선발된 시민들은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에서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또, 수원역이나 시청·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에너지 감축을 홍보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권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기후변화체험관 두드림(2014.10.16. 수원시 포토뱅크)



기후변화체험관, 직업체험교육(2015.9.1. 수원시 포토뱅크)

### 함께 실천해야 하는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감축사업은 수원시와 온 시민들이 힘을 합쳐 환경문제 개선에 앞장서도록 독려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는 적응사업이다. 과거와 비교해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혹독한 두 계절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기후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 이미 기후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특히 취약계층은 그 피해가 더욱 크다.

이러한 이유로 수원시에서는 기후변화로 위기에 놓인 이들을 지원한다.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에 관여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정책과는 보건소부터 하수관리과까지 손이 닿지 않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_\_\_\_\_ 기후변화 적응도 되게 중요한 파트인 게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라든지 폭염, 홍수, 전염병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그런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그 피해에 적응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적응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적응 사업,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라든지,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 같은 거나.<기후대기과 송이슬 주무관>

2021년 탄소중립 기본법이 재정되면서 2022년 들어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단계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선도적인 대응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들을 이미 확정해 놓았다. 지난 10년 동안 쌓아 놓은 기반을 토대로 지표의 개선방향을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는 숙제만이 눈앞에 놓여 있다.

담당자들은 어린이와 장애인, 여성의 인권신장에 따라 과거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하고 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된 점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이 우리가 당연히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_\_\_\_\_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지, 기후적응을 시킬 수 있는지,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한번이라도 더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사실 시에서 뭐 하는지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온열의자나 폭염 가림막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깐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기후대기과 이민진 주무관>

\_\_\_\_\_ 물론 지금 이제 법제화돼서 단계적으로 하고는 있죠. 당연한 방향으로 가면 돼요. 이게 크게 보면 물론 어떤 구체화된 수치나 목표들은 제가 이제 인벤토리 구축을 해서 나름 제시한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탄소 중립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지표의 개선 방향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겠죠. 그를 위한 방법들이야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범부처, 전부서, 단 하나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모든 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이나 전략이나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을 다 장착을 시키는 거죠. (...) 보고서 쓸 때 성평등 이런 것도 고려하고 예산 절감 이런 거 고려하고 법률 검토하고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우리 계획서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도 같이 넣어서 사전에 체크될 수 있게 그래도 한 번은 보라고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저변을 좀 확대하면 좋겠어요.<장안구청 환경위생과(前 기후대기과) 박은정 팀장>



생태교통 5주년 기념식 퍼레이드(2018.9.8. 수원시 포토뱅크)

## 저탄소 친환경 도시로의 나침반

현대사회는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성공을 이루어냈고, 이전 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른 속도로 사회를 발전시켰다. 이로 인해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편리해졌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편리해질수록, 환경과 피라는 부작용도 우리의 삶에 점점 더 많은 부분 함께하기 시작했다. 20세기에 들어오며 기후변화와 각종 전염병, 미세먼지 등 탄소중립과 친환경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됐다. 이제 국가 단위는 물론이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친환경,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수도’를 꿈꿨던 수원은 2010년 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바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수원시에 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 환경수도가 되기 위한 시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고, 각 배출원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 통계 시스템을 말한다. 쉽게 말해 온실가스가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국가나 지자체, 기업은 이 인벤토리를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감축 사업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2011년 9월 26일 수원시는 ‘환경수도 수원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선언문에는 수원이 환경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수원시의 다양한 노력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구체화하며 녹색행정과 녹색경영, 녹색생활 등 시 전 분야에서 환경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2012년 기후

변화와 에너지 행정을 전담할 기후대기과가 신설됐고,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작됐다.

이후 수원시,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감축량 기대효과를 산정했다. 하지만 당시 기후대기과에서는 이 정도 사업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도시의 전반적인 배출량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단위사업들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해도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 감축 효과만으로는 전체적인 배출량 관리를 할 수 없었다.

2011 수원시 환경수도선언식(2011.9.26. 수원시 포토뱅크)



물론 당시에 수원시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존재했지만, 이를 실무에 활용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2013년 이전에는 용역을 맡겨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벤토리는 통계자료 확정 등의 문제로 2~3년 전 데이터까지만에 담겨 있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기후대기과 관리자였던 박은정 팀장은 시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인벤토리 자체 작성 및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_\_\_\_\_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수원시 목표는, 수원시 전체 배출량을 얼마를 줄이겠다 하는 거였는데 그럼 전체 배출량을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죠 범위를. 우리가 하는 감축사업만 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숫자 장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되, 왜냐하면 궁금해 하나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감축량이 그럼 얼마 정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어쨌든 이론적이지만 산정은 하고 그것도 이중으로 간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평소 관리를 위한 수단인 거고, 일차 이행평가인 거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인벤토리 가지고 실제 배출량이 얼마나 줄고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고 하는 걸 기후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장안구청 환경위생과(前 기후대기과) 박은정 팀장>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위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최신 분석 자료를 담은 인벤토리가 필수적이고, 인벤토리가 없으면 중도 모니터링 및 실질적인 감축 수치를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2013년 12월 말, 인벤토리 자체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 수원시만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만들자

이후 기후대기과에서는 인벤토리 자체 구축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직접 인벤토리를 위한 자료를 모아, 계산식을 세워 수치를 도출해냈다. 그 다음 한국환경공단의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데이터와 계산식을 확정했다. 이후 계산식을 통해 당해 연도의 최신 자료의 인벤토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자체 인벤토리, 최신 자료를 담은 인벤토리는 수원시 온실가스 감축에 여러 방향으로 효과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모든 연료를 한 번에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화석 연료를 천연가스로 변경하는 것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된다. 자체 구축 이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할 때, 모든 연료를 다 합쳐서 총 배출량으로 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당연히 이런 인벤토리로는 그에 따른 정책 또는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 그래서 수원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체 구축 시 각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했고, 이를 통해 수원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분석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_\_\_\_\_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제일 문제 되는 거는 수송. (...) 이제 딱 15년부터 저유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예요. 그 추세에서도 약간 이런 흐름이 있어요. 증가는 하되 이런 흐름. 그래서 이걸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 추세선으로 다 위에 있는 부분들은 다 저유가. 그리고 추세선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고유가. 그런 패턴을 발견을 한 거죠. (...)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개인 차량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차량 연료 자체의 전환이

나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근본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려면 자동차 연료 자체의 전환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이렇게 타깃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장안구청 환경위생과(前 기후대기과) 박은정 팀장>

수송 부문에서의 발견이 탄소 감축 사업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인벤토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다양한 발견들이 이루어졌고, 탄소 감축 사업의 방향들이 더욱 정교해지고 효율적으로 갈피가 잡히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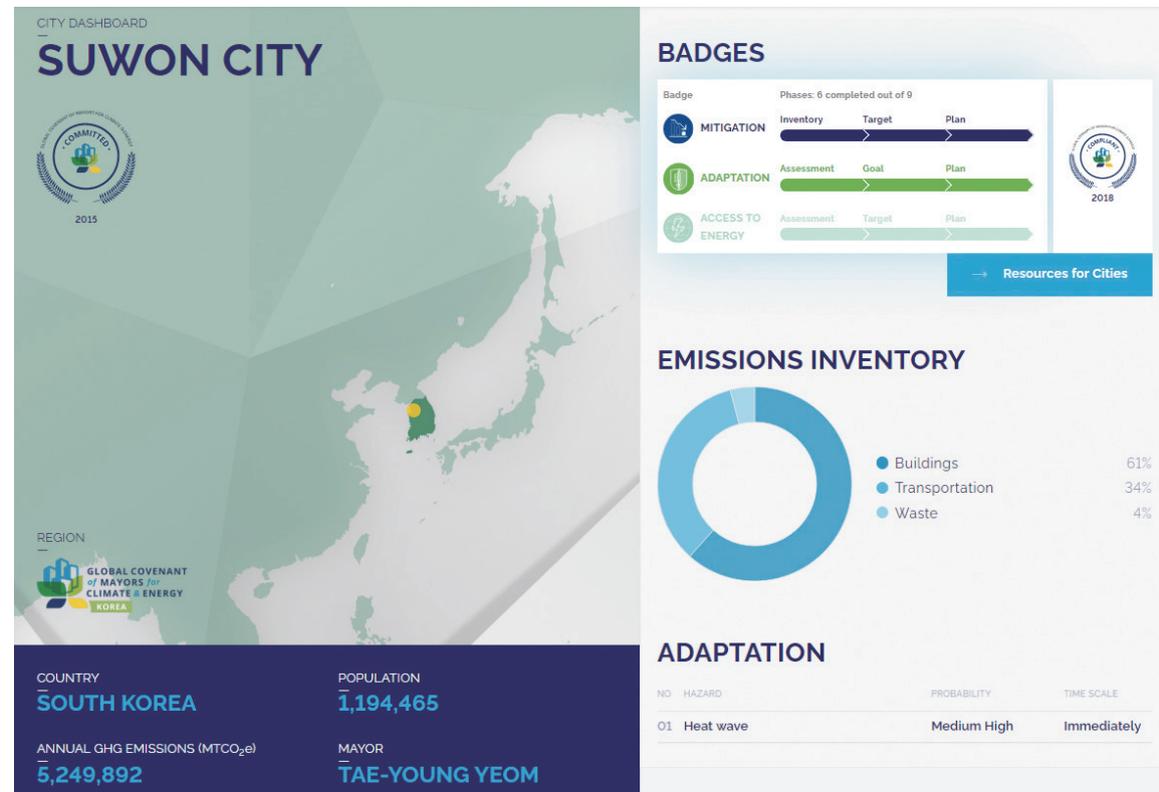
### 인벤토리라는 길잡이

이제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수원시 탄소 감축 사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이렇게 효과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건 다양한 정보와 최신 자료를 담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인벤토리의 ‘정확성’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수원시의 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구축 초기부터 한국환경공단의 결과치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고, 지방정부 국제 표준 프로토콜 인벤토리 구축 우수 사례로 손꼽히며 인벤토리의 정확성을 입증했다.

이후 2018년 8월, 글로벌 시장서약(GCoM)위원회로부터 ‘글로벌 시장서약 이행 완료 도시’로 인증받아 글로벌 시장서약 인증을 받은 국내 두 번째 도시가 됐고, 기초 지방정부로는 최초 도시가 됐다. 글로벌 시장 서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 지방정부의 네트워크로, 도시 간 기후변화 대응 협약인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과 ‘EU 시장서약(EU Covenant of Mayors)’이 통합해 2017년 출범했다. 글로벌 시장서약 인증을 위해서는 참여결의, 인벤토리, 목

표, 계획 등의 단계를 완료해야 하고, 단계마다 지정된 형식에 맞추어 보고서를 제출해 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2015년 9월 인증을 위한 참여결의를 제출하고, 2018년 4월과 8월에 국제 표준을 적용한 온실가스 배출 목록, 기후변화 대책 보고서, 증빙자료를 제출해 승인받았다.

GCoM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수원시 관련 정보 페이지(2022.3.16. GCoM 홈페이지)



GCoM에 처음 인증을 받으면 인증 배지가 주어진다. 그다음 해부터는 일정 정도 이상의 보고가 있어야지만 배지가 유지되고, 매년 각 분야별 인증 여부에 대해서는 색으로 표시가 된다고 한다. 만약 계속해서 보고가 누락되고, 유지되지 않는다면 GCoM 인증이 박탈된다고 한다. 수원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인벤토리를 매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증이 되고 있다고 한다.

\_\_\_\_\_ 그런데 매년 인증 여부에 대해서는 하는데 지금 분야별로 이제 인증 보고가 했냐 안 했냐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인증을 받으면 GCoM 배지가 주어져요. 그래서 GCoM 배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이제 어느 정도 보고가 되면은 유지는 돼요. 근데 만약에 그다음에 뭔가 보고가 많이 누락되고 하면은 그다음에는 또 없애 버려요. 약간 그런 식이에요. (...) 그 해에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또 인증 이런 게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또 색깔로 표시가 되는데, 우리만 다 했어요. <장안구청 환경위생과(前 기후대기과) 박은정 팀장>

수원시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수원시 탄소 저감, 탄소 중립 사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인벤토리 자체 구축이라는 시도는 앞서나가는 탄소감축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유일한 인벤토리 자체 구축이라는 점에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주고 있으며, 수원시의 인벤토리는 탄소 감축에 대한 지침서로 훌륭히 한 몫을 해내고 있다. 수원시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환경수도 수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이 되어 주고 있다.



국립농업박물관 내부(2021.12.8. 수원시 포토뱅크)

0.9와 1.1을  
조율해  
1.0을 만들다

### 첨단 농업의 중심지 수원의 가치 알기

한국 농업 역사에서 수원은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해도 무방하다. 정조대왕 시절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저수지 축만제(祝萬堤)<sup>1)</sup>가 건설됐다.

농업 역사의 메카 수원에 농촌진흥청이 들어서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는데도 모른다. 또한 수원은 한국의 평균 기후를 가지고 있다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작물들을 재배하고 연구하는 것에 적합한 도시이기도 했다. 1962년 4월 22국과 11연구소 및 시험장을 통합해 발족된 농촌진흥청은 수원시 곳곳에 뿌리 내려 2014년까지 강산이 다섯 번 이상 변하는 세월을 수원시와 함께했다. 농촌진흥청과 6개의 산하기관들<sup>2)</sup>은 6개의 지구로 흩어져 2014년까지 수원에서 운영됐다.

### 국토균형개발과 농촌진흥청의 이전과 및 부지 활용

2014년 농촌진흥청은 국토균형개발 아래 전주시 완산구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시행했다. 농촌진흥청이 떠난 자리에 수원시가 품게 된 숙제는 수원 곳곳에 흩어진 6개의 지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였다. 종전부동산의 면적은 총 198만㎡로, 거의 모든 토지가 개발되거나 활용되고 있는 수원시 입장에서는 소중한 부지가 됐다.

1) 천년 만년 만석 생산을 축원한다는 의미로 1799년 축조됐다. 수원화성 서쪽에 있어 서호(西湖)라고도 불리며 현재는 서호공원으로 더 알려져 있다.  
2) 수원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까지 총 7개 기관이 위치했다.

그러나 구 농업진흥청 부지는 국유지로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수원시와는 다른 입장은 가지고 있었다. 환경도시 수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수원시는 6개 지구 중 넓은 면적과 도심에 가깝다는 특징을 가지고 서호와 마주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서둔동의 농촌진흥청 지구를 시민들이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당 부지를 개발하길 원했다. 당시 서둔동 농촌진흥청 부지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다른 5개 지구(자연 녹지)와 비교해 사업비 확보 가치가 3~4배 더 높았다. 공원 및 녹지는 개발에 비해 많은 수익을 이끌어 낼 수 없고 금전적 가치가 높은 곳의 땅을 활용해야만 전북혁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공간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이었다.

농진청 부지가 국토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국토부의 의도대로 바로 활용할 수는 없었다. 국유지라 하더라도 부지의 용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침예하게 갈리는 양측의 이해관계 속에서 구 농업진흥청 부지는 애매하게 떠있는 시간을 보냈다.

서호공원과 농촌진흥청(2020.10.10. 수원시 포토뱅크)



### 다양한 이해관계 속 굳건한 의지

수원시와 국토부의 엇갈린 이해관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입으로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국토부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중앙부처가 수원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농림부는 수원시가 가지는 정조시대 농업의 가치를 내버리기 아깝다고 여겼고 권업모범장 개장이후 100년이 넘도록 근대 농업 발전에 기여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_\_\_\_\_ 정조 23년 서호 축만제가 만들어졌는데 농촌진흥청도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조시대 때부터 역사적인, 기후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 농촌진흥청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 우장춘 박사 모도 있고 모든 농업기술혁명이 다 만들어졌는데, <도시교통과(前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김수현 팀장>

농림부와 수원시는 국토부와의 조율 후 손을 맞잡고 2013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때 농림부와 수원시 각 기관의 역할을 기재하면서 공식적인 합의와 계획 수립을 완수했다. 농촌진흥청 종전부지 활용계획으로 인한 국토부와 수원시의 관계는 2009년부터 5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당시 농림부 농업정책 과장의 굳건한 의지로 단 6개월 만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

양해각서 이후 총 5개 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맞는 업무를 수행했다. 수원시는 토지이용계획을 국토연구원과 협의해서 서둔동 농촌진흥청 지구를 공원부지로 지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농촌진흥청 관련 6개 지구 전체의 사업성이 중요했다. 이 때문에 수원시 입장에서는 6개 지구의 사업성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중요한 과제였다. 금전적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서둔동 농촌진흥청 부지를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원부지로 활용하게 되

면 나머지 5개 지구의 용도를 변경해 부족한 사업성을 이끌어내야 했기 때문이다. 박물관을 수원시에 제안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박물관과 관련된 사업 전반을 담당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토부를 설득하는 일도 도맡았다. 그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예산 확보 등 전반적인 공간 구성을 담당했다. 국토연구원은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성을 검토했다. 6개 각각의 지구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진행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예산을 쏟아 국토부로부터 농업박물관이 지어질 종전부지를 매입하고 본격 사업착수에 관여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수원시와 농림부, 국토연구원의 역할로 사업성이 확보된 부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판매해 창출한 수입을 다른 사업에 활용했다.

구 농촌진흥청 부지 관련 기관의 역할

| 번호 | 기관명     | 역할                                    |
|----|---------|---------------------------------------|
| 1  | 수원시     | 토지이용계획 협의, 농진청부지 공원 지정                |
| 2  |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교통부 이해 설득, 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예산 확보 |
| 3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추진                                 |
| 4  | 국토연구원   |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성 검토 및 계획                  |
| 5  | 국토부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총괄                        |

### 0.9와 1.1을 조율해 1.0을 만들다

수원시의 기존 목표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공원을 선물하는 것이었으므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서둔동 농촌진흥청 부지에 농업박물관을 만들고 그 주변을 정돈하는 것은 일석이조의 사업이었다. 교육적 효과와 전통의 계승, 지친 삶 속 쉼터의 역할을 모두 해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둔동 농촌진흥청

지구를 공원부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원시는 토지활용계획에서 농업박물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사업성을 확보해야 했다. 다행히 사업성 확보에서 국토연구원과 수원시의 의견이 일치했다. 당시 담당자는 사업성 보존을 위한 BC값(Benefit Cost Ratio) 및 IRR(Internal Rate of Return)값 조율을 가장 어려웠던 상황으로 기억한다.

\_\_\_\_\_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게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핵심인데 여기가 비싼 땅인데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개발하려고 했던 거고, 왜냐하면 경관이 좋거든요. 수원역도 가까운데다가 서호를 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비싸게 팔 수가 있고, 우리는 거기를, 그 비싼 땅을 공원으로 하자고 그러니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것은 BC값이 떨어지거든요. BC값이 1.0 이상 나와야 하는데.<도시교통과(前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김수현 팀장>

BC값은 비용대비편익을 나타내는 수치로, 1.0을 기준으로 개발경제성이 오를수록 값이 올라가고 수익성이 낮아질수록 값이 내려간다. 수치가 1.0을 훨씬 웃돌면 난개발이 될 수 있고 1.0에 못 미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사업을 진행할 때 일정 수준의 수익성이 보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치 조율이 필수적이었다. BC값에는 역사적 가치에 대한 정성적 항목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 토지 매매에 따른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수준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역사적 산실이 수원에 깃들여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다. 국토연구원은 해당 부지의 역사적 중요성에 동의했고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를 모두를 고려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만 아무런 수익을 내지 않을 수는 없으니 서둔동 농촌진흥청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를 개발할 수 있게 조정했다.

\_\_\_\_\_여기(농업박물관부지)를 공원으로 하게 되면 이거(담동지구) 개발한 거 우리가 양보를 할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돈 되지? 그러면서 다른 데도 조금 조금씩 같이 올리면, 감쇄되는 것을 수익을 지킬 수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돈 계산을 하고 했던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다른 곳들도 감안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도시교통과(前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김수현 팀장>

농촌진흥청 지구를 공원부지로 만들면서 가져온 부차적인 이득도 무시할 수 없는 성과이다. 넓은 서호 주변의 부지는 농촌진흥청에서 남기고자 한 구역과 박물관, 공원, 일부 개발구역, 더함파크 총 5개 구역으로 나뉘었다. 주목할 점은, 개발로 이어졌다면 사라졌을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도서관이 ‘더함파크’라는 공간으로 재탄생됐다는 것이다.

국립농업박물관 착공식(2019.12.4. 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도시재단, 수원도시공사,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 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까지 수원시 산하기관들을 한데 모여 거버넌스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또한 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재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_\_\_\_\_ 농촌진흥청 부지가 다 부서지고 새로 뭔가 들어선다고 하면 아깝잖아요. 그것을 얻어냈으니가 도시공간 내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편의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가치 있는 게 제일 수원시가 지켜낸 거라고 생각해요.<도시교통과(前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김수현 팀장>

### 역사와 전통을 담은 노른자를 시민에게

한국 최초의 농업분야 전시 박물관인 만큼 명칭부터 큰 공을 들였다. 당시 체험형 박물관 트렌드에 따라 국립농어업체험박물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등을 거쳐 2019년 9월 ‘국립농업박물관’으로 명칭을 확정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박물관과 차별화된다. 방문객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관과 식문화관, 야외체험장에서 농업의 생생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토양과 물, 영양분부터 시작해 씨앗 심기, 경작하기, 거두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배우고 수확한 농산물들을 직접 요리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순환과 농업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다. 야외 공간에서는 서호의 풍경을 그림 삼아 텃밭과 과수원, 다랭이 논을 체험할 수 있다. 농업관에는 국가 보물로 지정된 정약용의 행초 다산사경첩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문화적 유물들을 전시해 역사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농업박물관 건립현장(2021.12.8. 수원시 포토뱅크)

농촌진흥청은 전쟁 이후 국민들의 삶을 개선한 농업 기술 혁명의 산실이자, 통일벼가 탄생한 장소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에 필수로 요구되는 의식주 중에서도 기본 바탕이 되는 ‘식’을 책임져 온 이곳의 역사와 의미를 기념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200년 전 정조대왕의 뜻이 계승된 세계관개시설물유산인 축만제와 만석거는 농업과 수원이 끊어낼 수 없는 긴밀한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무엇보다도 수원시가 바라던 바는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탁 트인 자연의 정취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수원역에서 자동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적합한 위치의 큰 공원을 수원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는 점은 수원시 담당자들에게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었다. 10여 년의 긴 기다림 끝에 2022년 개장하는 농업박물관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업박물관과 함께 환경수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수원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_\_\_\_\_ 저희가 제일 도전하려고 했던 것은 종전부지의 역사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 나머지 개발부지들은 작물원, 시험포 이런 것들이라서 저희가 어떤 대단위 공원을 지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개발하는 게 그게 목표였어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목표인데, 근데 이 부지가 가장 그 노른자. 전체적으로 노른자 부지가 농업박물관이 되면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수원시가 큰 부분을 다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시민안전과(前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김수현 팀장)



수원역을 지나가는 신분당선 열차(2020.3.12. 수원시 포토뱅크)

## 철도를 타고 수원을 누비다

### 공원에서 만나는 협궤열차의 추억

1995년 12월 31일, 1937년에 건설되어 58년간 수원과 인천을 달리던 협궤열차가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멈춰 섰다. 수인선은 일제강점기 경기 동부지역의 물자들을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해 처음 설치됐다. 총 52km, 17개 정거장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화물 기능뿐만 아니라 여객 기능을 하는 열차로써 수원-화성-안산-시흥-인천을 이어 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77년 수원-인천 간 산업도로가 개통하고, 이후 화물 운송은 선로가 아닌 도로로 집중되며 자연스럽게 화물 열차의 역할이 쇠퇴했다. 결국 수인선은 여객 기능만으로 운영되다 1995년도에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수인선은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협궤가 아닌 일반 전철로 다시 우리 곁에 돌아왔다. 수인선의 전 구간은 총 3단계로 순차 개통하였다. 1단계는 2012년 6월 30일 ‘오이도-송도’, 2단계는 2016년 2월 27일 ‘송도-인천’, 3단계 2020년 9월 12일 ‘수원-한대앞’을 마지막으로 전 구간이 개통되어 25년 만에 다시 수원과 인천 사이를 달리게 됐다. 개통 이후, 서수원 권역의 교통 편의를 높여 준 수인선은 많은 수원시민들이 애용하는 노선이 됐다. 수인분당선 수원 구간의 마지막 역인 오목천역은 2020년 개통 후 일평균 3,562명, 11개월간 129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인선은 수원 구석구석을 달리며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다.

마지막 수원-한대앞 구간은 초기 지상으로 노출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교각이 설치되어야 하고, 이는 도심의 흉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뿐만 아니라 교각을 기점으로 양쪽 지역은 교류에 어려움을 겪어 선로 하나를 두고 단절될 가능성 역시 높았기 때문에 수원시민들, 그리고 수원시는 고민

에 빠졌다. 이후 수원시에서는 지상철도가 아닌 지하철도로 다시 계획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민선 5기 때 이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_\_\_\_\_지상으로 되면 이제 교각이 설치되고 어떻게 보면 도심의 흉물이 되어서 이쪽 섹터하고 이쪽 섹터가 단절이 돼 버려요. 그런 경우 많이 보실 거예요. 아마. 지상으로 가서 고가로 띄워서 가면 지역이 단절이 돼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시 계획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수원시가 지하를 필사적으로 요구를 했어요.<도시교통과 팀장>

이로 인해 수인선 수원-한대앞 구간은 2013년 지하철도로 조성됐다. 하지만, 지하로 조성 이후 3.5km 구간에 펜스가 설치되어 양쪽 지역의 단절이 현실화됐다.

수인선 상부공원 내 협궤터널(2021.9.14. 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시는 국가철도공단과 또다시 협의를 거쳤고, 결국 펜스를 해체하고, 공원화 사업을 진행해 지상 공간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수인선 선로 3.5km의 구간에는 수인선 하늘숲길 공원이 조성됐고, 수원시민들의 여가생활 공간이자 쉼터가 되어 주고 있다.

### 더 빠르게 달리자, KTX

수원역은 1905년에 처음 설립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최대의 철도역이다.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용자도 많고, 그만큼 하루 동안 수원역을 거쳐 가는 열차도 많다. 고속철도인 KTX도 수원역을 거쳐 가는 열차 중 하나이다.

현재 수원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는 상·하행을 합쳐 하루 8회 운행에 불과하다. 역의 규모와 유동인구를 고려해 보았을 때 편수 자체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에서 출발하는 KTX는 대전까지는 경부선 노선을 이용한다. 경부선 노선은 커브가 많아 일정 속도 이상을 내기 어려운데다가 일반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고속철도가 빠르게 달릴 수 없는 조건이다.

\_\_\_\_\_ 수원발 KTX 사업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구간은 이제 수원역에서 가는 경부선을 타고 가거든요. 경부선 자체가 굉장히 꼬불꼬불한 노선이라서 KTX가 그 선로를 타게 되면 빠르게 달릴 수가 없어요. 저 동탄 쪽에 SRT 고속철도 노선이 있어요. 그쪽은 이제 수원에 들리지는 않는데 그래서 기존 경부선으로 내려가다가 SRT 노선 고속철도 선으로 갈아 타는, 그쪽으로 가는 한 10km 정도 되는 구간만 노선을 신설하는 거예요. 고속철도 노선으로 갈아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 주무관>

수인선 하늘숲길 공원 조성  
2021.9.4. 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KTX 직결사업은 경부선 평택 서정리역과 고속열차 전용선로를 쓰는 SRT 평택 지제역 간의 10km 정도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선로가 완성된다면 수원-부산 이동시간은 기존 2시간 43분에서 28분 줄어든 2시간 15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에서의 운행 횟수도 기존 8회에서 18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서정리-지제 간의 노선이 개통된다면 수원에서도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훨씬 간편해져 시민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부터 서수원까지, 20년의 약속

15년 가까이 논의됐던 ‘신분당선 수원 광고-호매실 연장사업’계획이 드디어 확정됐다. 2021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연장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2006년에 처음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하지만 이후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실시된 예비타당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분석(B/C)값이 1을 넘지 못한 0.83에 그쳐 사업성 부족으로 좌절됐다.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광역교통시설 5,000억 원을 부담한 호매실·광고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수원시에 사업 진행을 요청했다.

이후 국토부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재기획용역을 추진,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경기도와 수원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에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제외됐고, 수원시민들은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수원시는 포기하지 않고 T/F팀을 조직해 신분당선 사업 착공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고, 2019년 4월에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을 대응하고자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의 신분당선 예비타당성조사 공동대응 용역을 추진했

수원역으로 들어오는 KTX 열차(2021.9.4. 수원시 포토뱅크)



예타 통과를 환영하는 호매실 주민들(2020.1.15. 수원시 포토뱅크)



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조사 기간 단축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종합평가 기준치 조정, 경제성·정책성·역균형 분석 결과를 종합해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인 AHP 기준을 조정했다. AHP가 0.5를 넘으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됐다는 뜻이다.

2020년 1월, 드디어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B/C값 0.83, 정책성평가(AHP) 0.518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으로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수원시민들, 특히 서수원권 시민들의 교통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구간이 개통되면,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7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구간을 버스로 이용할 때보다 100분에서 약 5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수원시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사업이었기에 예타 통과 당시 수원시민 그리고 관계자들 역시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한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수원시민의 간절한 마음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_\_\_\_\_이제 신분당선 20년 1월에 예타 평가했을 때, 실제로 이제 호매실 지역에서 전화 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했어요. 그럴 때 좀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죠.<도시교통과 주무관>

민선 5~7기 동안 많은 철도 노선들이 개설, 개통됐다. 10여 년간 수원시민들의 삶은 더욱 편리해졌고, 철도망을 통해 가고 싶은 곳으로 더욱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수원역이 처음 생겼던 1905년부터 지금까지, 수원의 철도들은 시민들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릴 것이다.



당수동 시민농장 다래기 장터(2018.9.15. 수원시 포토뱅크)

아가위 나무에서  
불어온 씨앗이  
탑골에 닿기까지

2013년 당수동에서 10년 후 현재의 탐동까지, 시민농장은 모든 수원시민이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치유 쉼터이자 이웃과 가족의 화목을 다지는 공간, 그리고 자연의 놀라움을 선사하는 배움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 불모지에 새 생명을 심다

아가위나무, 당수(棠樹)가 많아 이름 붙여진 당수동(棠樹洞)에는 국유지를 대부한 업체의 불법행위로 약 30만 평의 땅이 황무지로 변해 가는 중이었다. 쌓여가는 쓰레기와 함께 아무도 찾지 않게 된 땅은 2012년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의 손에 맡겨졌고 이들은 시민과 함께 이 땅에 새 생명을 심어 가꾸기로 했다.

누구나 그렇듯 시작은 미약했다. 광활한 터를 한 번에 일구는 것은 불가능했고 작은 텃밭 일부를 시민과 나누는 것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수동에 농장이 운영된다는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확산됐다. 도심 속 자연을 찾아 헤매던 많은 시민이 당수동을 찾았다.

\_\_\_\_\_ 처음에는 저희가 땅이 너무 크니까 다 할 수는 없어서 텃밭만 운영을 하다가 사람들이 호응도 좋고 이러니까 이제 부자 수도 늘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오니까 불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경관도 같이 계속 심어서.<농업기술과 최민화 팀장>

넓은 부지를 농산물 경작지로만 일구기보다 흘린 땀을 식힐 수 있는 경관 단지도 함께 운영했다. 경관 단지의 풍경은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2017년경에는 연간 4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가 됐다.

작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은 어떤 작물을 심을지 직접 구상하고 관리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저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는 곳이라 여겨질 수 있는 경관단지의 작물들을 농작물들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꽃과 열매가 익어갈 때는 눈과 마음을 쉬게 해 주는 풍경이 되고 추수의 계절에는 시민들에게 수확을 경험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

\_\_\_\_\_ 사람들은 연‘꽃’이라 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연‘근’을, 하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이거든요, 농작물이랑 연계된 작물들을, 메밀,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냥 꽃만 보여 주는 게 아니라 농업을 통한 경관 작물 이런 걸 보여 주고 싶어서, 메밀, 연꽃, 보리, 뮌헨화도 했고요.<농업기술과 최민화 팀장>

‘나의 작은 숲 당수동 시민농장’-홍재호 작품(2018.12.27. 수원시청 보도자료)



아스팔트와 회색 벽 사이에서 흙 마주할 일 없는 시민들에게 첫 농사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모종을 구매하는 방법부터 수확하는 방법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자연과 공동체 안에서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이용규칙 교육도 중요한 꼭지이다. 자연환경과 농민의 생계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닐과 화학비료, 농약은 금지됐다. 교육을 통해 시민들은 자연과 이웃을 배려하는 길로 한걸음 더 내디뎠다.

### 당수에서 길러 탐골에 이양하다

\_\_\_\_\_당수동은 저희가 잘 운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수동 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원래 공공주택지구는 소식이 없다가 여기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다. 이렇게 딱 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공공주택지구가 되는 거예요.<농업기술과 최민화 팀장>

대부 기간 이후 매입까지 고려하던 와중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다. 이 소식이 신문에 알려지자 많은 시민과 단체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시민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감정을 가지고 있던 염태영 시장은 마침 기간이 만료되는 탐동의 서울대 축산연구소 부지 대부를 제안했다. 시유지 중에는 큰 부지가 없고 개인 농가를 임대받기에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국유지가 제격이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의 부지가격 조율과 가족사육 폐건물 철거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됐고 마침내 수원시의 두 번째 시민농장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30만 평이라는 큰 터를 수원 내에서 구하는 것은 불가능 했다. 규모가 축소된 탐동에서는 가구당 10평씩 경작하던 면적이 5평으로 줄어들었고 경관 단지도 대폭 축소됐다. 그럼에도 당수동에서의 추억을 이어가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은 탐동을 찾았다. 오히려 초보자들에게는 5평 규모가 적당했고 탐동이 당수동보다 교통편이 좋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기 있다.

### 자연 속 상생과 순환의 실천

시민농장은 자연을 맛보는 동시에 주변과의 상생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장이다. 모종을 어디에서 구입하는지도 모르는 초보 농사꾼들을 위해 인근에서 육묘하는 농업인들이 일정 기간 모종 판매를 진행했다. 농업인들은 육묘한 모종을 판매해 수익을 얻고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모종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체험자들이 서로 수확물들을 나누는 장터가 열리기도 했다. 당수동 시민농장의 ‘다래기 장터’는 서로의 잉여농산물을 맛볼 좋은 기회였다. 자연과 나눔에 초점을 맞춘 만큼 수확물 이외에 시민이 직접 제작한 DIY 물품을 판매하는 매대도 운영했다. 시민들은 직접 재배한 작물들을 장터에서 나누고 실제 생활 속에서도 나누며 이웃 간 활기를 더했다.

\_\_\_\_\_이웃 분들이랑 서로서로 나눔을 실천하세요. 나눔을 실천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좋았다 이런 것을 홈페이지 같은 데에 올려 주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기뻐던 것 같아요.<농업기술과 최민화 팀장>

시민농장은 누군가에게 직업을 제공하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많은 체험자가 농장에 방문하면서 부산물들이 발생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부산물들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직을 모집했다.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이용이 일자리 창출까지로 연결된 것이다.

시민농장에서는 자연의 상생과 순환을 배울 수 있다. 주중에는 수원시 내 어린이집 차량으로 좁은 도로가 뻑뻑이 찢다. 시민농장은 도시 아이들이 접하기 어려운 흙과 자연, 작물들을 가까운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연교육의 토대가 됐다. 사전 교육에서는 농산물에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작물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도심에서는 직접 길러볼 기회가 없는 다양한 꽃들이 농작물들과 함께 꽃피어 있을 때 그 조화 또한 농장의 소소한 풍경이 된다.

\_\_\_\_\_꽃 중에서도 해충을 못 오게 하는 꽃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메리골드 같은 게 어떨 때 가보면 꽃이랑 작물이랑 이렇게 같이 심어 놓은 교육 잘 들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농업기술과 최민화 팀장>

길거리에 버려진 낙엽들도 시민농장에서는 귀중한 쓰임이 된다. 당수동 시민농장에서는 가을에 낙엽을 모아 퇴비를 만들었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식물들에게는 중요한 영양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시민농장에서는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맺어 가는 상생과 선순환의 모습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탑동 시민농장 전경(2022.1.19. 수원시청 보도자료)



당수동 경관단지 내 연꽃(2017.7.12. 수원시 포토뱅크)



## 공동체의 발길이 머무르는 흙밭

수원은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가 아주 밀집된 도시이다. 단적인 예로 바로 옆 용인과 비교해 6분의 1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수는 더 많다. 뻘뻘한 사람들 사이의 삭막한 관계는 푸른 녹지공간 안에서 허물어질 수 있다. 비닐과 화학비료, 농약이 금지된 밭에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꾸준한 방문과 교류 안에서 소외된 이들은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취미를 공유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했다.

\_\_\_\_\_ 할머니가 전에 오셨는데 텃밭하고 나서 자기 우울증이 치료가 됐다 고 가실 곳이 없고 노인 분들은. 그런데 매일매일 갈 데가 있고 와서 옆에 밭에 얘기할 사람 있고, 자기가 수확한 작물 나눌 수도 있고 여기 오면 우울하지 않고 기분 좋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또 저희가 출장 나가거나 이리저리 다 해 주세요. 이렇게 붙잡고서 하하하.<농업기술과 최민화 팀장>

자연을 찾는 가족들에게 시민농장은 시간과 비용이 모두 절약되는 소중한 장소가 된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에 차등 없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다.

당수동 경관단지(2015.10.5. 수원시 포토뱅크)



농장을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뜻자리뿐이다. 땀 흘려 일하다가 힘들 때 잠시 쉬며 경관 단지를 바라보며 바람을 맞이할 수도 있다. 치열한 일상에서 벗어나 가지는 여유는 가정의 화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_\_\_\_\_ 저녁때 앉아서 보면 연꽃단지가 이렇게 앞에 짝 펼쳐져 있거든요. 그 앞으로 저쪽 아파트들이 이렇게 짝 보여요. 되게 시민이 황홀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 가족 분들끼리 얘기 안 하시는데 여기 다 같이 와서 자녀들 사춘기 이라면 엄마랑 애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와서 이제 작물 같이 심으면서 얘기도 해서 가족들 사이도 좋아졌다는 얘기도 하시고.<농업기술과 최민화 팀장>

### 앞으로도 이어질 치유의 공간

지난 10년간 시민농장은 수원시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어 왔다. 실제로 몸이 아픈 시민이 직접 유기농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곳을 찾기도 했다. 아토피를 가진 아이를 위해 경작을 시작해 실제로 효과를 봤다고 시에 고마움을 표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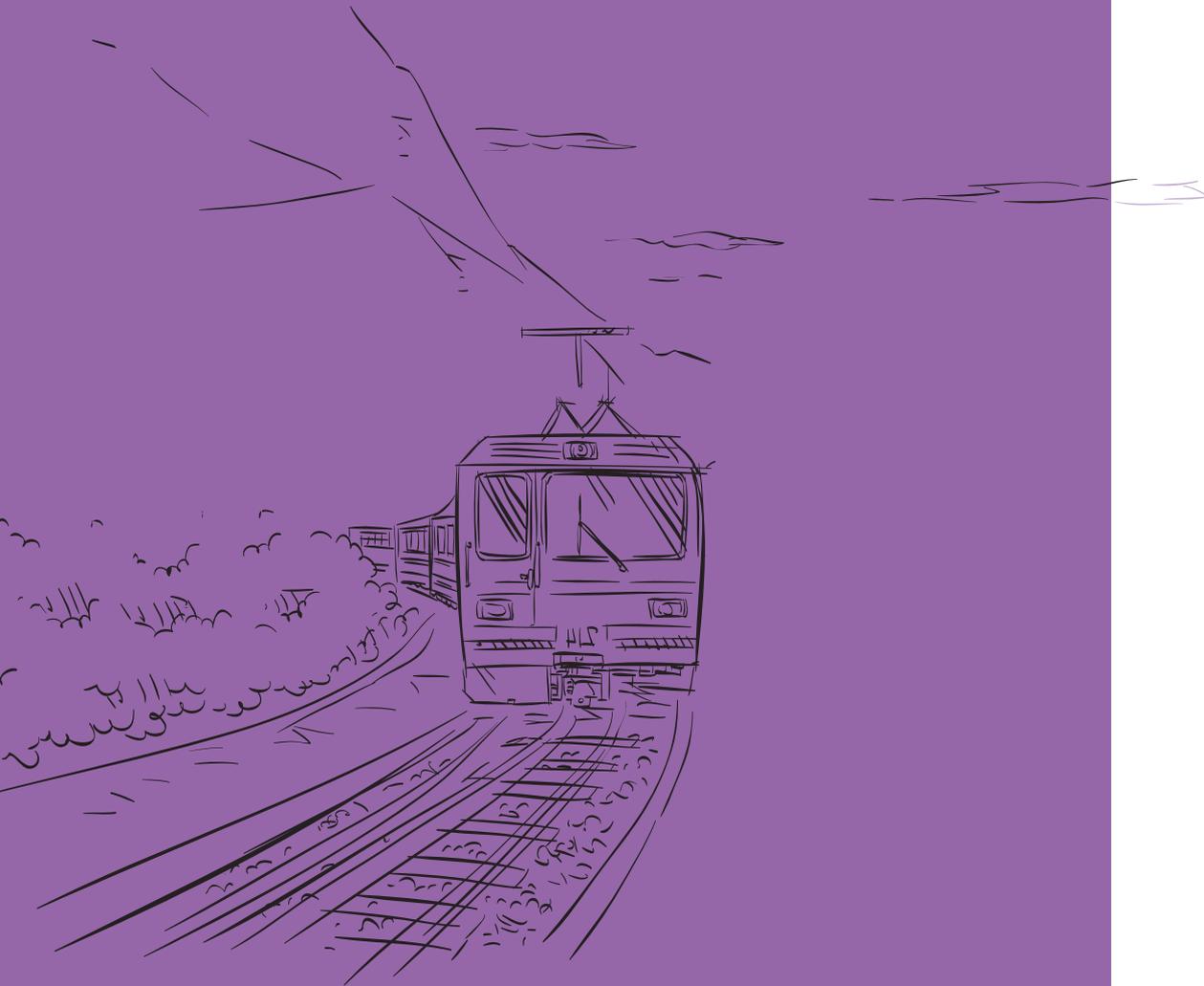
당수동처럼 탑동의 시민농장 또한 5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2023년 이후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부지가 어떻게 다시 쓰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은 공간에서도 시민에게 힐링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치유를 책임진다는 사명감 아래 자연 속 시민농장은 사람들의 관심과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탑동 시민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시민들(2020.6.22. 수원시 포토뱅크)

“현장에서 들려 드립니다.”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두 배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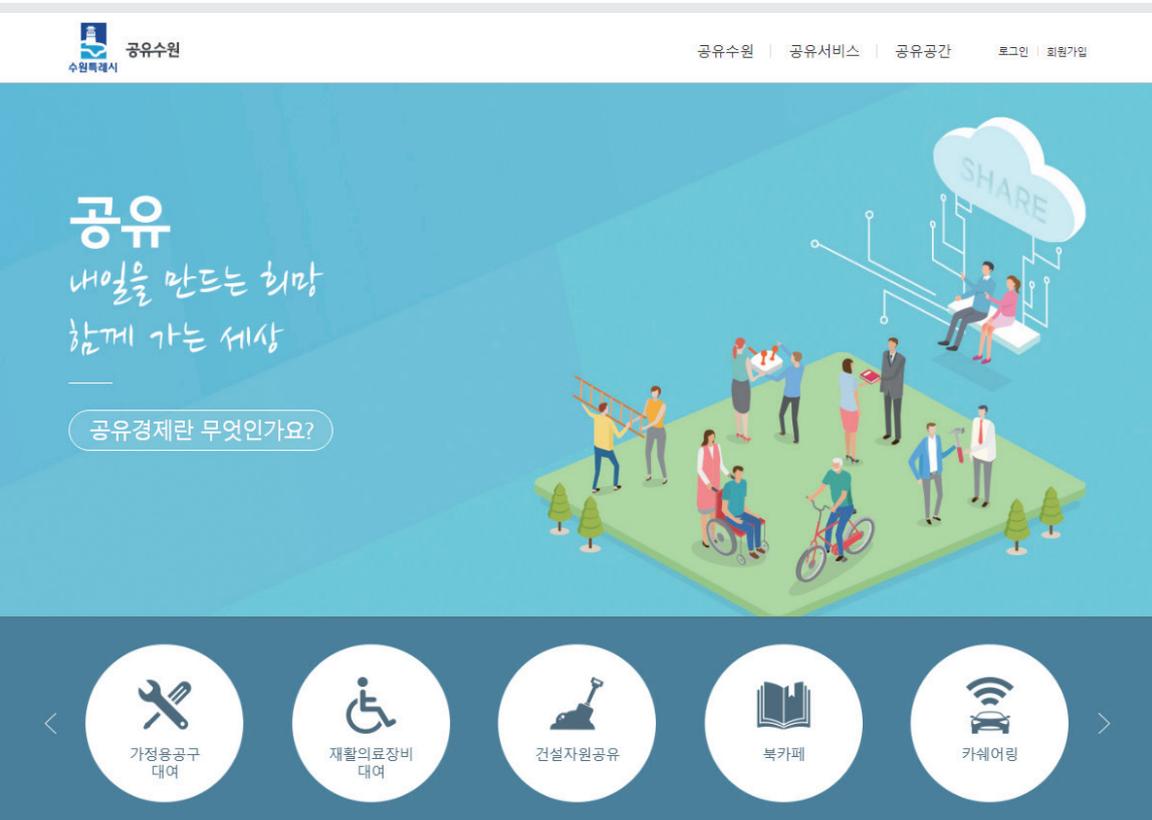


## 공유의 모든 것

수원시는 “이런 것도 공유한다고?”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다양한 공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타 시군의 공유 사업들과 달리, 수원시에서는 다양한 공유 사업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바로 ‘공유수원’ 플랫폼 덕분이다.

###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공유수원 플랫폼

공유수원은 수원시의 모든 공유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다. 먼저, 공유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원시의 모든 공유 서비스 목록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물품(14개 항목), 공간(7개 항목), 교통(2개 항목), 지식 및 재능(7개 항목) 등 총 4가지 분야로 나뉜 30가지의 공유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예약 방법 등 해당 공유 사업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공유수원 홈페이지 화면(2022.3.16. 공유수원 홈페이지)

예약도 해당 공유 사업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한 번에 가능하다. 타 지자체 공유 사업의 경우 예약 시 분야별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공유 사업에 대한 홍보도 어렵고, 어떤 공유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에 파악이 불가능하다.

수원시의 공유 사업도 처음부터 이런 플랫폼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유수원 플랫폼은 2017년 개설됐는데, 수원시의 공유 사업들은 2017년 이전부

터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유수원 플랫폼은 2016년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공유 사업 활성화 및 공유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2017년 12월에 개설됐다. 처음 공유수원 플랫폼을 오픈했을 때의 사업 수는 19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0개에 이른다. 수원시는 2016년 조례 제정 이후 꾸준히 플랫폼을 운영해 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원시의 공유수원은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다양한 공유 사업들을 이용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이 금도끼가 네 것이냐? 공구 도서관과 물품대여

수원시에는 특이한 도서관이 있다. 바로 공구 도서관이다. 공구 도서관이란 말 그대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주듯이 공구를 빌려주는 시설이다. 갑자기 집안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거나, 가구를 새로 구매해 조립할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구가 없으면 매우 난감하다. 그렇다고 모든 공구를 집에 구비해 놓기는 어렵고, 요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는 특히 더 어렵다. 공구 도서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공구 도서관에서는 전동 드릴을 포함한 망치, 절단기, 세척기, 사다리 등 다양한 종류의 공구를 대여할 수 있다. 공구는 홈페이지에서 비치되어 있는 공구의 목록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진행한 뒤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 기간은 3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면 해당 도서관에서 공구를 빌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물품대여도 진행하고 있다. 슬기로운 공유생활 물품대여는 혼자 사는 청년들이 필요할 만한 물품들을 대여해 주는 사업이다.

불법촬영 탐지기, 캐리어, 전동드릴, 운동매트 등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필요한 물건들로 이루어져 있어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처럼 수원시민들은 공유수원을 통해 꼭 필요한 도구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공구들과 물품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공유경제를 실천하고 있다.

### 청년들을 위한 공간대여

공유수원에서는 물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들도 대여해 준다. 주차장, 텃밭,

청사까지. 그 중에서 청누리와 청년바람지대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대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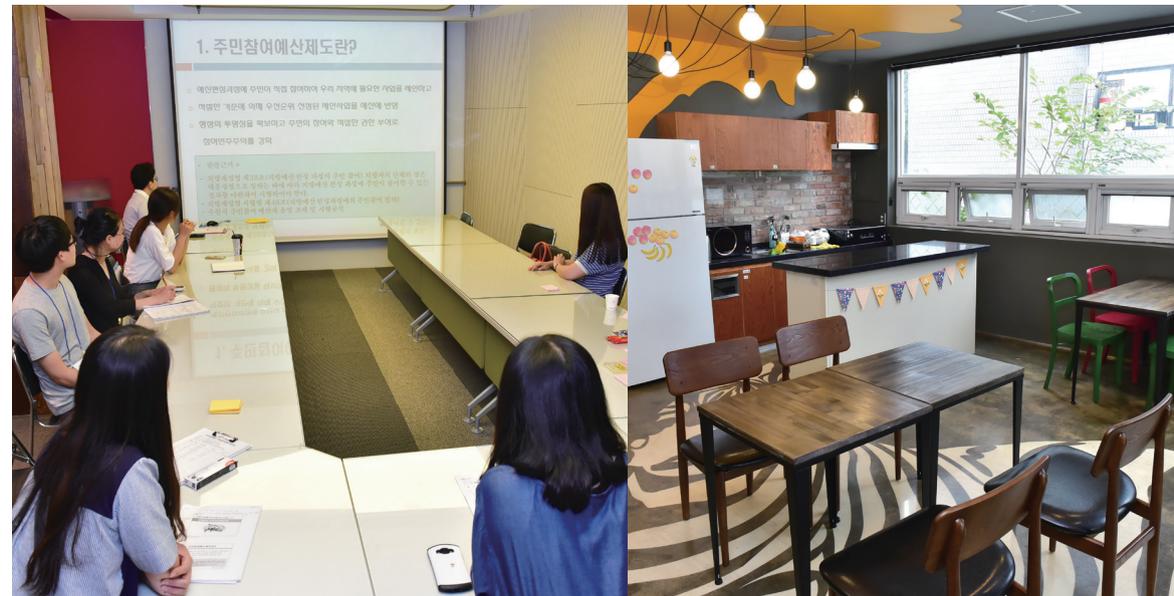
수원시청년지원센터로 시작한 청년바람지대는 수원시에 있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센터이다. 강연, 회의가 가능한 세미나실부터 강연, 행사, 공연 등이 가능한 넓은 홀, 복사기, 노트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인덕션과 오븐, 냉장고 정수기 등 주방용품이 있는 공간까지 다양한 공간들이 대여 가능 목록에 올라와 있다.

청년바람지대는 다양한 시설도 큰 장점이지만, 청년바람지대의 회원이라면 무료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회의 또는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청년들이

청롱마을 창작센터 내 공구도서관(2016.4.29. 수원시 포토뱅크)



청년바람지대 내 공유공간(2016.7.15. 수원시 포토뱅크)



부담 없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코워킹, 공방, 일자리 정보, 창업 준비 등의 정보 공유와 협업이 이루어지고, 청년바람지대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청년 문화 공간으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수원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청년들의 기회를 열어 주는 특별한 공간 공유이다.

### 맛있는 음식은 나눠 먹어요, 공유냉장고

공유냉장고는 시민의 의견에서 시작된, 민간 부문의 주도로 시작된 사업이다. 마을 내에서 먹거리를 공유해 식량 손실과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주민의 의견으로 2017년에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공유하는 방법은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싶은 음식을 가까운 공유냉장고에 가져간 뒤, 해당 공유냉장고의 관리자에게 음식물을 접수한다. 그리고 냉장고 옆의 기부물품 접수대장에 품목명,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을 적고 음식을 넣으면 된다. 유통기한이 이를 이내로 남은 음식이나 주류, 약품류, 건강보조식품, 불량식품 등을 제외한 음식들만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져가는 방법은 별다른 절차 없이 필요한 음식을 바로 꺼내 가면 된다.

공유냉장고의 위치는 보통 노인과 저소득층, 다문화주민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구시가지 위주로 설치돼 있고, 2022년 상반기 기준을 기준으로 총 3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공유냉장고는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2020년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첫 도입 이후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답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권선구 서호동로에 위치한 공유냉장고 4호점(2021.6.4. 수원시 포토뱅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냥드림’ 코너의 원조가 바로 수원시의 공유냉장고이다. 이처럼 수원시의 공유냉장고는 대 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수원시의 대표 공유 사업이다.

공유냉장고는 물건이 아닌 먹거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에서 음식물쓰레기 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원시의 공유냉장고는 공유를 통해 환경보호, 절약을 실천하는 장소이자 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됐다.

공유수원 플랫폼은 2021 협치 정책 마켓에서 '풀뿌리 협치 대상'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렇듯 공유수원 플랫폼은 수원시민의 삶 속에 다양한 공유의 가치를 퍼뜨렸으며 수원시의 공유경제를 활발하게 활성화시켰다. 다양한 물품, 공간을 공유하며 사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은 물건 공유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수원시는 공유수원을 통해 나눌수록 빛나는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공공주차장 내 공유 자동차(2016.12.30. 수원시 포토뱅크)

소유에서 공유로,  
환경과 수원시민이  
함께하는 나누기

수원시는 ‘공유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카셰어링 사업인 나누미카도 같은 맥락인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나누미카는 차가 없는 시민들, 협소한 주차공간,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난, 교통 소외지역 등 수원시 내 차량들과 관련된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했다.

카셰어링은 쉽게 ‘차량 공유’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 단위로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와 달리, 차량을 30분 단위로 예약할 수 있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에서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예약하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

카셰어링 업무협약(2016.6.21. 수원시 포토뱅크)



### 수원시와 함께 더 편리하게

수원시의 카셰어링 사업은 전국 최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민간업체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했던 기존의 카셰어링과 달리, 수원시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전 도시를 대상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누미카는 민간 카셰어링 업체들과 달리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역 환승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에서 나누미카 전용 주차공간인 ‘그린카 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이 더 자주, 다양한 위치에서 편리하게 나누미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누미카는 공공서비스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봉사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본인 소유 차량을 매각한 시민, 장애인 가족 등이 차량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그린카 측에 제출하면 일정 시간에 해당하는 무료 쿠폰을 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 나누기의 시작

수원시 카셰어링 사업은 2011년 11월 24일 KT·KT렌탈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시작됐다. 수원시 카셰어링 현장 실험, 사전준비, 효과분석 및 서비스 공동 진행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고안하기 위해 2012년 1년간은 시범 사업으로 운영됐다. 시범 운영 이후 카셰어링이라는 생소한 이름을 버리고,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2013년 사업 명칭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182건의 응모작 중 수원시민, 관련 직원들의 선호도 투표를 통해 ‘나누미카’라

는 새로운 이름이 탄생했다. 이후 2016년 6월 21일, 카셰어링 이용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선을 위해 그린카와의 업무협약을 맺은 뒤 수원시와 그린카가 함께 나누미카를 운영해 오고 있다.

카셰어링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탓인지 사업 초기의 나누미카는 회원자수가 1,184명에 불과할 정도로 성적이 부진했다. 그러나 4년 후인 2016년에는 회원수가 크게 증가해 1만 7,085명으로 집계됐고, 2021년 현재 3만 7,771명으로 집계되어 2012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회원 수가 31배 이상 증가했다. 회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월 이용건수도 2016년 3,506건에서 2021년 1만 2,819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나누미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장했고, 현재는 수원시민들의 발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누미카 사업 실적

| 구분   | 운영대수 | 가입회원   | 월 이용건수 | 이용 장소 수 |
|------|------|--------|--------|---------|
| 2012 | 30   | 1,184  | -      | 28      |
| 2016 | 117  | 17,085 | 3,506  | 75      |
| 2021 | 282  | 37,771 | 12,819 | 92      |

### 나누미카의 나비효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공유경제 개념이 많이 축소됐다. 나누미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잠시 사업이 중단됐고, 지난해에 비해 사업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미카는 계속해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수원시민의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공유자동차(2016.12.30. 수원시 포토뱅크)

나누미카는 지구에도 이로운 효과를 만들어낸다. 카셰어링만으로 매년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카셰어링 차량 1대당 12.5대의 개인 차량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연 744톤가량의 이산화탄소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누미카는 타 렌터카나 카셰어링에 비해 손쉽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더욱 환경 친화적이다. 나누미카는 2016년 그린카와의 업무협약식과 함께 친환경 카셰어링 사업으로의 변모를 꾀했다. 업무협약 당시 전기차 10대를 추가로 도입했고,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차량 282대 중 105

대가 하이브리드, 18대가 전기차이다. 내연자동차 한 대를 전기차로 바꾸면 연간 약 2.3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어 시민들이 전기차를 자주 이용할 수록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공유경제 차에도 어쨌든 내연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연기관이 다 빠지고, 다 전기차나 수소차 위주로 공유경제가 가능하다 보니 그것이 진짜 공유경제의 최종적인 저회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맞춰서 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기후대기과 육민수 주무관>

현재는 나누미카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연자동차와 전기차의 비율이 5:5정도로 비슷하지만 앞으로 친환경, 전기차를 더 증대할 예정이다. 나누미카는 단순히 차를 공유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생할 수 있는 공유 사업으로 달려갈 것이다.



영화교회 내 공유주차장(2019.9.23. 수원시 포토뱅크)



달리고 있는 공유자동차  
(2016.12.30. 수원시 포토뱅크)

나눌수록  
넓어지는  
마법 같은 주차장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두 배 됩니다

최근 광고신도시, 행궁동 등 수원 내 여러 장소들이 소위 ‘핫플’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에 자연스럽게 인접한 타 시군과 서울에서 온 방문객들이 늘어났다. 행궁동의 경우, 주말이면 카페, 식당 할 것 없이 어디서나 줄을 서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방문객이 많다. 방문객이 많아짐과 동시에 수원시에는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바로 ‘주차난’이다.

자동차 보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차난은 이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흔한 광경이 됐다. 광고 카페거리의 경우 각 카페별로 확보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적고, 근처 공용주차장의 이용가능면은 66면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주차공간이 넉넉지 않아 광고 카페거리는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주차, 불법주차 차량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주차난을 겪게 됐다. 이런 주차난을 해결해 준 것은 바로 수원시 주차공유 사업이다.

### 주차장도 나누는 공유도시 수원

주차공유 사업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주차장 중 야간 또는 특정 요일 등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공유하여 주차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교회 주차장, 학교 주차장 등 시설별로 수요가 적은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개방시간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교회의 경우, 방문객이 많은 일요일에는 개방을 하지 않는다. 공공시설의 경우 업무시간 외, 오후 6시 이후부터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원시는 2017년 12월부터 주차공유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1월, 교동 중앙교회와 처음으로 ‘공유 주차장 업무 협약’을 체결, 94면을 공유하기로 하며 본격

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시작한 지 1년 만인 2018년 12월 기준 7개소, 566면을 조성하여 운영했다. 앞서 언급됐던 광고카페거리는 광고카페거리 인근 시은소교회가 주차 공유 협약을 맺으며 주차난이 일정 정도 해소됐다. 시은소교회는 수원시와 주차공유 사업 협약을 체결한 10번째 교회이다. 중앙교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5월, 수원제일교회 · 수원영락교회 · 숲과샘이있는평안교회(조원동) · 영화교회, 2019년 평안교회(호매실동) · 제일교회 · 사명의교회, 2020년 3월 소망교회(권선동)와 잇달아 주차장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 말 기준,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과 교회, 학교, KT&G, LH 등 다양한 협의체와 협약을 맺어 주차공유 사업으로 확보된 주차면은 1,200여 면에 이른다.



주차 공유 사업 협약식(2018.5.11. 수원시 포토뱅크)



주차 공유 사업 협약식(2019.3.6. 수원시청 보도자료)

## 다같이 행복한 ‘나눔’

시에서 꾸준히 공영주차장을 늘리고 있지만, 용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주차면당 많게는 1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통 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제작하려면 약 24억 원이 소요된다. 2019년 기준으로 수원시 주차공유 사업으로 인한 직접효과는(공영주차장 조성비 절감효과) 314억~526억 원, 간접효과(배회주행 처리비용 및 불법 주차자량 운행비용)는 4억~13억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는 시의 재정을 아낄 뿐만 아니라 유휴상태의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공유경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원시는 적극적으로 주차공유 사업을 추진해 적은 예산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수원시는 주차공유 사업으로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주차장 시설 개선비용으로 사용한다. 주차장 나누기에 동참한 공유주차장의 낡은 조명 시설이나 CCTV, 주차장 차단기 등을 설치, 교체를 함으로써 시설 개선을 지원해 준다. 이처럼 주차공유 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주차난을 해소하고, 수원시는 적은 예산으로 시 곳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소유자는 지원을 받아 주차 시설을 개선한다. 세 주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즉 일거삼득인 것이다.

1년 동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였는지, 주차공유 사업은 초반부터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시민·공직자·언론인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해 추진한 사업들 중 최고의 사업을 가리는 ‘2018 시정베스트 7’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수원시 주차공유 사업은 지자체 타 사업들에 비해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도 아니고 진행 및 준비 과정이 긴 사업도 아니다.



장인동 공영주차장(2020.5.19. 수원시 포토뱅크)

그렇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 결국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드는 사업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장난감도서관 원천점(2017.7.7. 수원시 포토뱅크)

장난감  
빌려 가세요,  
모두가 함께 쓰는  
장난감

### 모두의 장난감, 공유하는 도서관

수원시에는 특별한 도서관이 있다. 바로 장난감 도서관이다. 일반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 주듯이, 이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해 준다.

세상에 장난감을 싫어하는 아이는 없을 것이다. 또한 장난감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과 사랑은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장난감에 쉽게 몰입하는 만큼, 장난감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은 굉장히 빠르게 식는다. 따라서 아이들은 언제나 새로운 장난감에 관심이 생기고,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매일 집에 쌓이는 장난감들과 구입비용을 생각해 보았을 때 매번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기란 어려운 일이다. 장난감 도서관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즉, 자라나면서 다양한 장난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의 놀잇감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장난감 구입에서 오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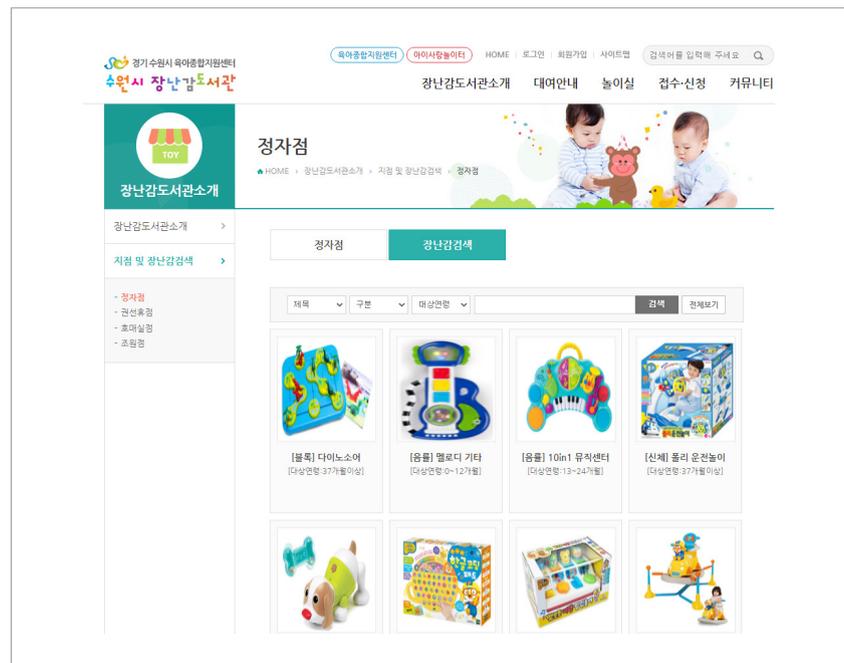
장난감도서관 호매실점 개관식(2014.12.16. 수원시 포토뱅크)



## 장난감 도서관, 첫 발을 떼다

장난감 도서관이 수원에 처음 문을 연 것은 2009년 매교점에서였다. 그러나 지금처럼 장난감 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7개의 장난감도서관이 수원에서 문을 열었고, 2017년 원천점이 개관하며 수원시에는 총 9개의 장난감 도서관이 운영 중이다.

장난감 도서관은 연회비 1만 원을 내면 장난감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들에 한해 모든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우선 회원 등록을 한 후,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집 근처의 장난감도서관에 방문 예약 신청을 한다.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 내 장난감 검색 화면(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

이후 그 시간에 맞추어 도서관에 방문해 원하는 장난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여가 진행된다. 가장 대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난감 도서관인 권선휴점과 원천점 같은 경우는 1만 5천여 점의 장난감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각 지점별로 구비되어 있는 장난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장난감 대여 업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방도 운영 중에 있다. 장난감 대여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유놀이실 이용 신청을 하면, 신청 시간에 맞추어 놀이방에 방문해 아이와 엄마가 장난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 수 있다. 또, 놀이방에서는 일반적인 자유놀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강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영통점의 경우 ‘꾸미꾸미 책놀이터’라는 이름으로 동화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조원점에서는 기관 자유놀이, 악기놀이, 미술놀이, 유아체육 등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즐길 수 있어 유대감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부모의 마음으로

장난감 도서관은 언제나 수요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인 부모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대여 사업이라는 특성상, 물품의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소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뿐만 아니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대상이 어린 아이들이란 만큼 안전과 위생에도 많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장난감은 아이들이 맨손으로 가지고 놀거나 종종 입에도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과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안전과 위생은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됐다.

\_\_\_\_\_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코로나 감염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독, 방역, 이런 부분에 제일 신경을 써요. 사실상 가장 큰 주안점은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로이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만큼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아동이 항상 손에다 넣고 입에다 넣고 그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종류의 장난감을 제공하느냐보다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빌려가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아동들이 이렇게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제일 더 역점을 둔다고 본다면 그것에서 차이가 있겠죠.(보육아동과 김태진 팀장)

### 공유 그리고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물건을 공유한다는 특성 때문에 장난감 도서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 장난감을 직접 보고 대여해 가는 방식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장난감을 미리 신청하는 식으로 운영 방식이 변경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장난감 도서관이 잠시 문을 닫았을 때, 개장 요청과 문의가 끊이지 않았을 정도로 수원시에서 장난감 도서관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 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타 시군에 비해 많은 도서관 운영 수, 다양한 장난감들과 체험프로그램,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운영 방식 등 수원시의 장난감 도서관은 아이들과 부모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들을 둘러보고 있는 시민들(2009.9.23. 수원시 포토뱅크)

들의 마음, 둘 다를 만족시켰고, 공유경제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수원시 장난감 도서관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든든한 터전이자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수원시청 전경 (2022.1.12. 수원시 포토뱅크)

# 공유로 완성되는 시민청사

회의나 전시, 소모임 등을 개최할 때 ‘공간’이 없으면 모일 수 없다. 모임 시 알맞은 공간 찾기는 모임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모임 목적에 맞추어 매번 마땅한 장소를 고르기란 쉽지 않고, 대여 금액도 비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원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바로 공공청사 시민공유 사업 덕분이다.

## 공유의 첫걸음, 수원시에 달다

공공청사 시민공유 사업은 공공청사 내 회의실, 강당 등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공공청사 시민공유 사업이 시작되기 전, 수원시에서는 종종 청사별, 센터별로 시민들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대여가 아니었고,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대여와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평일 오전과 오후 공공기관 업무 시간에만 개방되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공공기관 장소 대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염태영 시장은 이를 더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시민공유 사업을 민선 7기 약속 사업으로 선정했다. 공공청사 시민공유 사업은 2015년 7월,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철학 아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2년 현재 공공청사 시민공유 사업은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2015년에는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듯 공공청사 공유 사업에서 수원은 선도적인 면모를 보였다.

## 더 편리하게, 더 많이

The screenshot shows a two-step reservation process. Step 1, '예약일자' (Reservation Date), features a calendar for March 2022. Dates from the 27th to the 31st are highlighted in yellow, indicating availability. Step 2, '예약시간' (Reservation Time), includes dropdown menus for start and end times, a total duration field set to 0, a checkbox for '비영리 공공목적' (Non-profit public purpose) which is unchecked, and radio buttons for '별/년방기 사용' (Use for special/annual rental) with '미사용' (Not used) selected. A '총금액(원)' (Total amount) field is also set to 0. Navigation buttons like '목표으로' and '예약신청' are visible.

수원시 통합예약시스템 예약 화면(2022.3.17. 수원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공공청사 공간 대여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공유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대여가 가능한 장소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예약은 전화, 방문, 수원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세 가지 경로로 가능하다. 수원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선 지역별, 공간별 공유 공간 관련 정보와 이용요금, 수용인원, 주차면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수원시 공공청사 시민공유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타 지자체에 비해 이용 가능한 시설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다.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의 수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타 지자체 대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수가 많은 것은 시청, 구청과 같이 큰 규모의 시설들뿐만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여 가능한 공간이 많아 그만큼 이용자 수도 많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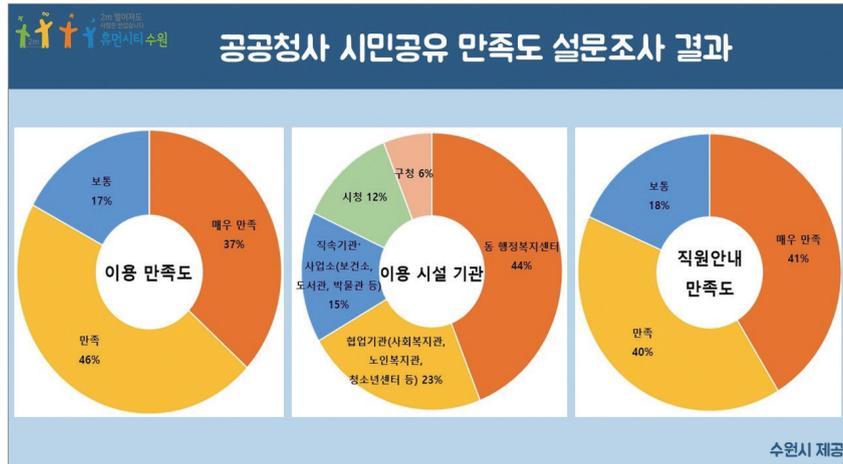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104개 청사, 총 241개의 공간이 대여 가능하도록 운영 중에 있다.

\_\_\_\_\_ (공공청사 공유 사업은) 수원시에서 다른 지자체 대비 좀 선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시설들. 예를 들면 대강당,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공간도 다 올라가 있거든요.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박명희 팀장>

또 사람들이 공간 대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바로 가격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간 대여비가 저렴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큰 공간일수록 대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선뜻 빌리기 쉽지 않다. 이에 비해 수원시 공공청사 공유 사업에서 운영하는 공간들의 대여비는 일반적인 타 공간 대여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청사 공간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공간은 대회의실, 대강당같이 넓은 공간이다. 세미나, 공연을 열거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좁은 곳보다 활용도가 높고, 타 공간 대여비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회의실은 보통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에 대여할 수 있고, 큰 공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홀은 15만 원 선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이용자들이 저렴한 대여비용을 큰 장점으로 꼽는다고 한다.

\_\_\_\_\_ 이게 금액이 착하잖아요. 다른 데 가서 공간을 빌리면 몇 십만 원을 줘야 하는데, 비용 자체가 저렴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죠. (실제 이용자분들이) 이용해 보니까 너무 좋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박명희 팀장>

그럼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공청사 시민공유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2021.9.23. 수원시청 보도자료)

공공청사 시민공유 사업은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청사 공간 대여를 주말과 업무 시간 외 늦은 오후 시간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 동안은 직원들이 업무 시간 외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직원 외 자원봉사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언급됐듯이 타 지자체 대비 운영 공간 수가 많다 보니 그만큼 필요한 인력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는 더욱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공간 대여 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고려해야 하고, 또 이전보다 줄어든 공간 대비 이용 가능 인원수, 방역지침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에게 철저히 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공공청사 시민공유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21년 하반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가 만족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통’ 응답까지 더한다면 불만족은 단 1%도 나오지 않은,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원 안내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족도 81%, 이용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불만족은 1%도 나오지 않았다. 이용 시설 기관에 대한 응답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은 여러 기관에서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기관 내 시설들을 이용하며 1%의 불만족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지동 행정복지센터 내 소회의실(2021.11.29. 수원시 포토뱅크)



이렇게 타 지자체 대비 많은 시설을 운영하며, 80% 이상이라는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다 ‘적극 행정’ 덕분이라고 한다. 근무시간 외 근무 등의 특성으로 직원들에게는 쉽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사업에 대해 알 수 있게 홍보하고,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안내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관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사업 구상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공공청사 시민공유 사업은 코로나 이후 더 활성화될 것이므로, 현재 주춤한다고 해서 중단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_\_\_\_\_ 만족도 조사를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자체로도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코로나-19 거리두기 여파로 예전에 비해 공공청사 대관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공공청사 시민공유 사업을 지금 현재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설사 지금 대관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아, 수원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공공청사를 대관을 해 주고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라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으니까.<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박명희 팀장>

또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적극 행정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게 느껴져 기피하거나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개념을 알릴 수 있는 게 교육이기 때문이다.

\_\_\_\_\_ 우리가 그래서 실천다짐이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육을 하면 ‘적극 행정이 어떤 내용이구나’, ‘적극 행정이 피곤한 것만은 아니네?’라고 직원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심어 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해요.<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박명희 팀장>

이처럼 수원시의 공공청사 시민공유는 사업만으로도 선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 행정의 개념으로도 선도적이었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공공청사 시민공유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원시에 공유의 발걸음을 퍼뜨릴 것이다.



공공청사 시민공유 포스터(2020.4.27. 수원시청 규제개혁팀 제공)



수원시 공유자전거 타조(2021.3.22. 수원시 포토뱅크)

우리,  
타조  
한 번  
타죠?

수원시에 여기저기 주차되어 있는 보라색 자전거. 수원시민들은 그 자전거들에 다가가 특별한 장치 없이 잠금을 해제하고, 자전거를 탄다. 친환경 도시 수원에서는 시민들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 환경수도 수원, 새로운 생태교통을 꿈꾸다

21세기가 시작되고, 인류는 역사상 가장 급격한 기술 발전 속에 살고 있다. 그 속에서 발전에 함께 따라오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2010년대가 시작되며 본격적으로 친환경,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이동수단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다양한 지자체들의 공유자전거 사업 도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창원시의 ‘누리자’를 시작으로 2009년 고양시의 ‘피프틴’, 2015년 서울시의 ‘따릉이’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공유자전거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공유자전거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0년 중반 이후부터 공유자전거는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에 수원시 역시 공유자전거 사업을 시작하는데, 공유자전거 사업의 후발주자인 만큼 수원시는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 보기로 했다. 현재 수원시 공유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를 도입한 것이다.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들은 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하기 위해서는 스테이션이 필요했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 가야지만 자전거를 빌리거나 반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원시의 공유자전거는 GPS를 이용해 특정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나 반납할 수 있고,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를 바로 타고 이용할 수 있다. 이렇듯 스테이션이 없는 공유자전거는 설치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접근성, 편리성을 증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첫 페달을 밟다

수원시는 2017년 중국의 ‘모바이크’, 싱가포르의 ‘오바이크’와 함께 민간 사업자 운영 방식으로 전국 최초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사업을 시작했다. 1,000대의 자전거로 시작해 5,000대까지 자전거가 늘어났으며, 모바이크의 경우 서비스 가입자 수 32만 725명, 누적 이용 횟수가 544만 2,096회에 달했고, 하루 평균 1만 5,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했을 정도로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사업은 수원시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스테이션 없는 무인자전거 ‘타조’(2020.9.3. 수원시청 보도자료)



무인자전거 타조 런칭행사(2020.9.21. 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시 공유자전거 사업의 성과는 이용 횟수에서도 나타나지만,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처럼 직접적인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시민들은 수원시 공유자전거 사업의 특징인 비고정형 서비스를 강점으로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34%가 공유자전거를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이용하고 있었으며, 공유자전거를 출·퇴근, 등·하교 길에 이용한다는 답변이 전체 답변의 50%를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오바이크가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되며 한 차례 사업이 중단되고, 이후 모바이크의 중국 내 사업 실패로, 모바이크마저 철수해 버리며 수원시 공유자전거 사업은 완전히 중단됐다. 이후 수원시는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동반 사업자를 물색했다. 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또 다시 같은 상황으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국내 기업인 KT, 옴니시스템을 선정했다. 수원시는 인프라와 행정적 지원을, KT는 자전거 운영 플랫폼과 무선통신·잠금장치를, 옴니시스템은 자전거 공급과 사용자 앱 관리 등 서비스를 맡아 2020년 9월, ‘타조’라는 새로운 자전거와 함께 사업을 재개했다.

### 타조가 수원시민의 발이 될 때까지

타조 역시 처음엔 1,000대의 자전거로 시작했으나, 시민들의 수요로 인해 2,000대를 추가 도입해 3,000대의 자전거로 확대 운영 중이다. 또한, 도입 이후 6개월간 사용 인원은 총 3만 4,000여 명, 이용 건수는 17만여 회를 기록할 정도로 성공적인 운영 중에 있다.

수원 시내 곳곳에서 타조와 타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수원시의 공유자전거 사업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 관리 등 앞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들도 있지만, 현재 타조의 성장세를 보면, 타조는 수원시민의 보편적인 이동 수단으로 일상 속에 자리 잡을 것이다. 환경수도 수원, 생태교통의 중심지 수원에서는 오늘도 타조가 열심히 달리고 있다.



주차되어 있는 타조의 모습(2021.3.2. 수원시청 보도자료)

# SUWON eTAXI



수원e택시앱 첫 화면(2022.1.18. 수원e택시앱)

## 방방곡곡 찾아가는 수원 청개구리

2021년 4월 개시한 수원e택시는 관과 민의 적극적 협조와 시민을 위한 끝없는 고민으로부터 출발했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수원e택시는 수원 곳곳을 누비며 바쁜 시민들의 빠르고 안전한 발걸음이 된다.

### 관과 민이 마주하고 고민하다

2021년 12월 30일, 수원시청사에서 ‘2021 시정베스트 7’ 수상식이 있었다. 시민, 공무원, 시의원, 언론인 등 2,921명의 설문을 통해 선정된 베스트 7에서 1위인 ‘성매매집결지 자진폐쇄’에 이어 ‘수원e택시 운영과 광역버스 스마트 안전서비스 구축’이 2위를 달성했다.

수원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동결제와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수원시 전용 택시 호출앱을 출시했다. 특정 택시 호출앱의 독과점에 따른 높은 수수료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벽을 깨고 택시업계 종사자와 택시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외출을 삼가는 기조 속에서 난데없는 불황을 맞이한 택시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처에 따른 중개 수수료와 호출비 절감으로 운수 종사자들도 적극 앱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9월 10일 기준 수원시 운수 종사자 4,707명 중 무려 4,143명(88.3%)이 수원e택시를 이용 중라는 점에서 수원e택시의 업계 내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관에서 이를 돕는 적극적 민관협력 구조로 기존에 모바일 택시 호출업체를 이용하지 않던 비가맹택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을 위해

수원e택시는 중개비, 호출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의 편의 증대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위치에 따라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경로와 예상운행시간, 예상운행비가 확인 가능하다.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자동결제 기능이 가능하고 결제와 동시에 사용 요금의 2%가 적립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영화업계와 택시업계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 수원e택시 탑승 시 영화관 할인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택시 이용과 함께 자동 적립되는  
(2022.1.18. 조항인 촬영)



포인트요청사항 기재란  
(2022.1.18. 조항인 촬영)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승객이 선호하는 탑승방식을 사전에 택시기사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상 경로를 따르지 않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선호 옵션에서 ‘내비게이션에 따라 이동해 주세요.’를 선택하면 된다. 조용히 목적지에 가고 싶은 승객은 ‘조용히 가고 싶어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택시 운전사는 소비자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고, 사소하다 느껴져 택시운전사에게 원하는 바를 전달하기 어려웠던 탑승자 또한 만족스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발생 할 수 있는 작고 큰 분란·불편 사항을 사전 공지를 통해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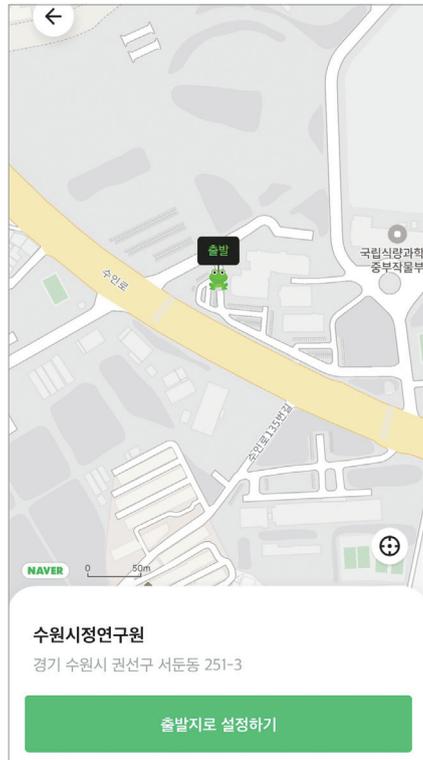
이와 같은 세심한 포인트를 잡은 특징으로 수원e택시는 2021년 9월 말 기준 출시 5개월 만에 5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60만 건이 넘는 콜을 요청한 수원형 택시 호출앱으로 단단히 자리 잡았다.

## 보랏빛으로 무장해 수원 곳곳을 뛰어다니는 청개구리

수원e택시는 출시 이후 앱과 실제현장의 콘셉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 중이다. 먼저, 명칭에서부터 수원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수원이’를 적극 활용했다. 수원이는 2016년 공포된 수원시 상징 캐릭터로 수원에서 최초 발견된 한국 고유종 수원청개구리가 모티브가 됐다. 보라색을 적극 활용한 앱의 첫 화면에 수원이가 등장하고, 탑승자의 현재 위치에도 청개구리가 앉아 있다. 수원시 상징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원시 홍보와 택시앱의 콘셉트 획일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앱에서 구축한 콘셉트는 실제 택시의 외관에도 적용해 ‘수원 택시’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2021년 12월, 노후화되고 사업자별로 제각각 다른 수원 관내 택

시 표시등을 교체했다. 새로운 표시등은 애플이콘 디자인, 색상 등 수원e택시 앱과 동일한 콘셉트를 가져갔다. 동시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살리기 위해 수원시 홍보기획관과 도시디자인단, 그리고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길쭉한 표시등 앞뒤에는 한글로 ‘수원’이 표기됐고 좌우에는 영문으로 ‘SUWON’이 표기됐다. 또, ‘SUWON e TAXI’가 새겨진 랩핑지를 부착해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유지했다. 자동차 앞문에는 보라색과 흰색의 격자무늬를 물결지게 표현했고 뒤이어 나오는 문구는 뒷문에 크게 배치해 가독성을 높였다.



현재 위치에 나타나는 수원이 캐릭터(2022.1.18. 조항인 촬영)



랩핑 작업 중인 수원e택시(2021.12.25. 수원시 포토뱅크)

택시업계와 수원시가 손을 맞잡고 고민한 수원e택시는 여러 매체에 소개되기도 하면서 지자체 택시업의 선두주자가 됐다. 개선된 디자인과 콘셉트, 그리고 서비스 품질과 함께 수원 곳곳을 여행할 수원e택시가 이대로 수원에 잘 자리 잡아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날을 고대한다.

“현장에서 들려 드립니다.”

#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 천천히 가릅니다

도시디자인 전문가들로 뚝뚝 뭉친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은 수원시민들의 실질적 편의를 위한 디자인을 위해 일한다. 많은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도시디자인단의 끊임없는 노력들은 사실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도시’의 디자인을 꿈꾸는 이 조직은 여러 부서들과 협업하며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다.

### 도시디자인단의 시작과 업무

2008년 도시계획국 내 신설된 도시경관과를 시작으로 2012년 도시창조국의 도시디자인과, 2014년 도시정책국의 도시상임기획과, 그리고 2019년 도시디자인단에 이르기까지 도시디자인단은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차츰 그 영역과 중요성을 넓혀 현재 제2부시장 직속기관으로 거듭났다.

파장초교 안전거리 설치  
(2018.6.17. 수원시 포토뱅크)

도시디자인단은 수원시라는 도시의 디자인을 기획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실무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디자인 전문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디자인단 업무의 특징을 꼽자면 타부서와의 협업이 많다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부서에서 디자인 중점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디자인단에서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담당자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결국 최선의 방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된다.

\_\_\_\_\_ 결국에는 협업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 협업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동 인권청사 하나를 놓고 볼 때, 인권 파트의 시선과 디자인 부서의 시선과 시설 파트의 시선과 행정 파트의 시선이 다 달라요. 다른 관점을 어떻게 모을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즉, 프로젝트의 총괄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도시디자인단 장진우 팀장)

협업 과정에서 디자인단의 역할은 이미 완성된 디자인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기획 단계에 협조하는 것이다. 외관의 아름다움을 재는 것보다 기획 단계에서 사업의 가치를 담아내서 디자인적으로 구현해내야 한다. 이를 곡해해 이미 발주가 진행된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제안하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도시디자인단에서는 대책의 필요성을 강구하고 있다.

\_\_\_\_\_ (저희 팀에) 디자인 협의가 들어와요. 디자인 시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 단계 때 어떤 가치들이 이 사업에 담아내서 그 가치를 디자인으로 눈에 보이게끔 구현해낼지, 그래서 기획력이 중요한데 그 앞단에서 들어오지를 않으니 까.(도시디자인단 장진우 팀장)



파장초등학교 안전통학로(2020.5.21. 수원시 포토뱅크)

### 파장동 안전마을 만들기

2013년 정부에서 주창한 ‘4대약 근절’<sup>1)</sup>로 학교 주변 불량식품과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이 모니터링을 위해 파장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당시 초등학교 인근은 단순히 골목길과 담

1)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아래 진행된 중점 과제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근절하고자 강력하게 내세운 국정 철학이다.

벼락 정비 정도로는 개선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도시디자인과(도시디자인단의 전신)는 환경 정비를 제안했다. 공간을 기획하는 창의적인 조직답게 CCTV 설치 등의 기존 체제를 답습하지 않고 셉테드 기법 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셉테드(CPTED)기법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설계를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또는 적용함으로써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심을 차단하거나 감소시켜 주는 실무적 이론이다.<sup>2)</sup>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파장동 파장초등학교 인근 공간 자체에 범죄 예방 및 안전을 위한 디자인을 적용해 근본적인 원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석현과 박동현<sup>3)</sup>은 구도심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세 가지 방향성과 추가적인 한 가지 중요성을 제언했다. 공공공간의 개방성과 접근성의 강화,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점점공간 조성, 가로네트워크의 형성과 주요 결절부 휴게공간 조성이 그것이다. 이에 더해 강조되는 부분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접근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안전공동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구심점이 되고 자연감시의 행위자가 되며 지속 가능한 안전을 유지하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파장동 안전마을은 위의 조건 충족을 위해 도전하고 성과를 일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사업이 진행된 구역은 파장초등학교와 주변 주거지, 상업시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상업지역의 유흥업소를 비롯해 좁은 구도심 공간 속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한 사각지대로 범죄 및 사고가 우려

2) 박현호, 2008,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필요성 고찰」, 『인문사회논총』 15, 1~26쪽.  
3) 이석현 · 광동화, 2016, 「구도심 안전마을디자인의 참여형 프로세스 사례연구」, 『한국디자인학회』 29(3), 145~160쪽.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크게 네 가지 해결책이 제시됐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변 환경과 공간 및 시설물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와 소통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단순히 행정기관과 전문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이용의 주체가 되는 주민협의체까지 함께 해 일방적 하향식 지도편달이 아닌 상향식 개선을 도모했다.

파장동 마을만들기를 위한 4가지 해결책

| 사업내용               | 세부내용  |
|--------------------|---|
| 안전한 학교주변 통학로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정문담장 주변 환경정비 및 후문주변 보행구역 확보</li> <li>- 담장 주변 공터의 공원화(식재 · 장실활동 등)</li> <li>- 문화시설을 통해 자연감시 확보</li> <li>- 셉테드 기법 활용을 통한 교통안전 통학로 확보</li> </ul> |
| 지역의 커뮤니티 및 어메니티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희 공간을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확보</li> <li>- 친환경 요소를 활용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li> <li>- 세대간의 커뮤니티를 위한 거리 조성</li> </ul>  |
| 파장시장 환경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용도 높은 아케이드 설치로 재래시장 현대화</li> <li>- 안전한 시장길을 위한 도로 개선</li> <li>- 시장의 전통을 살린 디자인 개선</li> </ul>  |
|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구역 지정 및 보도 정비</li> <li>- 도로상에서의 간이 주차공간 설치에 의한 차량 관리</li> <li>- 세일 어린이 공원 및 공공영역 공용주차장 조성</li> </ul>   |

파장동 안전마을 만들기는 2014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좋은 평가를 얻어 추가 인센티브로 실시 설계를 할 수 있었다. 2016년에는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했고 1단계 사업 이후에는 국토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많은 지자체에서 파장동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전례 없는 성과에 수원시 안전총괄과(시민안

전과의 전신)에서 안전마을 만들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획을 모색했고 도시 디자인과에서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서 받아 온 기본 플랜과 남은 예산으로 ‘수원시 안전 골목 만들기 10원칙’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동단위 지역에서 저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10원칙은 2016년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공공디자인 학술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자연 감시가 가능한  
야외 소통공간  
(2018.6.17.  
수원시 포토뱅크)

초등학교 앞 안전하길  
(2018.6.17.  
수원시 포토뱅크)



### 수원시 안전 골목 만들기 10원칙

| 구분         | 내용   |
|------------|--|
| 잘 보이게 하기   | 삼거리, 교차로가 많은 골목 모퉁이에 반사 시설물 설치             |
| 정보 제공하기    | 담장, 벽이 많아 지번 및 위치 확인이 어려운 골목길에 명칭 표기       |
| 공간 활성화하기   | 인적이 드문 거리에 주민들의 소통공간을 만들어 통행을 유도           |
| 거리 밝히기     | 균일한 가로 조도를 통해 가시성 확보                       |
| 예쁘게 꾸미기    | 골목길 환경개선으로 이미지 향상                          |
| 거리 비우기     | 은폐 공간을 일소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                     |
| 부드럽게 표현하기  |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적 표시 자제                        |
| 막힌 공간 개방하기 | 담장 높이를 낮추고 시야를 개방                          |
| 유지관리하기     | 자발적으로 쾌적한 골목 유지                            |
| 함께 가꾸기     | 주민들은 방법대를 꾸려 운영하고 담당기관은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민관협치) |

### 민관협력의 선두주자, 도시PD

\_\_\_\_\_ 지금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들이 기획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기획력 부족이 전문성의 부족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 기획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지만 전문직 공무원들로는 많은 업무협약의 양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보니 민간 전문가들의 역량을 빌리는데, 그 정책사업이 도시PD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단 장진우 팀장>

도시PD(Project Director)는 2020년 도입한 사업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민간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원을 공공사업에 활용하고자 한 프로젝트이다. 2019년 도시디자인단이 조직된 이후 2020년에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 공개모집으로 선출했다. 총 14명으로 구성된 도시PD들은 수원시 관내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1년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계획 건축, 조경, 경관, 환경디자인,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등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도시디자인단과 마찬가지로 주제에 대한 콘셉트와 방향성을 초기단계부터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도시PD 신청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창의력 높은 활발한 현직 활동가들을 기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14명의 도시PD의 대부분은 현재 현장과 실무에서 활발히 일하고 있는 40대이다. 두 번째로는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다. 수원이라는 지역을 잘 몰라 뜻을 함께하지 못하던 실력 좋은 설계사들을 수원으로 유입시킬 수 있었다.

활동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도시디자인단 담당자는 PD들의 관심분야를 사전 면접에서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받은 후 해당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도시PD와 매칭시킨다. 업무로 바쁜 도시PD를 제하고 관심과 시간을 모두 할애할 수 있는 도시PD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이후 사업이 진행될 때 파악하기 어려운 행정에 대해 도시디자인단에서 지원한다. 이외에도 도시PD와 사업부서, 시행사, 설계사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의견 차이를 중재·조율하는 역할을 도시디자인단에서 담당한다.

2020년에 도입된 도시PD는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큼직한 성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건물이나 조경 등의 큼직한 공간을 디자인하고 채워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공공에서는 부족한 기획력과 인력을 민간에서 빌리고 민간에서는 자신들의 창의성과 실무 능력을 공공과 함께 펼치는 선순환의 구조 속에서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사업이다.



보행자 도로 정비와 도로 정비  
(2018.6.17. 수원시 포토뱅크)



눈에 띄는 디자인을 활용한 골목길 환경 개선  
(2018.6.17. 수원시 포토뱅크)

### 수원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도시디자인단

위의 두 사례 이외에도 도시디자인단의 노력은 수원시 곳곳에 녹아 있다. 2022년 도입된 수원시의 새로운 종량제봉투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외관을 바꿨다. 개선된 봉투에는 시민들이 쉽게 헛갈려하는 분리배출 항목들



을 한눈에 보기 쉬운 픽토그램으로 만들어 그려 넣었다. 쓰레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라는 명칭 앞에 소각용·음식물·재사용 등의 분리배출 항목을 기재해 환경 배출에 대한 강조를 더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규정을 추가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분리배출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2021년에는 지동에 인권청사 개관이 있었다. 2016년 지동 인권청사 설계계획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과 주민들의 요구, 실내 공간 축소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뒷공간을 추가적으로 매입해 주차장으로 확장하고자 했는데, 도시디자인단에서는 추가되는 뒷공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건축기획 검토를 요청했다.

기존 계획을 뒤엎으려는 큰 시도였고 새로운 계획에는 2층짜리 두 개 건물을 건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 3층 건물계획과 달리 2층 건물이 두 개 들어서며 한 개 층에 대한 추가 공간이 확보됐고 두 개의 건물을 각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현재는 1단계로 전면에 위치한 행정동이 완공됐다. 후면에 지어질 문화동은 수원시 도시계획과와 팔달구청에서 매입과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채의 건물이 모두 완성된 이후에는 브릿지를 연결해 원활한 교류를 도모한다.

지동 인권청사가 디자인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보기 좋은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청사에 맞게 ‘인권’, 즉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당연한 배려를 곳곳에 배치해 가치를 건물에 담아냈다. 인권청사 건축 기획 단계에서 인권 담당자와 청사의 가치를 의논하며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다.

지동 행정복지센터 현판제막식(2021.12.15. 수원시 포토뱅크)



단차를 없앤 지동 인권센터의 외관 (2021.11.29. 수원시 포토뱅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안내판 (2021.11.29. 수원시 포토뱅크)

건축분야, 인권분야, 디자인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권영향평가와 여러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건축물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소하고도 당연한 배려의 내용을 담았다.

\_\_\_\_\_ 거기에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안내 사인부터, 복도 부분 관련해서 색약자분들도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벽과 맞닿는 복도 바닥부분을 다른 마감재로 한다든지. 그리고 주 출입구에는 계단을 없어서 단차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단순한 거지만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도시디자인단 장진우 팀장>

이 외에도 도시디자인단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최우수상과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에는 세계 3대 산업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에서 수원시립미술관 MI 디자인으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편익에 섬세한 시선을 보내는 도시디자인과의 수많은 노력들은 우리 생활 곳곳에 산재해 든든한 배려가 되고 있다.

### 진정한 ‘도시디자인’을 향하여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은 미적 요소뿐 아니라 약자의 편익을 생각한 생활속 디자인들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따라 함께 성장하고 그 중요성을 독려하는 역할이 된다.

\_\_\_\_\_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가고자 하는 가치·방향을 디자인행위를 통해 담아내고 풀어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 인권적인 가치가 중요시 여겨지고 하는데, 그 부분을 디자인을 통해서 공공청사, 지동행정복지센터에 담아가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데 의미를 많이 두고 싶어요.<도시디자인단 장진우 팀장>

그러나 궁극적으로 도시디자인단에서 펼쳐 나가야 할 ‘도시디자인’이란 좀 더 넓은 범위를 다뤄야 하는 영역이다. 도시디자인단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장진우 팀장이 추구하고 설명하는 도시디자인이란 단순한 디자인적 요소를 넘어 ‘도시’라는 명사에 주목하는 총체적 디자인이다.

\_\_\_\_\_ 제품을 디자인하면 제품 디자인, 시각물을 디자인하면 시각 디자인(포스터, 브랜드 등), 건축물을 디자인하면 건축디자인, 결국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도시디자인은 도시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건데 우리 국내에서 도시디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냥 행정에서 진행하고 집행한다고 공공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죠.<도시디자인단 장진우 팀장>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개념은 도시 전체의 컨셉과 이미지, 역사, 가치, 자원 등 총체적인 부분을 아울러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개념은 설명되기 시작한지 20~30년 된 신생학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에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실무를 실질적으로 진행해본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기를 긍정적으로 잘 보낼 때 비로소 완성도 있는 도시디자인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_\_\_\_\_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로만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아이디어로 스케일업 과정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10년, 1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실패도 하고 그 실패가 쌓이고 또 쌓이고 이런 실패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케일업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개념 설계(concept plan)가 중요한데, 그 개념 설계(concept plan)의 용어가 제가 말하는 디자인(design)입니다.<도시디자인단 장진우 팀장>

디자인에도 유행이 있다. 장진우 팀장은 현재는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디자인도 세월이 지나면 다른 시선으로 보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도시 곳곳에 디자인, 즉 아름다운 요소를 넣는 ‘디자인 도시’로의 방향성에 경각심을 가지고 도시 자체를 디자인한다는 ‘도시디자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도시디자인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수원시만의 콘셉트를 확보할 수 있다. 건물 하나를 세우는 것에도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것은 분명 많은 노력과 우여곡절, 그리고 긴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그럼에도 수원시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감각과 장기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이석현 · 광동화, 2016, 「구도심 안전마을디자인의 참여형 프로세스 사례연구」 『한국디자인학회』 29(3), 145~160쪽.  
 박현호, 2008,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필요성 고찰」 『인문사회논총』 15, 1~26쪽.



지역노사민정 협력 유공 시상식(2017.12.14. 수원시 포토뱅크)

노+사+  
‘민’정

### 노사민정협의회의 시작

정부의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이후 2010년 각 지자체 설치를 지시하며 수원시도 노사갈등 해결 및 완화를 위한 조직을 설립했다. 수원시 노사정협의회의 특징은 ‘사’와 ‘정’ 사이에 ‘민’을 넣었다는 것이다. 노동자와 사업체, 정부에 ‘민간’, 즉 시민을 추가함으로써 노동 분야의 원활한 관계에 수원 전체가 관련 있으며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역을 총체적으로 보는 관점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사실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수원의 많은 시민들 또한 한명의 노동자일수도 사업자일 수도 있다는 지점에 주목하면 노사정협의회에 ‘민’을 넣는 것이 당연했다.

당시 담당자는 법도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노사민정을 위한 업무를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는 조례나 법령에 의거해 진행된다. 기준이 있으면 업무 진행이 매끄럽기 때문에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사민정협의회는 맨땅에 곡괭이로 밭을 가는 것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피할 만한 주제였다.

\_\_\_\_\_ 위원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때 노사정위원회 법도 없었어요. 먼저 위원회가 설치되고 나중에 그 법이 생겼어요. 노사정 위원회 법. 그래 가지고 맨 처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지침 찾느라고 전국 100만 이상 도시, 그 쪽 도시를 많이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을 통해서, 거기 없으면 이제 광역도시로 이제 전화한 거예요. 광역. 서울시나 부산, 대구, 울산, 부산, 대구 이런 데 하여튼 전화해서 많이 이제 협조를 받았죠.〈화서2동 맞춤형복지팀(前 기업지원과) 최원학 팀장〉

담당자는 앞으로의 긴 운영을 위한 튼튼한 주춧돌을 다지기 위해 수원과 인구가 비슷한 당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창원, 고양, 울산시 등의 도시와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직접 지역을 돌아다니고 발품을 팔아 선례를 살피기도 하고 유선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협의회 운영의 주체, 위원을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인물을 어떤 기준으로 몇 명까지 구성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에, 담당자는 당시 노동부 경인지역본부(現 경기지부)에 찾아가 노하우를 배우기 시작했다.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인지역본부에는 이미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운영과 업무 처리에서 수원보다 앞서 있었다. 또 국내 기업과 경영 관련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 상공회의소에 적극적으로 문의하기도 했다. 상공회의소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위촉식(2010.9.17. 수원시 포토뱅크)



로 어느 정도의 위원들을 추려냈다. 협의회에 모든 사업자들을 포함시키기에는 인원들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을 선정했다. 이때 중복되는 노조를 제외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수를 동일하게 맞췄다.

\_\_\_\_\_도대체 누구를 노사민정으로 정의해야 되느냐 누구를 어떻게 집어 넣어야 되는지 조그마한 택시회사, 택시 몇 대 있다고 집어넣고 그러기는 좀 그래 가지고, 그러면 사용자를 노조 측을 다 집어넣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노조의 대표성 가진 사람 한 사람을 넣어야지 전체 노조를 다 집어넣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괜히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럼 동수로 해서 똑같은 숫자, 똑같은 숫자니까, 사용자 2명이면 사용자 노조 2명, 사용자 2명. 대신 같은 노조는 약간 좀 아니게끔. 약간 배려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은 노조를 하지만,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렇게 해서 집어넣게 됐고요.<화서2동 맞춤형복지팀 (前기업지원과) 최원학 팀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된 사람들 모두가 위원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담당자는 수원시 노사민정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파했다.

### 담당자와 구성원의 역할

노사민정협의회 담당자가 업무 진행 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키워드는 ‘예방’과 ‘중재’, ‘교육’이 있었다. 담당자들은 수원시 노동관련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며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정책 전략의 기조를 유지하고 불합리 없는 평등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노사민정 협력 유공 시상식(2014.12.22. 수원시 포토뱅크)

노사민정에 대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으로 2012년 전국 1개 지자체에 수여하는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수상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그 해 수원시가 표창받은 유일한 상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대통령상이라는 점에서 수원시가 얼마나 노력하고 결국 성과의 씨앗을 거둬들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데에 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매달 월례회의 주관을 통해 수원 노사민정의 현안을 파악하고 수시로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틈틈이 구성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워크숍이나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분쟁에서 중재의 역할은 큰 효과를 발휘했다. 노사분쟁·단체협약·단체교섭 등의 일이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원에게 알려지면 소식을 들은 담당자자 해당 조직에 방문해 갈등을 조정했다. 이때, 담당자는 중재자의 역할까지만 담당해야 했다. 협의회는 양측의 의견을 서로가 스스로 조율하도록 돕는 업무를 담당했을 뿐 양측의 잘잘못을 가리는 판사가 되어서는 안 됐다. 담당자의 현장방문에도 해결하지 못한 사례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 일을 해결했다.

2018년 3월 정기회의(2018.3.14. 수원시 포토뱅크)



HRD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어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HRD센터에서는 CCTV 등의 네트워크 인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틈새시장에 많은 수원 인력들을 유입시켰고, 예비 택시기사, 경력단절 치위생사, 한식조리사 등의 현장경험이 절실한 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위원장의 관심과 각 분야의 열정적인 참여율, 적극적인 중재에 일자리 창출 및 교육까지 합쳐지며 수원시 노동쟁의가 대폭 감소했다. 갈등 예방은 노사화합으로 이어졌고 이는 산업안정의 토대가 됐다. 일자리 창출은 튼튼한 산업역량에 한몫을 더했다.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알맞은 자리에서 맡은 바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물론 모든 조직들이 한순간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초창기에 사무국 하나로 시작했던 협의회는 운영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언론 소식 및 이슈와 현장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세부 과를 설정해 나갔다. 한국노총수원지역지부 산하기관 회원들과의 월례회의를 통해 촘촘하게 조직을 구성했다.

세부 과에 소속된 이후 각 소속원들의 관심은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협의회 위원장인 염태영 시장은 모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기관장의 높은 관심에 발맞춰 구성원들도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했다.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노사민정화합주간’을 기념해 1박 2일 강원도 고성으로 워크숍을 떠나기도 했는데, 노·사·민·정이 서로의 우애를 다짐으로써 갈등 해결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_\_\_\_\_노동조합하고 사용자 축하고 서로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좀 많이 추진을 해요. 보통 1박 2일, 보통 1박 2일로 많이 하고요. 강원도 고성 쪽으로 좀 많이 갔다왔구요. 강원도 고성까지 오세요 시장님이. 시장님이 진짜 거기 한번 왔다 가면 하루 다 가는 거잖아요. 시장님은 이제 보통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이제 같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계세요. 네 그러고 왔다 가면 하루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화서2동 맞춤형복지팀(前 기업지원과) 최원학 팀장>

### 도움을 준 에피소드, 힘들었던 에피소드

적극적으로 노사민정의 관계자들 안에 섞여 드는 한편 중재의 역할 수행을 위해 외부의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보아야 했던 담당자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_\_\_\_\_여담이지만 많이들 오셔서 응원을 좀 하셨어요. 시장님도 그 새벽까지, 새벽 2시 3시에도 오셔 가지고 막 치킨 사 들고 와가지고 야 수고가 많다. 치킨 먹어라. 어디 사용자 축, 아니면 어디 노조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회사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셔서 막 응원도 했어요. 수고가 많아, 음료수도 사 들고 오고, 그리고 간식 같은 거, 피자도 사다 주시고, 좀 많은 위안을 받고 그 바람에 더 많이 노력하게 됐죠. 지금도 그분들하고는 다들 친해요. (...) 저도 그래서 노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알게 되게 됐고, 그분들이 거꾸로 많이 도와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많이 고맙죠. 이게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대통령 표창은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화서2동 맞춤형복지팀(前 기업지원과) 최원학 팀장>



재경택시 노사만남(2011.8.31. 수원시 포토뱅크)

함께 격려하고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갈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수원시 대통령상 이후 담당자는 개인적으로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노사민정협의회 발족 이후 수원시 내 노사 간 분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수원 내 한 여행회사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담당자가 직접 노조에 찾아가 분쟁 발생 경위를 청취하고 고위직 인사와 대화해 상황을 해결한 적도 있었다. 담당자는 팽팽히 맞서는 양측과 20~30분 정도 짧게 이야기 나누게 하고 하루 건넌 뒤 이틀 뒤 다시 만나서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격양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서로의 자존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자 이틀 뒤에는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설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수월하게 일이 해결됐다.

\_\_\_\_\_ 관용차 끌고 이제 쪽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 이제 가방 하나 들고 사무실 찾아가서 사장님 계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시에서 왔어요, 사장님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그런 얘기를 좀 해요, 그래 가지고 서로 이제, 가능하면 노조 쪽에다 너희들도 한 발을 빼라, 사용자 측에서 좀 한 발 빼라, 서로 양보해서 이렇게 협약을 맺어야지, 어떻게 서로 자기주장만 다 하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안 되면 노사정위원회, 노사민정위원회에서 거기서도 협조를 하는 거예요.<화서2동 맞춤형복지팀(前 기업지원과) 최원학 팀장>



HRD센터 내부(2010.7.10. 수원시 포토뱅크)

## JOB 많은 수원 상생의 나비효과

취업난 속에 틈새시장을 발굴해 절실한 이에게 또 다른 기회를 선사하는 HRD 센터는 10년이 넘는 연차만큼이나 묵직하게 수원시 일자리 교육을 받고 있다. HRD센터는 다년간 사업이라는 장점 아래 꾸준함과 진정성 있는 교육으로 승부한다.

### 수원 HRD센터의 시작

2007년, 수원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작은 날갯짓이 시작됐다. 노동 관련 분야에서 주류를 차지했던 노사 관련 안전 사이에서 고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하나 둘씩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논의는 2008년 수원 지역 고용 포럼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노사가 주도했던 지역의 흐름에 민과정이 참여해 지역과 고용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2010년 수원 HRD센터 개소식(2010.7.10. 수원시 포토뱅크)



이후 시작된 지역 맞춤형 사업과 같은 고용 사업들은 HRD센터와 노사민정협의회 발족의 토대가 됐다.

일자리 교육을 위한 사업에서 어떤 주제를 가르칠지 확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된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과정과 한의원 서비스전문가 양성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한 시도 끝에 미래 가능성과 인력난을 동시에 잡고 있는 블루오션, CCTV설비 전문가 과정을 발굴하게 됐다. 다음의 절차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주대학교의 수원발전연구센터에 전문 컨설팅을 맡겼고 그 결과 고용유발 효과가 높고 인력 부족률도 높음을 확인하게 됐다. 특히 유지관리 인력 부족률이 50% 전후라는 결과로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 홍해의 중심에서 파란 바다 찾기

취업난 속에 블루오션(blue ocean) 찾기란 쉽지 않았다. 교육 사업 시작 이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성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았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세상의 많은 발견들이 우연에서 비롯됐듯 HRD센터의 장수 프로그램, 보안네트워크산업 전문엔지니어 일자리창출 사업 또한 우연한 번뜩임으로부터 발견됐다.

\_\_\_\_\_ 몇몇 지인들이 이제 광고 모처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그 지인 중에 이제 이쪽 관련 업계에 현장소장으로 있던 분이 있었고, “일은 많고 시장은 커지는데 사람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박명규 사무처장님이 “그래?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교육을 통해가지고 사

람이 배출되면은 그러면 수요가 많겠네?” 2009년도 여름에. 거기서 사실은 이제 발단이 돼서.<HRD센터 윤재훈 부장>

블루오션을 찾아다니던 관계자와 함께 일할 동료를 찾아다니던 관계자가 한 자리에 만나며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담당자들은 보안네트워크산업 전문엔지니어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 큰 가능성을 느꼈고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확인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주대학교 수원발전연구센터에 컨설팅을 맡기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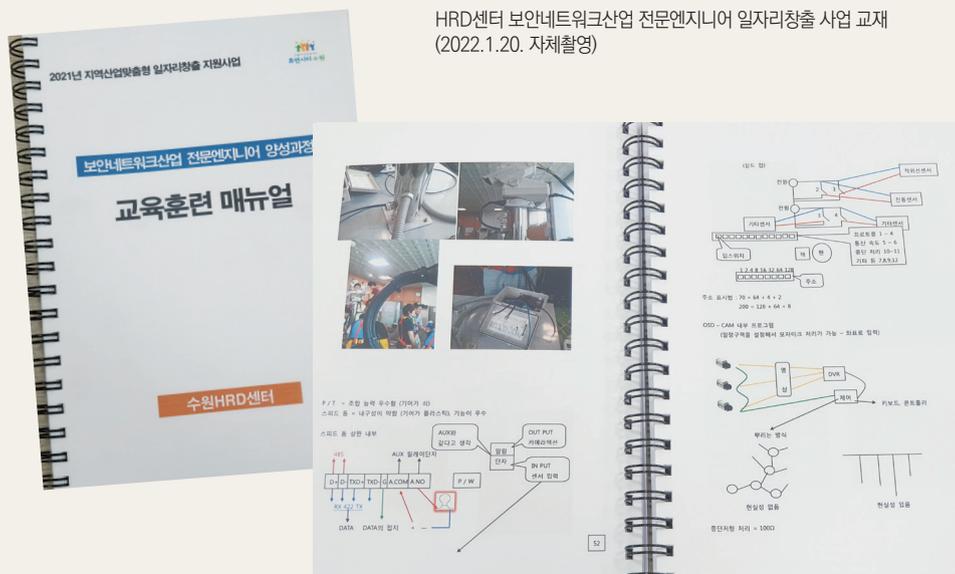
프로그램 주제를 설정한 이후부터는 가속도가 붙었다. 전국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강사부터 교재까지 직접 만들어야 했다. 이에 사업

을 시작한 2010년에는 처음 CCTV 및 보안네트워크에 대해 언급했던 관련 업계 현장 인력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위를 결성해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1차 연도에 주변 현장 소장들을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했다면, 2차 연도부터는 교육을 받아 어엿한 전문가로 성장한 교육생을 강사진으로 키워냈다. 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지식을 글과 말로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왔다. 교육생이 강사가 됐을 때 좋은 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생 신분이었던 이들이 교육생의 우여곡절과 힘든 점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이 관련 업계의 강사로 취업하며 긍정적인 선순환 취업의 길을 만들 수 있었다.

어디서도 살 수 없는 교재는 시기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했다. 디지털 시대의 전환기에 놓여 있는 현 시점에 아날로그가 소용없어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네트워크 케이블을 꽂기 전까지는 아날로그의 기술이 필요하다. 현장의 지식이 꾸준히 축적된 교재는 아날로그적인 엔진 저장 능력과 디지털 환경의 원활한 적용에 대한 균형점을 맞춘 노력의 결과이다.

현재 대부분의 일자리 사업들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보안네트워크산업 전문엔지니어 일자리창출 사업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은 여타 다른 업계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많아 길게 봤을 때 고용유지율은 오히려 중장년층이 높기도 하다.

\_\_\_\_\_이쪽 분야 자체가 20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장년층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또 이 틈새시장이니 취업 시장이 있으니.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고 관리하는 내용들은 젊은 층들이 주로 이제.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기자재들이나 장비들을 유지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통합 관제 쪽이라든가 하여튼 간



HRD센터 보안네트워크산업 전문엔지니어 일자리창출 사업 교재 (2022.1.20. 자체촬영)

중장년층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뚫을 수 있는 틈새나 이제 파생 시장들이 다양하게 열리는 편이어서, 물론 당해연도, 사업 당해연도에는 젊은 층들 취업률이 좀 좋긴 합니다. 근데 한 사업 끝나고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나고 놓고 보게 되면, 유지 쪽에서 보게 되면 고용 유지 쪽은 젊은 층보다 40대 50대가 더 높은 경우도 있고요, 당해 연도에는 취업을 못 했던 40대 50대들이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파악을 해보게 되면 취업해 있으시고.<HRD센터 윤재훈 부장>

### 단절된 일자리 이어 주기

HRD센터의 포문을 열었던 보안네트웍산업 전문엔지니어 일자리창출 사업 이후 센터의 르네상스를 주도한 것은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 과정이다. 특히 이 사업이 의미 있는 이유는 육아나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다시 일터로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_\_\_\_\_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 있는데 치과 위생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몇 년간 이제 손을 놓고 있다가 들어오자니 예전하고 환경도 많이 바뀌고 손도 많이 안 움직이고 지금은 치과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만 조금 이렇게 좀 케어해 주면 치과 쪽의 인력 부족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교육생들이 먼저 제안을 했던 거였거든요.<HRD센터 윤재훈 부장>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과정은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힌트를 얻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한 노사공동훈련 사업은 ‘노’와 ‘사’가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 프로그램이다. 이 때문에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센터 담당자들은 치과에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한 번 나가면 다시 취업하기 힘들다는 사정을 알게 됐다.

보안네트웍산업 전문엔지니어 일자리창출 사업 발굴 사례가 있었으니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과정 또한 물 흐르듯 진행됐다. 보안네트웍산업 전문엔지니어 일자리창출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위생사를 강사로 섭외했다. 현직에 있는 강사들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교육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_\_\_\_\_ 치과 쪽도 보면 치위생학과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론 위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교육해 드렸던 이게 임시 치아를 만든다거나 보험 청구를 실제로 해본다든가 이런 거를 병원에 가서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재직자 과정 할 때 참여했던 교육생들 중에 강사를 선발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근데 효과는 훨씬 좋았죠. 왜냐하면 가려운 곳을 썩씩 긁어주니까. 또 강사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치과 현장 내에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라든가 또 원장하고, 직원들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라든가 아니면 치위생사들 사이에도 또 그런 얘기들을 가감 없이 이제 하면서 교육을 하니까 효과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HRD센터 윤재훈 부장>

교육생들이 원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직자 과정에 참여했던 교육생들을 강사로 섭외한 것은 큰 호응을 얻었다. 비단 고객관리에 관한 것뿐 아니라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논의사항을 다뤘다.

사업이 시작된 2013년부터 꾸준히 시행한 결과 훈련 수료자는 거의 100%에 가

까운 수치가 됐고 코로나-19로 극심한 취업난을 피하기 어려웠던 2020년을 제외하면 70% 이상의 높은 취업률과 창업률을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무려 2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사회와의 오랜 단절을 끊어내고 다시 치위생사의 임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경력단절여성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과정 연도별 추진실적

| 시행 연도 | 훈련분야           | 훈련 인원 | 훈련 수료 |     | 취업, 창업 |    | 평가결과   |
|-------|----------------|-------|-------|-----|--------|----|--------|
|       |                |       | 인원    | %   | 인원     | %  |        |
| 2013  | 보험청구, 레진, CS등  | 27    | 20    | 74  | 17     | 85 | 보통(C)  |
| 2014  | 보험청구, 레진형태학    | 30    | 25    | 83  | 21     | 84 | 우수(A)  |
| 2015  | 보험청구, 레진, 병원상담 | 47    | 45    | 96  | 35     | 78 | 최우수(S) |
| 2016  | 보험청구, 레진, 병원상담 | 36    | 33    | 92  | 30     | 91 | 최우수(S) |
| 2017  | 보험청구, 레진, 병원상담 | 36    | 35    | 97  | 27     | 77 | 최우수(S) |
| 2018  | 보험청구, 레진, 병원상담 | 36    | 36    | 100 | 28     | 78 | 최우수(S) |
| 2019  | 보험청구, 레진, 재료 등 | 36    | 35    | 97  | 27     | 77 | 보통(B)  |
| 2020  | 보험청구, 레진, 감염관리 | 35    | 34    | 97  | 20     | 59 | 우수(A)  |
| 계     |                | 283   | 263   | 93  | 205    | 78 |        |



KOICA 엘살바도르경찰 치안역량강화 견학(2014.8.21. 수원시 포토뱅크)

### 덮쳐 오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첫 번째로 수원에 지역을 대표하는 특수 산업이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HRD센터는 직접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했고 그만큼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

\_\_\_\_\_ 수원 지역에서 대표, 수원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답변을 아무도 못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사실 있는 거죠.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말로는 제조업 비중이 줄고 서비스 사업이 40% 이상 넘어가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뭘 뽑아내기가 힘든 거죠. <HRD센터 윤재훈 부장>

현재 눈앞에 놓인 과제들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것은 담당자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됐다. 이에 더해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업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센터의 효자 교육 프로그램인 보안네트워크산업 전문엔지니어 일자리창출 사업과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과정은 실습이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장비와 재료가 크고 많기 때문에 직접 센터에 방문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업 단위를 쪼개고 최소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지금까지도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며 수업마다 성심성의를 다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10년 동안 잠든 씨앗이 움틀 때 행복이 찾아온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담당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 낮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다. ‘진정성’ 있는 교육을 위해 실무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던히 고민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에서도 교육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다. 노조에 대한 편견을 깨고 한 명의 일자리 제공으로 인한 큰 시너지를 도모했다.

\_\_\_\_\_ 사측이든 교육생 쪽이든 전부 다 노동조합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상당수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안 좋은 시각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교육 사업을 해? 한 번 해 봐. 다 느껴지거든요. 노동조합이 교육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증명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십 몇 년 동안 해오면서 그 부분들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HRD센터 윤재훈 부장)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보안네트워크산업 전문엔지니어 일자리창출 사업은 어느덧 10년이 넘어가는 장기 사업이 됐다. 2022년 현재는 예산 삭감으로 초창기처럼 100명 이상의 교육생들을 담당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꾸준한 수요율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의 취업률과 창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다년간 사업으로 심어 놓은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다. 초창기 시절의 교육생들이 회사에 취업해 어느덧 10년이 넘는 연차를 쌓게 되면서 인사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됐고 자신들의 시작을 더듬어 올라가 HRD센터에 교육생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혹자가 말하는 지지부진한 다년간 사업이 아니라 이제야 본격적으로 상생의 돌레가 한 바퀴를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 첫 시작이 된 사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보안네트워크산업 전문엔지니어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실적

| 시행 연도 | 훈련분야            | 훈련 인원 | 훈련 수료 |    | 취업, 창업 |    | 평가결과   |
|-------|-----------------|-------|-------|----|--------|----|--------|
|       |                 |       | 인원    | %  | 인원     | %  |        |
| 2010  | CCTV(물리적보안)     | 100   | 86    | 86 | 66     | 77 | 우수(B)  |
| 2011  | CCTV(물리적보안)     | 100   | 91    | 91 | 79     | 87 | 우수(B)  |
| 2012  | CCTV, 통합관제      | 112   | 103   | 92 | 82     | 80 | 최우수(A) |
| 2013  | CCTV, 네트워크      | 101   | 84    | 83 | 67     | 80 | 최우수(A) |
| 2014  | CCTV, 네트워크      | 97    | 82    | 85 | 64     | 78 | 최우수(S) |
| 2015  | CCTV, 네트워크      | 100   | 82    | 82 | 57     | 70 | 최우수(S) |
| 2016  | CCTV, 네트워크      | 65    | 52    | 80 | 34     | 65 | 보통(B)  |
| 2017  | CCTV, 네트워크      | 48    | 42    | 88 | 26     | 62 | 최우수    |
| 2018  | CCTV, 네트워크, IoT | 48    | 43    | 90 | 28     | 65 | 우수(A)  |
| 2019  | CCTV, 네트워크, IoT | 42    | 38    | 90 | 26     | 68 | 보통(B)  |
| 2020  | CCTV, 네트워크, IoT | 36    | 31    | 86 | 19     | 61 | 보통(B)  |
| 계     |                 | 849   | 734   | 87 | 548    | 74 |        |

\_\_\_\_\_ 최근 2~3년 정도에는 이제 취업을 했던 교육생들 취업한 다음에 연차가 올라가면서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직급이 되는 교육생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과장이나 부장급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직접 찾아와 가지고 교육생을 채용하고 싶다고 하시고.<HRD센터 윤재훈 부장>

HRD센터는 한 사람의 교육생이 입소할 때 그 너머 관계들의 중요성까지 생각한다. 일자리 하나에 놓인 사람이 직업인이자 가족의 구성원인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일자리 하나에 가족이, 그 구성원이,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달려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질적 함양에 힘쓰고 있다.

\_\_\_\_\_ 1년에 이제 100명 교육해 가지고 80명이 취업시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80명이 도대체 이게 6개월 지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지.<HRD센터 윤재훈 부장>

교육 진행 후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당장 알 수는 없다. HRD센터는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한 사람의 일자리가 가족의 행복이 될 수 있는 나비효과와 같이, 10여 년 전의 교육생이 인사권자가 되어 센터에 돌아오는 순환의 굴레와 같이 미래를 꿈꾸는 공동체 사회 안에서 특정한 역할을 해내는 HRD센터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신봉초등학교(2014.11.5. 수원시 포토뱅크)

\_\_\_\_\_

답이 먼저냐?  
달같이 먼저냐?

## 본격적인 화성행궁 복원 사업의 시작

화성행궁 복원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시작됐다. 1989년 10월, 수원시민들이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이후 1995년 1단계 복원 사업이 시작됐다. 1단계 사업의 원칙은 유산을 원상태 그대로 복구하는 것이었다. 『화성성역의 궤』라는 역사적 기록물에 따라 정조대왕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재현하고자 한 것이다.

2차 복원은 2003년 시작되어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1차에서 해결하지 못한 우화관, 별주 등의 목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차 복원 사업이 까다로운 이유는 화성행궁 터에 일제의 잔재가 산재해 있고, 주요 건축물 위에 현대 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협조와 양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차 복원 사업 예산의 절반을 웃도는 비율의 금액이 보상비 이용으로 계획됐다.

행궁 복원 2단계 추진성과(2020년 12월 31일)

| 기간                  | 내용                      |
|---------------------|-------------------------|
| 2002 ~ 2017         | 신평초교 및 사유지 토지 매입        |
| 2016 ~ 2017         | 지장물 철거 및 우화관 권역 발굴조사 완료 |
| 2018. 3. ~ 2019. 6. | 별주 권역(화성행궁 주차장) 발굴조사 완료 |
| 2019. 4. ~ 2020. 3. | 화성행궁 복원정비계획 수립용역 완료     |
| 2020. 5. ~ 2021. 2. | 화성행궁 복원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03년 이후 신평초등학교 부지의 우화관 복원은 지지부진했다. 2007년 행궁과 화령전 사이를 막고 있는 신평초등학교 별관 부지를 매입·철거해 원활한 행로 복원을 실행한 이후 우화관 복원과 관련된 주요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

다. 그러나 2010년 염태영 시장 당선 이후 신평초등학교 이전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시장의 적극적인 화성행궁 복원 의지로 수원시 교육장과 만남을 가졌고 2010년 큰 틀에서의 협의가 완료됐다.

수장들 사이의 원활한 의논 이후 더욱 중요한 과제는 학교와 연관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통폐합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명백한 도심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례는 최초에 가까웠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행 계획은 신평초등학교를 광교에 신설 예정된 학교로 옮기고 행궁동의 학교를 2018년 2월까지 분교장형태로 운영하되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것이었다. 신평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었던 신입생들은 인근 3개 학교에 분산해 입학하도록 장려했다.

화성행궁 전경과 별주(좌) 및 우화관(우)(2020.6.20. 수원시 포토뱅크)



\_\_\_\_\_ 학교 폐교가 아니라 이전이다. 이전은 광고택지지구가 있고 하니까 그쪽에 신설되는 학교로 옮기면 좋겠다. 2012년부터는 신입생을 안 받았어요. (...) 있는 애들은 졸업시키고, 학교를 이전하는 거다. 신입생들은 3개 학교에 분산하고 한 학년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연차별로. 그래서 이제 6학년 졸업하면, 그때 이제 이전을 하고 <팔달구 건축과(前 문화유산관리과) 고호 과장>

### 뒤섞인 이해관계 속 진실된 대화의 장

2010년 이전까지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역사와 가치를 지닌 기관을 통째로 이전하는 것에는 여러 집단의 협의가 필요했다. 교육지원청, 수원시, 학부모, 주민, 그리고 동문회까지 5개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짓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특히 수원시에서는 학부모와 주민, 동문

염태영 시장과 신봉초교 교장 및 관계자 만남(2011.1.13. 수원시 포토뱅크)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3개 집단 모두가 어느 정도까지 만족할 만한 중간 지점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크게 3개 집단으로 나누기는 했으나 그 안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상충됐다. 주민이자 학부모인 시민, 동문이자 주민인 시민, 학부모이자 동문인 시민 등등 사회 속에서 여러 역할이 중첩된 사람들의 각기 다른 의견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 각종 공청회, 주민총설명회, 주민대표설명회, 학부모대표회를 개최했다. 학부모가 아닌 주민들은 강경한 입장을 표하지는 않았다. 학교의 이전과 존치 사이에서 역사를 가지는 화성행궁의 복원이라는 설득 아래 비교적 어렵지 않게 타협이 가능했다.

반면 자녀들의 학업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의 경우 반대가 극심했다. 갑작스러운 전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우 문제나 통학로에 대한 안전 문제 등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에게 관심이 큰 것은 당연했다.

\_\_\_\_\_ 처음에 이제 주민 공청회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참석해서 주민 플러스 학부모니까 이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또 학부모 설명회 갔을 때에는 물리적인 반대도 하고, 교육장님 와서 설명하는데 계란도 투척하고 <팔달구 건축과(前 문화유산관리과) 고호 과장>

가장 큰 논점이 됐던 학생들의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신입생들에게 인근 3개교의 진학 선택권을 제한했다. 남창초교, 연무초교, 화홍초교를 통합 학군으로 묶어 원하는 학풍이나 조건에 맞게 등교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재학생들도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재학생들 대부분은 신봉초등학교에 남아 있기를 원했다.

두 번째로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신평초교에 남기를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전학 가는 일부 학생들이 있었고,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점점 조용해지는 학교 분위기를 회복 시키고자 했다. 이에 행궁 안 학교라는 특성에 맞게 전통 악기를 다루는 취타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원래대로였다면 신평초등학교에 입학했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주변 3개교에도 아낌없이 후원했다. 남창초등학교의 경우 환경도시 수원에 걸맞은 아토피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토피를 앓고 있는 타 학교의 학생들이 전학을 올 수 있게끔 유도했다.

세 번째로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주변 환경을 개선했다. 개선하는 물리적인 환경들을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직접 인근 통학로를 모두 걸어보고 개선에 반영했다. 이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문제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선정하기도 했다. 신평초등학교를 떠나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학생들이 방향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1896년 개교한 신평초등학교는 경기도 최초의 공립 초등학교로 역사가 깊다. 또한 신평초등학교 강당은 1957년 세워진 건물로 근대건축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120년 역사의 교육적 가치와 더불어 근대건축의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2021년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역사적 배경과 함께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동문과 학교의 의견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학교 강당을 사료관으로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_\_\_\_\_ 동문들은 학교에 애착이 많잖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신평초등학교 남창초등학교 이런 쪽이 다 명문학교였거든요. 지금도 명문이지만은, 성

내 학교라고 해서, 굉장히 명문학교로 불렸던 것 같아요. 예전 정문 우측 가면은 본교 철거하기 전에 다 남겨 놔어요. 동문회에서 요구하고 학교에서 보존해야 될 그런 것들은 그쪽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팔달구 건축과(前 문화유산관리과) 고호 과장)

세 집단, 특히 학부모의 경우 수원시 측에 매우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단체를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담당자들은 직접 발로 뛰며 모든 시민 한 명 한 명을 설득해 나갔다. 화성행궁에 자긍심을 가진 수원시민 대 시민으로 ‘대화’해 나가기 시작하자 성난 목소리는 점차 잠잠해졌다.

화성행궁과 신평초등학교(2007.11.5. 포토뱅크)



\_\_\_\_\_ 서서히 이제 한 분, 두 분 개별 면담을 하다 보면 바뀌어요. 힘든데,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사람들 입장에서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개발 사업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화성행궁 중에 일부 시설을 복원하는 거고, 그 복원하면, 문화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도 되고 그 이후에 행궁동 주민들 있잖아요. 학부모들. 지금도 가끔 만나요. 지금 상인회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때 대표회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론을 바꿔 나가는 역할을 해 줬어요. <팔달구 건축과(前 문화유산관리과) 고호 과장>

시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일일이 체크하고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발 빠르고 꼼꼼한 대응과 적극적인 소통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원시 담당자들을 관리인이 아닌 한 명의 또 다른 시민이자 이웃으로 여기게 됐다.

### 기관 간 협동을 통한 더 나은 미래 만들기

\_\_\_\_\_ 학부모들 반대는 너희들(수원시)이 막아라. “원인자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알았다라고 해서 행정적인 거는 다 그쪽(교육지원청)에서. <팔달구 건축과(前 문화유산관리과) 고호 과장>

원활한 이전을 위해 교육청과 수원시는 역할을 분담했다. ‘학교 이전’ 자체는 교육과 관련된 것이므로 교육청에서 도맡았다. 광고 이전에 대한 행정 절차 이외의 업무는 수원시에서 담당했다. 학생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주민, 학부모들은 엄밀히 말하면 학교 및 학생 자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정을 모르는 시민들이 ‘학교 이전’이라는 키워드만 놓고 바라봤을 때 교육청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기 쉬웠다. 수원시에서 담당하는 업무임에도 이전 반대 입장을 가진 집단의 민원과 갈등의 표적이 교육청을 향하면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큰 틀에서 수원시와 교육청의 협력이 있었음에도 실무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외부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이나 수원시나 같은 세금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다 합당한 절차를 위한 복잡한 예산심의규칙이 있었고 두 기관의 의견이 완전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_\_\_\_\_ 큰 틀에서 협력이 됐지만 실무적으로도 소소하게 여러 가지 부딪치는 경우도 많았어요. 2011년에 저희가 국·도비 포함해서 30억을 확보했는데, 이게 그 해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재청과 설득을 해서 30억이라는 돈을 받아 놨는데, 교육청에서는 못 받아 간다 그러고, 계약을 하고 가져가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은 다 가고,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말에 계속 가갖고 도장 찍자고 가갖고 애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12월 30일인가? 연말 다 됐어요. 그때 계약을 하고. <팔달구 건축과(前 문화유산관리과) 고호 과장>

당시 수원시 측에서도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교육청에서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 꼼꼼한 절차와 규정이 있을 때 국민들의 세금이 더욱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다. 결국 양측의 협의 끝에 예산 마감 직전 수원시에서 교육청에 계약금을 입금하면서 무사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 슬기로운 복원의 끝을 향하여

\_\_\_\_\_이전을 통해서 나머지를 복원함으로써 전체적인 화성행궁이 200년 전 모습을 갖출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신평초등학교 이전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팔달구 건축과(前 문화유산관리과) 고호 과장)

완전한 수원화성의 모습을 구현해낸다는 목표 아래 신평초등학교의 이전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이었다. 다만 신평초교 또한 근대의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라는 딜레마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과, 이 장소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 여러 집단들을 그저 집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서 결합되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덕에 이후의 과정에서 오롯이 화성행궁에 집중할 수 있었다. 철저한 고증과 꼼꼼한 조사 끝에 시작된 화성행궁 2차 복원 사업은 화성행궁 복원 이전보다 복원 이후의 날이 더 길다는 점에 명심을 기해 차근차근 진행됐다.

\_\_\_\_\_문화재 공사는 오래 걸려요. 빨리 하면 안 돼요. 복원은 그래도 설계도가 나오지만, 보수공사는 그러지 않아요. 원래 요만큼 했는데 뜯어 버렸다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고, 외과술이랑 똑같아요. 맹장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수술하다가 갑자기 옆에 다른 게 있으면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차근. 굉장히 차근차근 해야 돼요. 전문가의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되고.(팔달구 건축과(前 문화유산관리과) 고호 과장)

2단계 복원에서는 신평초교 이전 이후 2016년부터 철저한 발굴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복원의 절차를 밟았다.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분교장 철거 및 우화관 일대를 발굴조사했다. 다음 해인 2018년 3월부터는 1년 3개월 동안 별주 권역 확장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2019년까지 화성행궁 2단계 복원 발굴조사가 진행됐고 같은 해에 복원정비계획을 발주해 2020년 3월에 완료했다. 2020년 3월에 바로 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했고 2021년 문화재청의 승인 및 용역을 완료한 후 비로소 복원공사 착수에 들어갔다.

복원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에 발생하는 200년의 괴리를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몇 십 년 만에 기록과 유구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빠르게 진행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수원시는 온전한 수원화성의 모습을 수원시민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전 세계에 소개할 예정이다.



우화관 일대 발굴조사 현장(2016.11.14. 수원시 포토뱅크)

## 공동체 회복의 르네상스

### 관심과 의지, 실행력의 시너지

2010년 7월 염태영 시장 취임과 동시에 핵심공약인 마을만들기<sup>4)</sup>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5개월 만에(2010년 12월) 마을만들기 추진단을 설치했고 조례를 통해 법적 토대를 다졌다. 2011년 3월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곧바로 민간 위탁을 통해 지원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5월부터는 12개의 부서의 협업단체, 행정지원협의체를 결성해 마을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6월에는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개소식을 열며 수원형 마을만들기의 방향을 공표했다.

4) 수원시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르네상스 공모 사업과 같은 뜻을 가진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으로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명확성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7월과 8월에 공모 사업 접수와 선정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포문을 열었다. 염태영 시장 취임 이후 1년 만에 기틀을 완성한 마을만들기는 2022년 현재까지 다른 시군에게 모범사례가 되어 이어져 왔다.

길게 느껴질 수 있는 1년의 기간이지만, 2010년 당시 수원시 담당자들에게 마을만들기는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담당자들은 초창기 멤버로서 기틀을 닦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했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크게 행정과 공모로 업무를 나누어 진행했다. 행정과 관련해서는 먼저 국내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당시 살펴볼 만한 마을만들기 사례는 전라북도 진안군이 있었는데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수원과의 괴리로 더욱 다양한 사례가 필요했다. 이에 한국보다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한발 앞선 국가, 일본에 눈을 돌렸고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를 참조하면서 한국의 도시형 마을만들기를 계획해 나갔다.

공모와 관련해서는 마을만들기의 진행방식에 대해 고민했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했다. 마을 만들기 및 도시재생을 연구한 국내 학자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며 일부를 차용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단체 신청 공모는 심사위원들과 현장을 방문해 배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결속력을 다질 수 있었고 공모 선정 이후에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_\_\_\_\_ 공모 사업 콘셉트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거기  
에 보면 시설 개선 분야가 있어서 건축도 있어야 되고 조경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그런 교수님들을 다 불렀어요. 초창기에는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니까 일단  
분야별로 다 모였어요.(도시개발과(前 마을만들기추진단) 최종열 팀장)

당시 한국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시 마포구, 전북, 제주도, 진안군, 창원시 등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한 몇몇 지자체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성공했다고 할 만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실제로 수원시에서 선보인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됐다. 때문에 공모 사업 과정과 세부 명칭 선정, 이를테면 공모 사업 이전 단계를 지원하는 씨앗공모의 명칭 선정 등 사업 전체를 완전히 새로 구상해야 했다.

‘수원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이 주도하는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마을 문화예술 사업, 마을만들기 학습·교육·교류 사업 등이며,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포함한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확대 이전의 수원 마을만들기 사업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일반공모 사업은 특정 시기에 공모와 심사를 거쳐 특정팀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기획공모 사업은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주제 분야를 선정해 공모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씨앗공모 사업은 2013년 도입됐으며 공모를 준비하는 예비 단체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 유형

| 구분 |   | 상세내용   |
|----|---|--|
| 일반 | 공동체 활성화   | 마을조사, 문화, 예술, 시장, 나눔 등<br>지원금 500만 원 이내      |
|    | 공간조성 사업   | 텃밭조성, 벽화, 가로환경개선 등<br>지원금 2,000만 원 이내        |
|    | 시설공모 사업   | 마을갤러리, 동아리공간, 북카페,<br>마을회관 등 지원금 4,000만 원 이내 |
| 기획 | 도시농업, 재활용, 에너지, 여성친화 등의 특정 주제<br>대상 지원금 1억 원 이내 |  |
| 씨앗 | 공동체를 위한 모임형성, 사업구상 등<br>도모과정 지원금 100만 원 이내      |  |

자료 : 김주석, 2016, 「수원시 마을만들기 과제 3-마을만들기공모 사업-」,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도시재단(前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 르네상스센터(現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안착하기 이전에는 시청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교육과 설명회를 진행했다. 첫 도전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었다. 사업의 연차가 쌓일수록 노하우가 늘었고 여러 규칙을 차츰 만들어 나갔다. 수원시 마을만들기는 시작부터 수원시만의 참신하고 독자적인 형태로 티끌을 모아 왔다. 10년 후 수원시 마을만들기는 여러 지자체에서 참고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됐고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루는 결과를 낳았다.

\_\_\_\_\_후발 주자로 나왔던 다른 시들도 우리 시가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복사했어요. 특히 경기도도 우리가 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우리 시 정책을 가져가서 한 거예요. 경기도 따복 공동체 이런 것들도 다.(도시개발과(前 마을만들기추진단) 최종열 팀장)



마을만들기추진단 최종발표회(2015.7.10. 수원시 포토뱅크)

### 그래서 마을만들기가 뭔데?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에 설명에 따르면, 마을만들기는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단기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넘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자율성을 고양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마을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지원한다.<sup>5)</sup>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을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무엇보다도 ‘주민’이다. 이 때문에 초기에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담당 직원 교육은 필수적이었다. 이후 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를 구별로 열었다. 특히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의 통장을 위주로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을의 마당밭이자 중역을 포섭한 점은 사업에 큰 도움이 됐다. 마을 공동체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관내 다양한 자생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사업 초기에는 담당자도 주민도 마을만들기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마을만들기의 중요성에 대해 배워 나감과 동시에 공모 사업진행, 회계정산까지 함께하며 정신없이 사업을 이어 나갔다.

수원시는 백지에 도안을 그려내기 위해 마을학교를 운영했다. 마을학교에서는 마을만들기 개념 이해, 역량강화 등 초석을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마을르네상스센터와 전문가들이 튜터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도왔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 마을만들기를 통해 변화한 실제 사례를 경험하기 위해 담당자들과 주민들을 위한 선행 사례 국내외 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_\_\_\_\_일본의 동경에 가면은 그 마치즈쿠리 센터 같은 게 있어요. 마을별로 규약이 있어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동의한 그제 있어야지 내준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거 우리 마을에 이거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못 내준대요. 상생방안을, 내가 이 마을에 뭘 하겠다. 내가 이 길부터 저 길까지는 내가 매일 청소를 하겠다든지.(도시개발과(前 마을만들기추진단) 최중열 팀장)

5) 수원의회제21추진협의회, 2013, 『골목에서 소통하다: 수원 마을르네상스 이야기』.

일본의 사례와 같이 철저한 마을 공동체 규약을 한국에 곧이곧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나은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취지는 충분히 수용할 만한 개념이었다. 이 외에도 제주도 동백마을이나, 광주광역시 서래마을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고 주민과 담당자가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 공동체 소통의 기쁨을 차차 알아 가게 됐다.

### 조율과 절충의 과정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수원시의 예산을 들여 실행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형식을 지켜야 했다. 관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비 사용처 구분이나 회계결산 등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은 투명성이 기본이었고 누구 한 팀의 사정을 봐주다가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길 수 있었다. 관의 딱딱한 절차에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자들은 끊임없는 피드백을 진행했다. 정책 수립과 예산 설정 등 전반적인 업무는 시에서 도맡았다. 심지어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는 예시를 들기 위해 팀 총무의 옆에서 업무를 대신해 주다시피 도와주기까지 했다. 적극적인 도움에 주민들도 점차 관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발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주민들은 팀 내부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갈등부터 단체 간 과한 경쟁으로 인한 갈등까지 각자의 억울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마을르네상스센터 또는 수원시 담당자들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면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담당자들은 갈등 상황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한 쪽의 편을 들어주기 어려웠다. 설령 담당자가 한 쪽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시민을 지원하는 공무의 영역 안에서 실제로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사건을 내비칠 수 없었다. 어느 길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대화를 통한 이해뿐이었다. 당시의 담당자는 아직 까지도 갈등에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오해와 갈등을 속에만 묵혀둘 때 해결이 어렵다는 점은 확실했고 갈등의 주체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마을만들기에 선정된 각 팀에서는 시청 담당자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마을만들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행사와 공연 등의 프로그램은 평일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 진행됐다. 담당자들은 공동체 회복에 대한 열정과 모니터링을 위해 각종 행사에 참여했고 공모 사업 마무리 이후부터 새로운 공모 사업 시작 이전의 4개월을 제외한 8개월 내내 주말 없이 일했다. 주말 없는 근무가 지속되자 피로도가 높아진 직원들은 조를 짜 돌아가며 참석하기도 했다.

\_\_\_\_\_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 거.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마을 만들기 하신 분들은 그래도 옛날 분들이라 마을의 어떤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그분들은 향수가 있는 분들이었죠. 이 사업을 한 2년 정도 끌고 온 대표님들은 술 먹고 나한테 힘들다고 그러고,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 참 고마운데 해줄 말이 없었어요.〈도시개발과(前 마을만들기추진단) 최종열 팀장〉

업무에 지치는 것은 마을르네상스센터 직원과 수원시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공모에 선정된 각 팀의 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마을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민들은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없이 보람과 성취를 양분 삼아 일했다. 주민 구성원들과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너무 많은 일이 소수의 사람에게 몰리거나 갈등 상황을 빚게 될 때 깊은 회의감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시 담당자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일뿐이었다. 임원진들이 이야기를 한참 풀어내고 나면 다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 주민이 함께 마을을 위한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일상 속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일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동력이 된 것들

수원시 마을만들기는 그 인기만큼이나 특별한 사업들이 여럿 진행됐다. 각 단체들은 각자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협동해 팀을 이끌어 나갔다. 분야의 폭이 넓은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도출됐고 그 수만큼의 다양한 사업성과를 이끌어냈다.

아파트는 새로운 개념의 마을이다. 현대인들이 소규모 단지나 단독주택에서 벗어나 대단지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며 불거진 문제 중에 하나가 이웃과의 소통부재이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른 영향도 있고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완전히 불통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가 과거의 마을에 비해 소통이 확연히 줄어든 공간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조원1동 마돈나 생돈가스 개장식(2013.9.24. 수원시 포토뱅크)

삭막해 보이는 아파트에서 소통과 공동체 문화를 꽃피운 주역의 대부분은 아이들 둔 부모였다. 특히 끊임없는 육아로 지쳤거나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단지 내 유효공간을 찾아서 공동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엄마들은 로테이션 순서에 따라 아이들의 학습을 봐주고 자녀들이 또래와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어 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마을만들기에는 북카페 운영으로 신청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공간을 마련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작은 도서관 사업이 점심 제공 사업으로 확대되고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성장한 사례도 있었다.

\_\_\_\_\_ 조원1동에 대추동이, 거기가 작은 도서관인가로 시작해서 책도 빌려주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돈가스 가게를 차려 가지고 차상위계층 친구들 점심 먹는 사업도 하고, 동네 분들, 시니어 분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것도 만들고,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도시개발과(前 마을만들기추진단) 최종열 팀장)

장안구 조원동의 대추동이는 수원 도심 외곽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소외계층의 비율도 높았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따뜻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나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음식체험 프로그램으로 거리를 좁혀 갔다. 마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향심 향상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마을지도그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문화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복합 시설 공간을 마련한 이후부터는 작은 도서관 운영, 영어교실, 영화상영 등 마을 주민들 모두 모여 즐기는 커뮤니티가 형성됐다. 대추동이가 특별한 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적 기업, 왕돈가스 가게를 운영하게 됐다는 것이다. 소통에서 상생까지 일련의 과정은 마을만들기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했다. 대추동이는 소외 없는 단합의 복지를 직접 실현함으로써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갔다.

2016년을 기준으로 대추동이와 같은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약 200개의 팀들이 공모 사업에 도전했고 이 중 70%의 팀이 선정됐다. 작은 도서관이나 사회적 기업 이외에도 행궁동에서는 시니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금빛합창단을 운영하고 태장동에서는 매년 국화축제를 개최했다. 울천동에서는 마을의 뿌리를 찾기 위해 밤나무동산을 식재하면서 함께 공원을 가꿔나갔고 밤나무에서 시작한 활동은 문화의 거리 조성까지 이어졌다. 환경수도 수원시의 위상을 알리듯 정자3동에서는 자전거시민학교와 커뮤니티를 결성해 생태교통을 이어 갔다.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백미는 공모심사 과정에서 볼 수 있었다. 공모심사일에 심사장에 가면 모든 주민들이 나와 자신의 팀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에서 공동체 회복의 면면을 볼 수 있었다. 마을만들기 팀들과 우여곡절을 함께해 온

센터 직원들과 시청 담당자들은 공적인 영역을 넘어서 마을 주민의 한 구성원으로 여겨졌고 서로의 사회에 깊이 개입하며 하나 되는 수원을 그려 갔다.

\_\_\_\_\_ 연말이 되면 콘테스트를 했었어요, 대상 발표하고 그럴 때 주민들이 막 긴장하고, 제가 사회를 보면서 주민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막 서로 자기 불러달라고 하하. 행사 끝나고 주민들하고 사진 찍고 행사라하고, 자기 팀끼리 너무 기뻐하고 막 우리들도 같이 기뻐해 주고, 주민들이 우리를 막 같이 불러서 사진찍자고 하고, 사실 (저희를)공무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마을 단체의 회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네 회원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무 때나 막 부르는 거죠, 하하. 전화가 아무 때나 막 울려요,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이런 개념이 없어. 그래도 회상해보면 그때가 참 보람이 있었어요.(도시개발과(前 마을만들기추진단) 최종열 팀장)

태장동 국화축제(2013.10.28. 수원시 포토뱅크)



울천동 밤밭청개구리공원 전경(2014.10.16. 수원시 포토뱅크)



###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마을만들기의 궁극적 목적은 공동체 활성화에 있다. 때문에 언제까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보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편에 방향을 두고 있었다. 담당자들이 운영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지속성’인 점도 목표에 가까운 지속가능 사업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다. 단발성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지원 단계에서 단발성 계획서들은 우선적으로 배제됐다. 2년이나 3년 장기 플랜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단체에서 공동체에 대한 진실성을 엿볼 수 있었다.

\_\_\_\_\_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니 우리가 마중물을 부어 주고 주민들이 일어나는 데까지만 도와주는 거죠. 일어나서 달리는 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마을 만들기가 지속될 수 없어요.<도시개발과(前 마을만들기추진단) 최중열 팀장>

마을만들기 추진 10년 동안 표면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마을르네상스 센터는 2022년 마을자치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꿨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주민제안 공모 사업<sup>6)</sup>의 한 분야가 됐다. 마을만들기는 주민제안 통합공모 사업에 편입·지속되고 있다. 2014년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가꾸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고 소그룹으로 진행되던 마을만들기보다 큰 그룹의 국가사업 개념으로 수원시에 안착했다.

6) 2022년 상반기 공모 사업 기준 마을만들기분야, 물환경분야, 청년지원분야로 나뉜다.

이 흐름에 발맞춰 마을만들기는 도시재생과 같은 보다 큰 주민공동체를 위한 이전 단계이자 준비단계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며 수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국가에서도 주민과 공동체, 소통, 주도의 키워드를 강조하게 됐고 마을만들기와 비슷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됐다. 국가사업에 합류하게 된 마을만들기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수원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수원에서 마을공동체가 가지는 가치를 계속 끌고 나가려는 노력이다.

지동마을만들기 벽화그리기 사업현장(2011.9.3. 수원시 포토뱅크)



주민제안 공모 사업 : 마을만들기 분야

| 씨앗  |                     | 성장  |                            | 기획  |  |
|-----|---------------------|-----|----------------------------|-----|--|
| 구분  | 세부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대상  | 행정동 내 공동체 3인 이상     | 대상  | 행정동 내 공모 사업 유경험 공동체 10인 이상 | 대상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원하는 주민 15인 이상 |
| 내용  | 신규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바로알기 | 내용  | 마을공동체역량강화, 마을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 내용  |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 대응과 마을 단위 실천 사업       |
| 지원금 | 100만 원 이내           | 지원금 | 500만 원 이내                  | 지원금 | 1,000만 원 이내                            |
| 서류  | 사업제안서 (선정 후) 고유번호증  | 서류  | 사업제안서, 고유번호증               | 서류  | 사업제안서 (선정 후) 고유번호증                     |

수원시 주관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사업

| 구분  | 마을자치활동                            | 공동체활성화                         |
|-----|-----------------------------------|--------------------------------|
| 대상  | 주민자치회 위원이 포함된 공동체(10인 이상)         | 동단위 공모 사업 유경험 공동체(10인 이상)      |
| 내용  | 마을조사 및 계획 등 활동지원을 통한 마을자체계획 기반 마련 | 공동체 확산을 목표로 한 동 단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
| 지원금 | 700만 원                            | 700만 원                         |

참고문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2013, 『골목에서 소통하다 : 수원 마을르네상스 이야기』,  
 김주석, 2016, 『수원시 마을만들기 과제 3 -마을만들기공모 사업-』, 수원시정연구원.



마을만들기주간 행사 시상식(2013.9.25. 수원시 포토뱅크)

책임연구원 유현희(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공동연구원 홍현영(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정수자(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집 필 조항인(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손예은(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  
현장에서  
들려  
드립니다  
”

수원학 기획총서 2

수원 청개구리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행정

발행일 2022년 6월 1일  
발행처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수원학연구원  
수원학연구소  
편집 및 인쇄 수기획 031-256-0123

I S B N 979-11-6819-055-9 94060  
979-11-6819-053-5 (세트)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